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한 국 어 교 육 을 위 한
감정표현 어휘 연구



2012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미 지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한 국 어 교 육 을 위 한
감정표현 어휘 연구

지도교수 채 영 희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미 지

이미지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2월 25일



주 심 문학박사 강현화 (인)

위 원 문학박사 우형식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희섭 (인)

위 원 문학박사 권성미 (인)

위 원 문학박사 채영희 (인)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연구 대상과 방법	6
1.3. 선행 연구	11
1.4. 논의의 구성	17
II. 감정표현 어휘의 범위와 분류	18
2.1. 감정표현 어휘의 범위	18
2.1.1. 감정의 개념	18
2.1.2. 감정표현 어휘의 범위	22
2.2. 감정표현 어휘의 분류	27
2.2.1. 기본 감정과 이차적 감정	27
2.2.2. 감정표현의 기본 어휘와 이차 어휘	31
2.3. 감정표현 어휘의 사용 양상	38
III. 감정표현 어휘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	49
3.1. 감정표현 어휘의 통사적 특징	49
3.1.1. 경험주로서의 주어	49
3.1.2. 주어 인칭 제약	53
3.1.3.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구조	57
3.2.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적 특징	64
3.2.1. 정도성	64
3.2.2. 연결성	67

3.2.3. 인과성과 피동성	69
3.2.4. 소극적 통제성	71
IV.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와 사용맥락 분석	74
4.1. ‘기쁨’의 감정표현 어휘군	75
4.1.1. ‘기쁘다’	77
4.1.2. ‘즐겁다’	82
4.1.3. ‘행복하다’	85
4.1.4. ‘신나다’	88
4.1.5. ‘흥겹다’	92
4.2. ‘슬픔’의 감정표현 어휘군	95
4.2.1. ‘슬프다’	97
4.2.2. ‘서럽다’	99
4.2.3. ‘서글프다’	105
4.2.4. ‘우울하다’	110
4.3. ‘두려움’의 감정표현 어휘군	116
4.3.1. ‘무섭다’	118
4.3.2. ‘두렵다’	121
4.4. ‘노여움’의 감정표현 어휘군	126
4.4.1. ‘화나다’	127
4.4.2. ‘성나다’	129
4.4.3. ‘짜증나다’	132
4.4.4. ‘노엽다’	135
V. 결론	137

참고 문헌	140
부록	149



<표 목차>

<표 1> 감정의 정의	19
<표 2> 감정의 특징	20
<표 3> 기본 감정의 분류	28
<표 4> Plutchik(2000)의 혼합감정 명명 표	30
<표 5> 감정 유형별 기본 어휘와 이차 어휘	33
<표 6> 감정 유형별 어휘의 중요도 판정	36
<표 7> 감정 유형별 분석 대상 어휘 목록	38
<표 8> 감정 유형별 상황과 기대 응답	39
<표 9> 상황 1의 응답 결과	41
<표 10> 상황 2의 응답 결과	42
<표 11> 상황 3의 응답 결과	42
<표 12> 상황 4의 응답 결과	43
<표 13> 상황 5의 응답 결과	44
<표 14> 상황 6의 응답 결과	45
<표 15> 상황 7의 응답 결과	45
<표 16> 상황 8의 응답 결과	46
<표 17> 상황 9의 응답 결과	47
<표 18> 상황 10의 응답 결과	47
<표 19> 감정의 강도 표	65
<표 20> ‘기쁨’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사전적 의미	76
<표 21> ‘기쁘다’의 사용맥락	79
<표 22> ‘즐겁다’의 사용맥락	83
<표 23> ‘행복하다’의 사용맥락	86

<표 24> ‘신나다’의 사용맥락	89
<표 25> ‘흥겹다’의 사용맥락	92
<표 26> ‘기쁨’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변별적 정보	94
<표 27> ‘슬픔’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사전적 의미	96
<표 28> ‘슬프다’의 사용맥락	98
<표 29> ‘서럽다’의 사용맥락	101
<표 30> ‘서글프다’의 사용맥락	106
<표 31> ‘우울하다’의 사용맥락	112
<표 32> ‘슬픔’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변별적 정보	115
<표 33> ‘두려움’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사전적 의미	117
<표 34> ‘무섭다’의 사용맥락	118
<표 35> ‘두렵다’의 사용맥락	121
<표 36> ‘두려움’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변별적 정보	124
<표 37> ‘노여움’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사전적 의미	126
<표 38> ‘화나다’의 사용맥락	128
<표 39> ‘성나다’의 사용맥락	130
<표 40> ‘짜증나다’의 사용맥락	132
<표 41> ‘노여움’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변별적 정보	136

〈그림 목차〉

<그림 1> 감정표현 어휘의 사용맥락 분석 절차	8
<그림 2> 감정 경험의 모형	23
<그림 3> 감정 발생에서의 인지와 감각	24
<그림 4> 감정표현 어휘 검증 틀	25
<그림 5>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구조	57
<그림 6> 대상 중심적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구조	60
<그림 7> 주체 중심적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구조	62



Study of Emotion Vocabular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Yi, Miji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stablish a lexical data of emotion vocabular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erms of meaning and pragmatic use. The study focuses on the vocabularies expressing basic human emotions such as 'joy', 'sadness', 'fear', and 'anger'.

KFL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eachers and students often have difficulties in teaching and learning emotion vocabularies due to the subjectivity and the abstractness of emotional experiences. One of the difficulties they face in the study, and use of those vocabularies, is that they don't have sufficient references which show the appropriate usage of the words and the typical contexts where the words are used. Thus,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meaning and the typical contexts of the emotion vocabularies through the Korean native speakers' corpus analysis.

To this end, the purpose and the need of the study are claimed and the definition of emotion vocabulary is provided in the first chapter. Existing studies regarding emotion vocabulary are also examined in the first chapter.

In the second chapter,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emotions are examined in order to determine the scope of emotion vocabulary in the Korean

language. The list of emotion vocabulary for the meaning and context analysis has also been created by consulting a couple of vocabulary lists for Korean education. Furthermore, in order to ascertain whether KFL learners are able to use appropriate vocabulary according to a situa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Learners were asked to write which emotion vocabularies they thought were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10 given situations and then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answers of Korean native speakers.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ppropriate use of emotion vocabulary between KFL learners and Korean.

The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emotion vocabulary are suggested in the third chapter. The syntactic features of the emotion vocabulary are discussed in terms of double subject construction, subject constraint, and basic sentence structure. The semantic features of the emotion vocabularie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property of semantic connection and degrees of emotions. In addition, the property of non-intentionality, causality and passivity of the emotion vocabularies are also discussed.

In the fourth chapter, meanings and typical contexts of the vocabularies of the four basic emotion types (joy, sadness, fear, and anger) are analyzed through corpus analysis. The contexts where each word is used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ause and the object of the emotional experiences. In addition, the difference of meaning and distinctive contexts of the similar vocabularies within the same emotion vocabulary group is also described.

Lastly, a brief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presented. The meaning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have been outlined in the fifth chapter.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어휘는 외국어 학습의 시작과 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표어 구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휘가 즉각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며 학습자의 숙달도가 높아지는 단계에서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습자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휘의 비중이 커지게 되는데¹⁾ 이와 함께 어휘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 또한 증가하게 된다. 어휘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은 어휘의 양적, 질적 팽창에서 비롯된다.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습자가 익혀야 할 어휘의 절대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학습자가 고려해야 할 어휘의 질적인 측면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하나의 어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에 대한 기본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어휘가 이전에 배웠던 어휘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의미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휘들과 결합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지와 같은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특징을 모두 익혀야 하는데, 중·고급 단계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어휘 학습의 어려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조현용(2000)을 비롯한 한국어 어휘 교육 관련 연구들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실 중 하나는 바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어휘라는 것이다. 또한 중·

1) Hammerly(1982)에 따르면 초급에는 음운론과 통사론의 비중이 큰 반면, 중급 이상이 되면 어휘론, 의미론, 담화론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어휘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된다고 한다.

고급으로 갈수록 어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사실도 언급되어 왔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요구는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²⁾. 특히 최근에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어휘의 구별에 대한 연구가 크게 늘고 있어 한국어 어휘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와 교사가 가장 어려워하고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 바로 어휘의 의미 변별과 적절한 사용이라는 점을 역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본고의 관심도 이러한 한국어 어휘 교육 현장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어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인 화자가 어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³⁾. 이러한 본고의 관심 대상이 되는 어휘는 바로 ‘기쁘다’, ‘슬프다’, ‘무섭다’, ‘화나다’ 등과 같이 감정(感情, emotion)⁴⁾을 표현하는 어휘이다.

감정표현 어휘⁵⁾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감정표현 어휘 교육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있다. 우리의 언어는 사회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전제로 한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어떤 대상에 대해 감정을 느끼게

2) 이준호(2008)에서는 2000년대 들어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음을 지적하면서 2000년대 이전을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방향의 모색기로, 2000년대 이후를 연구 주제의 다양화기로, 2005년 이후를 연구 업적의 확장기로 구분하였다.

3) 어휘 교육 연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어 교사가 활용할 만한 어휘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 역시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다(강현화, 2005 등).

4) 감정(感情, emotion)은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는 ‘정서’라는 용어로 철학 및 의학 분야에서는 ‘감정’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임지룡, 1999). 본고에서 사용되는 ‘감정’이라는 용어는 ‘정서’와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개념이다. ‘감정’과 ‘정서’를 달리 보는 입장에서는 ‘감정’을 ‘정서’와 구분하여 ‘feeli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정’은 신체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느낌을 의미하고, 이것이 강해져 신체적 변화를 수반하게 될 때는 ‘정서’라고 부른다(김응모, 2002: 23).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 변화가 눈에 띄든 띄지 않든 신체적 반응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감정’과 ‘정서’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학자들에 따른 감정 관련 연구의 내용을 소개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5) ‘감정표현 어휘’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은 1.2.절 참조.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야 하는 수많은 상황과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상황에 가장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외국어를 사용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문화와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는 하나, 특정 감정에 대한 경험은 문화권별로 다를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범문화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Mesquita, Frijda, & Scherer, 1997). 결국 한 언어의 감정표현 어휘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감정에 대한 경험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자의 문장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 (1) ㄱ. *나는 한국에서 기쁘게 지내고 있다.
- ㄴ. 친구가 파티에 안 와서 슬펐다.

위와 같은 문장을 쓰게 되는 원인은 학습자들이 하나의 감정 어휘를 학습한 후 더 섬세하고 복잡한 의미를 전달하는 소위 이차 감정 어휘⁶⁾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ㄱ의 경우

6) 본고에서는 감정표현의 ‘기본 어휘’와 ‘이차 어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기본 어휘’는 ‘한국어교육용 기본 어휘’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선정된 어휘를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휘라는 뜻이다. 즉, 본고의 ‘기본 어휘’란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개의 어휘 중 가장 기본적이고 원형적인 의미를 지니는 어휘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차 어휘는 기본 어휘에 의미 근간을 두나 더 세분화되거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휘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슬픔’의 어휘 중 기본 어휘는 ‘슬프다’가 되고 ‘서럽다, 서글프다, 우울하다’ 등의 어휘는 이차 어휘가 된다. 기본 어휘와 이차 어휘 설정에 대한 근거는 2장에서 기술한다.

‘기쁘다’를 학습한 후 ‘즐겁다’, ‘행복하다’와 같이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다른 어휘를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사용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일어난 오류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어에서 ‘기쁘다’의 의미와 ‘즐겁다’, ‘행복하다’ 등의 의미에 대한 구별이 부족하고, ‘기쁘다’는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지내다’와 같이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어휘와 어울려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류다⁷⁾.

(1)ㄴ의 경우에는 비문이 아니나 한국인이란 보다는 구체적인 어휘로 표현했을 만한 세밀한 감정도 ‘슬프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어휘로 표현한 경우이다.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은 그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 한국어에서는 ‘서글프다’, ‘우울하다’, ‘서운하다’ 등과 같은 감정의 경험으로 나타난다. (1)ㄴ에서 ‘친구가 오지 않은 것’이 ‘슬픈’ 일인 것은 맞으나 때에 따라서 이를 ‘서운하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미묘한 어감을 표현할 줄 아는 것도 한국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어휘 능력이다⁸⁾.

위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감정표현 어휘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감정표현 어휘 학습은 기본 어휘에서 더 구체적인 어감을 지니는 이차 어휘로 반드시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슷한 감정이라고

7)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 구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한국어 어휘와 학습자 모국어에 있는 해당 어휘가 의미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데 있다. 영어를 예로 들면, 영어 사전에서 ‘기쁘다’를 찾으면 ‘glad, happy, pleased, delighted’가, 한국어 사전에서 ‘happy’를 찾으면 ‘행복한, 기쁜’이 검색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기쁘다’는 영어의 ‘glad’나 ‘happy’와 의미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영어의 ‘happy’ 역시 한국어 ‘행복하다’에 완전히 대응되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에서 이와 같은 의미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

(1) ㄱ. I am happy to meet you. 당신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ㄴ. She was happy with her performance. 그녀는 자신의 연주가 만족스러웠다.

8) (1)ㄴ의 문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어휘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분이 나쁘다’나 ‘슬프다’ 등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다양한 어휘를 통해 표현이 가능하며, 기본 어휘로는 다 표현해 낼 수 없는 감정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감정표현 어휘를 학습할 때는 해당 어휘의 기본 의미를 익힌 후 어휘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휘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감정표현 어휘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추상적인 것이고 문화권에 따라 감정 경험의 표현 양상이 다를 수 있는 문화 특정한 것이다. 따라서 감정표현 어휘 교육에서는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해당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맥락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를 제대로 부려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한국인이 해당 감정을 경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한국인처럼 감정을 느끼지는 못해도 한국인처럼 감정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감정표현 어휘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간의 기본 감정을 이루는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을 중심으로 각 감정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어휘의 의미와 사용맥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때 어휘 의미에 대한 논의는 기본 어휘와 이차 어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각 감정 유형에서 가장 원형적인 의미를 지니는 어휘를 기본 어휘로 설정하고 동일한 감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어휘를 이차 어휘로 설정하여, 기본 어휘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차적 어휘의 의미가 세분화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어휘가 사용되는 상황을 조사하여 각 감정표현 어휘의 전형적인 사용맥락을 밝힐 것이다⁹⁾.

9) 본고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중·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 어휘군 내에서 유사한 어휘들의 미묘한 의미 차이와 사용맥락 상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휘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전제되는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표현 어휘는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므로 몇몇 기본 어휘 외에는 어휘의 의미를 전달할 때 다른 어휘를 사용한 언어적 설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4장에서 제시되는 의미와 사용맥락 분석은 이미 감정표현 어휘 중 기본 어휘를 숙지하고 있고 상당수의 이차 어휘를 학습했다고 여

본고의 작업은 실제 한국인 화자의 말뭉치¹⁰⁾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한국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표현 어휘를 사용하는지를 분석 하여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어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즉, 한국인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 경험과 어휘 사용에 대한 직관을 객관적 인 데이터로 가시화하여 어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고의 가장 큰 목적이다.

1.2. 연구 대상과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한국어 어휘 중 감정을 묘사하는 ‘기쁘다’, ‘슬프다’, ‘무섭다’, ‘화나다’ 등의 감정표현 어휘이다. ‘감정표현 어휘’라는 말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감정형용사, 감정동사, 심리형용사, 심리동사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¹¹⁾. 그러나 이들 용어와는 지칭하는 어휘의 범 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선 심리동사와 심리형용사의 개념에는 인간의 인지적 행위나 과정을 반영하는 ‘알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짐작하다’와 같은 인지 동사와 ‘덥다, 따갑다, 가렵다, 아프다, 저리다’와 같은 감각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다. 인

겨지는 중·고급 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0) 말뭉치(corpus)란 언어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재료로서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을 총체적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집합을 뜻한다.

11) 감정형용사와 감정동사, 심리형용사와 심리동사의 기본적인 차이는 형용사만을 가리키느냐 형용사와 동사를 모두 가리키느냐에 있다. 감정형용사와 심리형용사는 각각 형용사만을 가리키고 감정동사와 심리동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심리형용사, 심리동사는 감정 외에도 인지와 감각을 나타내는 어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감정형용사, 감정동사와 구분된다. 즉, 감정형용사와 감정동사는 심리형용사, 심리동사의 하위부류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학자에 따라 각 용어가 지칭하는 어휘의 범위가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감정형용사와 감정동사에 대해서는 김은영(2004), 심리동사의 개념은 김홍수(1989), 심리형용사의 개념은 유현경(199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지와 감각의 영역은 감정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극을 인식하고 해석하는데 관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 자체가 감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리동사나 심리형용사의 범위는 본고의 대상이 되는 어휘보다 넓은 개념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감정표현 어휘라는 말은 감정형용사와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형용사라는 용어는 감정을 묘사하는 말로 흔히 사용되는 ‘화나다’, ‘짜증나다’, ‘신나다’와 같은 일부 동사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감정동사는 ‘화(가) 나다’, ‘짜증(이) 나다’, ‘신(이) 나다’와 같이 동사구로 이루어진 복합 표현의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감정표현 어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감정형용사와 일부 감정동사, 감정동사구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즉, 본고의 연구 대상은 ‘기쁘다’, ‘슬프다’, ‘무섭다’와 같은 감정형용사와 ‘화나다’, ‘신나다’, ‘짜증나다’ 등의 감정동사, 그리고 ‘화(가) 나다’, ‘신(이) 나다’, ‘짜증(이) 나다’와 같이 복합형식으로 이루어진 동사구가 된다¹²⁾.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와 사용맥락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한국어 화자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어휘 검색의 대상이 된 말뭉치는 2010년에 배포된 21세기 세종계획¹³⁾ 말뭉치로서 구어 805,606어절과 문어 15,086,017어절로 구성되어 있다¹⁴⁾. 감정표현 어휘의 사용맥락 분석은 말뭉치 검색 시스템¹⁵⁾에서 어휘의 용례를 검색한 후, 용례에 나타난 상황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2) 본고의 감정표현 어휘가 포함하는 동사는 주로 ‘명사+나다’ 구성의 동사를 의미한다.

13) 21세기 세종계획이란 문화관광부가 국립국어원 및 관련 학계와 더불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해 온 국어정보화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말뭉치 등의 국어 기초자료 구축, 전자사전 개발, 한민족 언어 정보화, 전문 용어 정비 등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http://www.sejong.or.kr>).

14) 이 말뭉치는 신문, 잡지, 책 등의 문어 파일 447개와 일상 대화, 독백, 토론, 발표, 강의, 설교 등으로 이루어진 구어 파일 400개를 포함하고 있다.

15) 말뭉치 검색은 꼬꼬마 세종 말뭉치 활용시스템(<http://124.137.201.234:8080>)을 이용하였다.

감정표현 어휘가 나타난 상황은 어휘가 표현하는 감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감정을 느끼는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되었다¹⁶⁾. 예를 들어, 말뭉치에서 ‘기쁘다’를 검색하여 ‘우리 팀이 이겨서 기쁘다’라는 용례가 나타나면, ‘기쁘다’라는 감정이 발생하게 된 상황은 ‘우리 팀이 이긴 상황’이 된다. ‘팀이 이긴 것’은 기쁜 감정을 느낀 원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기쁘다’의 맥락은 ‘승리’로 유형화된다. 감정표현 어휘의 사용맥락은 주로 감정을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감정의 대상이 그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변화가 두렵다’와 같은 ‘두렵다’의 용례에서는 ‘변화’가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나타난다. 이런 경우, ‘두렵다’의 사용맥락은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변화’로 분류된다.

<그림 1>은 감정표현 어휘의 사용맥락 분석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감정표현 어휘의 사용맥락 분석 절차

1. 말뭉치 검색 시스템에서 감정표현 어휘 검색

- 문어, 구어 용례 선택
- 형태소 검색창에 감정표현 어휘를 입력 (예: ‘기쁘-’)

소개
말뭉치 통계
말뭉치 검색
한국어 쓰기 학습
연어 시각화

(검색된 형태소 수: 301,432 개)
페이지당 목록수 20
형태소
완전일치
품사 전체
검색

형태소	품사	횟수	비율
.	SF	1,216,424	3.85%
의	JKG	778,268	2.46%
을	JKO	769,096	2.43%
ㄴ	ETM	760,886	2.41%
다	EF	729,250	2.31%
하	XSV	670,412	2.12%
이	VCP	655,156	2.07%
예	JKB	613,672	1.94%

문어 용례
구어 용례
구문 분석
연어 시각화
규절형
연어 검색

(검색 결과: 0 개)
20
적용

16) 감정표현 어휘의 사용맥락을 유형화하는 기준이 ‘원인’ 또는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감정에는 감정 발생의 원인이 존재하고,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감정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감정표현 어휘 역시 감정의 원인이 중심이 되느냐 대상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주체 중심적 감정표현 어휘와 대상 중심적 감정표현 어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1.3.항을 참조.



2. 검색된 용례에서 감정의 원인 또는 대상 파악

- 용례: 우승을 하자 기쁜 나머지 링에 뛰어올라가는 바람에 여성임이 노출된 것이다.
- 원인: 우승

소개 | 말뭉치 통계 | **말뭉치 검색** | 한국어 쓰기 학습 | 연어 시각화

(검색된 형태소 수: 1 개) 페이지당 목록수 20 형태소 기쁜 완전일치 품사 전체 검색

형태소	품사	횟수	비율
기쁜	VA	1,086	0.00%

문어 용례 | 구어 용례 | 구문 분석 | 연어 시각화 | 글꼴형 | 연어 검색

(검색 결과: 1,029 개) 형태소 기쁜 품사 VA 20 적용

우승을 하자 **기쁜 나머지** 링에 뛰어올라가는 바람에 여성임이 노출된 것이다. <출처: CD-ROM으로 보는 이규태 코너(스포츠/각종 경기),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주변 문장 보기]

뜻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참 **기쁩니다**. <출처: 홍은생각 1999년 1월호> [주변 문장 보기]

아주 건강하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저는 **기뻐서** 밤이 10이상을 선물했습니다. <출처: 홍은생각 1999년 7월호> [주변 문장 보기]



3. 용례에서 조사된 원인 또는 대상에 따라 맥락을 유형화

- 원인: 우승, 합격, 꿈을 이룸 ⇨ ‘성취’의 맥락으로 분류
- 원인: 만남, 가족이 돌아옴 ⇨ ‘만남’의 맥락으로 분류

‘성취’의 맥락: 우승, 입학이 허가됨, 꿈이 실현됨

우승을 하자 **기쁜 나머지** 링에 뛰어올라가는 바람에 여성임이 노출된 것이다. <출처: CD-ROM으로 보는 이규태 코너(스포츠/각종 경기),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주변 문장 보기]

입학이 허가되던 날은 솔직히 말해 아나운서가 되던 날만큼이나 **기뻐**다. <출처: 9시 뉴스를 기다리며> [주변 문장 보기]

무대에 올라서서 노래를 부르면 많은 관중들이 환호하는 장면만을 상상하던 영애는 단장이 오늘부터 무대에 서라고 했을 때, 이제야 제 꿈이 실현되는 줄 알고 뿔 댈 듯이 **기뻐**다. <출처: 어들의 자식들(2/3)> [주변 문장 보기]

‘만남’의 맥락: 팬들과의 만남, 남편이 돌아옴

‘세기의 오페라 커튼’로 통하는 알라나와 게오르규는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팬들과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2002년 기사: 문화> [주변 문장 보기]

그의 아내는 시집오자마자 남편을 서울로 보냈던 터라 당장 남편이 돌아온 것이 무척이나 **기뻐**다. <출처: 나, 고은,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주변 문장 보기]



4. 어휘의 사용맥락을 빈도순으로 정리

- 말뭉치 용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용맥락을 순서대로 정리
- 원인, 대상,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등의 정보 제시

<‘기쁘다’의 사용맥락>

원인·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성취	32% (108/337)	꿈 소망 성공 합격 결실 마침내 우승 승리	- 대학 합격 - 취직 함 - 소원이 이루어짐 - 시험에 통과함 - 직장에서의 승진 -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됨 - (운동선수) 소속 팀의 승리 -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이김 - 가족이 돌아옴
만남	13% (45/337)	만남 찾아옴 맞이함	-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만남 - 명절에 손자손녀가 집에 옴 - 좋은 인연을 만남 - 유명인이 팬들과 만남
⋮	⋮	⋮	⋮

1.3. 선행 연구

본고의 논의의 기초가 되는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한국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감정표현 어휘에 대한 연구들이고 둘째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전자의 연구들은 다시 감정표현 어휘 자체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다른 동사나 형용사들을 다루는 맥락 속에서 감정표현 어휘를 부분적으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형용사 유의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감정표현 어휘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한국어학 분야에서 감정표현 어휘 전반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로는 김홍수(1989), 김선희(1990), 임은하(1998), 김응모(2002), 김은영(2004) 등을 들 수 있다.

김홍수(1989)는 심리동사 전반에 걸친 연구로서, 심리동사의 유형과 구문의 특징에 대해 논하였다. 이때 김홍수(1989)는 ‘내적 경험’이라고 하는 의미 논리를 상정하여 심리동사 구문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심리동사의 통사, 의미, 화용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선희(1990)는 감정동사 중 ‘고맙다’, ‘노엽다’, ‘부끄럽다’, ‘자랑스럽다’, ‘가엾다’, ‘부럽다’를 대상으로 이들의 통사적 특징을 자극의 유무, 정태성과 동태성, 경험주의 의지 통제 범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어휘를 통해 감정동사의 고유 속성에 내재된 심리 현상인 자기동일성, 우월감, 열등감, 만족감, 부족감, 당위성, 생리적 변화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임은하(1998)는 감정동사의 특성에 대한 것이었다. 임은하(1998)는 감정동사의 범위를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로 규정하고 감정형용사에서 파생된 감정동사와 ‘명사+하다’와 ‘-어하다’ 형식의 감정동사를 폭넓게 다루었다. 또한, 감정동사의 특징으로서 외현성, 소극적 통

제 가능성, 상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응모(2002)는 낱말발 이론을 이용한 것으로서, 정서자동사를 심성 형성, 감정 상태, 감각 자극, 자기 평가, 타인에 대한 정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심성 형성에 따른 정서에서는 성격 자동사의 분절을 제시하였고, 감정 상태로는 안정, 만족, 흥분, 초조, 탄식을, 감각 자극에 따른 정서로는 즐거움, 불쾌, 슬픔, 괴로움, 놀람, 두려움, 분노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기 평가 정서로는 부끄러움, 반성을, 타인에 대한 정서로는 사랑, 정감, 정성, 감화, 감동, 호감의 분절구조를 제시하였다. 김응모(2002)에서는 방대한 양의 정서자동사의 내용을 다루었으나 논의의 대상이 된 상당수의 어휘가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저빈도 어휘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김은영(2004)은 한국어 감정동사 전반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온 감정동사라는 용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은영(2004)에서는 감정동사란 감정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심리동사나 다른 감정동사 연구에서 포함되었던 감각이나 인지 어휘는 제외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감정동사의 보편적인 통사 특징에 대해 논하고 감정의 유형을 ‘동정, 수치심,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좋아함, 바람’의 영역으로 나누어 의미 영역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서 소개한 연구는 감정동사, 또는 심리동사의 통사적 특징이나 의미적 특징에 대한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의 환유와 은유적 양상에 대해 다른 연구들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임지룡(2006)을 들 수 있다. 임지룡(2006)은 ‘화, 두려움, 미움, 사랑, 슬픔, 기쁨, 부끄러움, 긴장’의 주요 감정을 대상으로 이들이 한국어에서 어떻게 개념화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감정이 발생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과 일상의 구체적 체험을 살펴보고 감정표현이 언어적으로는 어떻게 생리적 환유와 은유로

서 나타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김향숙(2003) 역시 임지룡(2006)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한국어의 감정표현 관용어 사례를 조사하여 언어적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김향숙(2003)은 감정을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감정에 해당하는 관용어를 개념 은유, 의미 속성, 신체어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앞선 연구들이 감정표현 어휘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었다면 형용사나 자동사 전반에 관한 연구에서 감정표현 어휘가 부분적으로 논의된 연구도 많았다. 예를 들어, 남지순(1993), 유현경(1998), 한송화(2002) 등의 연구가 그러하다. 이들 연구는 모두 감정표현 어휘의 통사적 특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남지순(1993)에서는 심리형용사의 틀을 ‘ N_0 N_1 -에 Adj = N_1 N_0 -로 Adj’와 ‘(QuP) $_0$ N_1 -에 Adj = N_1 (QuP) $_0$ -로 Adj’로 제시하면서, 심리형용사는 보문(QuP) 논항에 의해 유발되어 인물명사 논항 N_1 에 의해 경험되는 심리적 상태를 표상한다고 하였다¹⁷⁾.

유현경(1998)은 국어 형용사의 통사, 의미적 특징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형용사의 형식적인 유형을 분류하였다. 유현경(1998)은 형용사를 크게 주관형용사와 객관형용사로 나누었는데, 심리형용사는 감각형용사, 판단형용사와 함께 주관형용사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심리형용사를 다시 대상 심리형용사와 원인 심리형용사로 나누어 그 구문의 기본 격틀을 각각 ‘NP₁-가 NP₂-가 Adj’와 ‘NP₁-가 (NP₂-가) Adj’로 제시하였다¹⁸⁾.

17) 남지순(1993)에서는 심리형용사의 각 격틀을 충족하는 예문으로서 다음을 제시하였는데, N은 명사, Adj는 형용사, QuP는 보문절을 의미한다.

- (1) N_0 N_1 -에 Adj 민우의 그런 점이 인아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 (2) $=N_1$ N_0 -로 Adj = 인아는 민우의 그런 점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다.
- (3) (QuP) $_0$ N_1 -에 Adj 민우가 그런 점을 지닌 것이 인아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 (4) $=N_1$ (QuP) $_0$ -로 Adj = 인아는 민우가 그런 점을 지닌 것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다.

18) 유현경(1998)은 심리형용사가 대상에 대한 경험주의 판단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대상 심리형용사로, 원인에 의해 유발된 경험주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는 경우에는 원인 심리

한송화(2002)에서는 자동사를 중심으로 문장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심리자동사를 원인 심리자동사, 대상 심리자동사, 판단 심리자동사, 감각 심리자동사, 지각 심리 자동사로 나누어 이중 원인 심리자동사와 대상 심리자동사의 하위 부류에 감정형용사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살펴볼 선행 연구는 감정표현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어 형용사 유의어 연구들로서 김종택(1971), 박영희(1984), 김성화(2004) 등을 들 수 있다.

김종택(1971)은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유의어 6쌍의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이 중 ‘기쁘다-즐겁다’, ‘가없다-불쌍하다’, ‘섭섭하다-서운하다’ 같은 감정표현 유의어 쌍이 포함되어 있다. 박영희(1984)는 내포의 차이, 위상적 차이, 보편성과 특수성, 사용 범위의 제한성, 동일물을 보는 관점 차이, 의미의 상승, 하강, 행위에 대한 주체, 객체적 표현, 감정의 내향성과 외향성, 적극성과 소극성, 주관성과 객관성, 내포 범위의 광범위성 등 11가지 의미 평정 기준을 바탕으로 감정어 유의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유의어는 ‘두렵다-무섭다-겁나다’, ‘정가시다-귀찮다’, ‘갑갑하다-답답하다’, ‘감사하다-고맙다’ 등이었다.

김성화(2004)에서는 한국어 형용사 유의어 8쌍의 의미를 비교하였는데, 이 중에는 ‘기쁘다-즐겁다’, ‘두렵다-무섭다’, ‘불쌍하다-가없다’, ‘서운하다-

형용사로 구분하였다. 대상 심리형용사와 원인 심리형용사의 격틀은 공통적으로 감정 경험주로서의 NP₁을 취하는데, 대상 심리형용사 구문에서 NP₂는 감정의 대상이 되고 원인 심리형용사 구문에서 NP₂는 감정발생의 원인이 된다. 대상 심리형용사는 반드시 감정의 대상을 필요로 하므로 문장에서 NP₂가 필수적이지만 감정의 원인은 생략이 가능하므로 원인 심리형용사 구문에서 NP₂는 수의적인 성분이 되어 괄호 안에 표시된다. 대상 심리형용사 구문과 원인 심리형용사 구문에서 NP₂의 생략 가능 여부는 다음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ㄱ. 나는 소년과 헤어지기가 싫었다. (대상 심리형용사)
 나. *나는 ϕ 싫었다.
- (2) ㄱ. 나는 그가 한국을 떠난다는 사실이 섭섭하였다. (원인 심리형용사)
 나. 나는 ϕ 섭섭하였다.

접접하다'가 포함되어 있다. 김성화(2004)는 유의어는 서로 공유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 아니라 공통되는 상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느껴진다는 관점으로 유의어의 의미를 검토하였는데, 유의어가 쓰일 수 있는 문장과 쓰이지 못하는 문장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의미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로는 강현화(2005), 이지혜(2006), 김정현(2007), 이지영(2009), 서희정(2010)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강현화(2005)에서는 '기쁨'과 '슬픔'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선정한 뒤 이들 어휘의 통합적 관계에 대한 정보, 문형 구조와 활용형 제약에 관한 정보를 활용한 유의어 변별 기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감정형용사의 유의어 변별 교수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격자틀(grid)을 이용하여 어휘의 통합 정보를 보이는 방법과 감정의 정도, 시간 차이를 보이는 교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지혜(2006)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한국어 심리형용사 유의군의 연어 정보를 '체언+용언' 구성과 '용언의 관형형+체언' 구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런 연어 정보를 기준으로 29개 유의군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어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 사전의 기술 방식을 비판하고 사전 편찬과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김정현(2007)에서는 심리형용사를 '기쁨', '슬픔', '좋음', '싫음', '불안함', '부끄러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한 유의어군을 추출한 후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의어군을 교육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지영(2009)은 한국어 학습 사전과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감정표현 어휘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 감정표현 어휘를 감정형용사, 감정동사, 감정명사, 감정부사로 이루어진 1유형, 감정명사+감정형용사, 감정명사+형용

사/동사로 이루어진 2유형, 신체어+형용사/동사, 신체어+색채어+형용사/동사 형식의 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한국어 감정표현 교육 내용과 방법 구성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서희정(2010)은 감정형용사 중 ‘아쉽다’에 주목하여 ‘아쉽다’의 유의어인 ‘안타깝다’, ‘아깝다’, ‘서운하다’, ‘쉽쉽하다’의 사용 상황, 소재, 동사, 명사, 부사 등과의 통합관계를 제시하였다. 서희정(2010)은 한국인 화자의 말뭉치를 분석하였고 실제로 어휘가 사용되는 상황과 통사적 환경에 대한 정보 등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의 전반적인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과 감정표현 유의어 변별에 대한 연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어휘 교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감정표현 어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들은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구조와 서법, 의미 제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유의어에 대한 연구들 역시 유사한 감정표현 어휘 간의 차이를 변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어휘의 통사적 결합 관계나 성분 분석을 통해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를 분석하고 변별하고자 한 것이 많았다. 이런 연구들은 어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어휘의 외적인 특징에 대한 기술로서, 어휘의 의미 그 자체에 접근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감정표현 어휘를 효과적으로 교수하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휘의 외적인 결합 양상에 앞서 한국인의 감정 경험의 내용과 언어적 직관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적인 맥락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감정표현 어휘의 말뭉치 분석을 통해 어휘의 의미와 용법, 사용맥락 등의 정보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대상을 파악하여 어휘가 표현하

고 있는 감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휘가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맥락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의 2장에서는 감정표현 어휘의 범위를 규정하고 감정 유형별로 어휘를 분류하여, 의미와 사용맥락 분석을 위한 기초 어휘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감정표현 어휘의 개념적 기반이 되는 감정의 개념과 특징, 유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이 상황에 적절한 감정표현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황별 어휘 사용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어휘 사용 양상과 비교할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의 일반적인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다루려고 한다. 감정표현 어휘의 통사적 특징으로는 주어 설정의 문제와 인칭 제약,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기본 구조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의미적인 특징으로는 의미의 연결성과 정도성, 인과성과 피동성, 소극적 통제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작성한 감정 유형별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와 어휘가 쓰이는 상황에 대해 논할 것이다. 4장의 주요한 목적은 한국인 화자의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표현 어휘가 드러내는 감정 경험과 어휘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특히 동일한 감정 어휘군 내에서 어휘들 간의 공통적인 의미와 세분화되는 의미를 비교하고, 어휘의 전형적인 사용맥락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기술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Ⅱ. 감정표현 어휘의 범위와 분류

본 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감정표현 어휘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들 어휘를 감정의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휘들의 사용맥락 분석과 의미 구별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감정표현 어휘가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기쁘다’라는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해해야 하고, ‘슬프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본 장의 논의는 인간의 감정이 무엇이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감정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1. 감정표현 어휘의 범위

2.1.1. 감정의 개념

감정은 오랫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심 대상이었다. 철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언어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애써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하나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

감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그 실체를 몇 가지 어휘를 사용한 언어적 틀로 규정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¹⁹⁾. 우리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말로써 기술하기는 힘든 것이다. 그러나 감정을 정의내리기 어렵다고 하여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축적되어 온 연구들의 내용을 토대로 감정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해 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감정에 대한 수많은 정의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감정의 정의

학자	감정의 정의
James(1884)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사실을 지각하자마자 곧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이 바로 감정이다.
Izard(1972)	감정은 신경생리학적, 운동-표현적, 현상학적 측면을 가지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Brenner(1975)	꽤나 불쾌 또는 이들 둘 다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그 감각에 수반된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이 감정이다.
Ortony, Clore, and Collins(1998)	감정은 사건(일), 행위자 또는 대상이 관심을 끄는 정도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의 특질은 그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Lazarus(1991)	감정은 주관적 감동, 적응 행동을 위한 중 특유의 생리적 변화, 그리고 수단적인 동시에 표현적인 특성을 갖는 행위 충동이라는 세 개의 주요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동요이다.
Plutchik(1991)	감정은 자극에 대해 추론된 복합적인 반응들의 연

19) LeDoux(1996:23)는 “불행히도 감정(emotion)에 관하여 언급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감정을 정의하라고 요구할 때까지 누구나 감정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경험하지만 이를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쇄로서 인지적 평가, 주관적 변화, 자율체계 및 신경세포의 각성, 행동 충동성 그리고 복합적인 연쇄를 유발시킨 자극에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행동을 포함한다.
--	---

<표 1>에서 제시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감정에 대한 많은 공통점을 포괄하고 있다²⁰⁾. 감정은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어난다는 점과 감정 발생은 우리 몸의 생리학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 그리고 감정의 발생과 해석에 있어서 감각과 인지적인 요소가 개입된다는 점 등이 위의 정의로부터 추론 가능하다.

감정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감정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기 위해 감정에 대한 짧은 정의를 내리는 대신 <표 2>와 같이 감정의 특징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감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항목화하여 보여주므로 감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표 2> 감정의 특징

학자	감정의 특징
Rohracher(1976)	① 감정은 정신적인 상태이다. ② 감정은 의식적인 의도의 가담 작용 없이 나타난다. 이것은 의식적 의도 없이, 원하지 않는데도 나타난다. 따라서 감정은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20) Kleinginna and Kleinginna(1981)는 감정에 대한 92개의 정의를 취합하여 정의들 간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정한 생각과 논지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이들은 92개의 정의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 ① 감정은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신경, 호르몬계의 개입을 받아 전개된다.
- ② 감정은 각성이나 쾌, 불쾌의 느낌과 같은 정의적 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
- ③ 감정은 정서와 관련된 지각, 평정, 분류와 같은 인지과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
- ④ 감정은 자극적인 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생리적 조절을 가동시킬 수 있다.
- 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정은 목표 지향적이고 적응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③ 감정은 외적 혹은 내적 사상에 대한 정신적 반응이다. 이 정신적 반응의 원인은 대개 의식적이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기뻐하며, 왜 슬퍼하는지, 왜 노여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④ 대개의 감정은 유쾌하거나 불쾌하게 체험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감정도 있는데, 후회나 연민의 감정이 불쾌하거나 유쾌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명훈, 정영윤(1991)	① 감정은 주관적이고 전체적이다. 개인에 따라 반응양태가 다르며 신체와 정신 양면에 걸친 전체적 반응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② 습관적 행동 이외의 모든 지각에 감정이 따른다. 감정은 보통 생활환경에서의 습관적 행동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 상태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는 것이 감정인 것이다. 예컨대, 욕구 불만, 갈등 사태 등 새로운 자극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③ 감정은 자극이 오면 비교적 빨리 최강도에 달하고 곧 서서히 하강하는데 최강도의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④ 감정은 차츰 약해감에 따라 반대의 감정으로 옮겨간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한동안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 즉 희비가 교차하게 된다.
James and Michelle(2005)	① 감정은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추론된다. ② 통상적으로 감정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③ 감정은 인지, 느낌, 행동 경향성을 포함하지만 이중 하나 또는 두 성분을 포함하는 감정도 일어날 수 있다. ④ 감정은 상황에 대한 실제적 혹은 잠재적 반응을 포함하는데 많은 상황에서 인간이 적응적으로 기능하도록 해준다.

위에서 제시된 감정의 정의와 특징을 바탕으로 감정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은 내면적인 것이다. 감정은 인간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정신적인 상태이다.

둘째,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다. 감정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생리적 반응과 행동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감정 자체는 그것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감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추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셋째, 감정은 비의도적인 것이다. 감정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감정 주체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넷째, 감정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대부분의 감정은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다²¹⁾. 따라서 감정은 반드시 그 원인이 되는 자극이 존재하며 그 자극에 대한 해석에 따라 감정의 특징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감정의 특징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들 어휘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에도 그대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²²⁾. 다음 항에서는 감정과 관련된 감각과 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표현 어휘의 범위를 규정할 것이다.

2.1.2. 감정표현 어휘의 범위

본고의 ‘감정표현 어휘’는 ‘기쁘다’, ‘슬프다’와 같은 감정형용사와 ‘화나

21) 대부분의 경우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는 감정의 발생에 원인이 없는, 더 정확히 말하면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4장에서 다룰 ‘우울하다’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22)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은 감정표현 어휘의 인칭 제약과 관계가 있으며, 감정의 비의도적인 특징은 감정표현 어휘와 결합할 수 있는 서법에 영향을 준다. 또한 모든 감정은 어떠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은 감정표현 어휘가 가지는 인과성과 피동성이라는 의미적 특징으로 전이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다’, ‘신나다’와 같은 감정동사, 그리고 ‘화(가) 나다’, ‘신(이) 나다’와 같은 복합표현을 가리키는 말로서 정의했었다.

‘감정표현 어휘’가 묘사하는 대상은 감정이다. 그런데 감정은 감각, 인지²³⁾의 영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감정표현 어휘를 생각할 때 이들과 관련된 어휘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감정표현 어휘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경험의 맥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감각과 인지의 의미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감정 경험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²⁴⁾. 즉,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이 있고 그 자극으로 인해 감정이 발생한다. 이때 우리 몸에는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2> 감정 경험의 모형



23) 감각은 눈, 코, 귀, 혀, 피부 등 신체를 통해 전해지는 자극을 의미하는 것으로 ‘갈증’이나 ‘통증’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인지는 어떤 대상을 알고 기억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의식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김선희, 1990).

24) 감정 경험이 ‘자극 → 감정 → 신체적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감정의 ‘상식적인 견해’ 또는 ‘민간모형’으로 알려져 있다(Radden 1998: 273). 감정의 ‘민간모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리학, 신경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전문가 모형’이 있는데, ‘전문가 모형’의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 모형의 내용은 임지룡(2006:12-14)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문가 모형	감정발생 순서
James-Lange의 생리학적 이론	자극 → 생리적 반응 → 감정
Cannon-Bard의 신경학적 이론	자극 → 감정/생리적 반응
Schachter-Singer의 주크박스 이론	자극 → 생리적 각성 → 인지적 해석 → 감정
Lazarus의 인지 이론	자극 → 인지적 해석 → 감정

예를 들어, 음악을 듣고 신나서 춤을 쳤다면, 음악을 듣는 것이 자극이 되고 신나는 느낌이 감정, 춤을 춘 것이 신체적 반응 또는 행동이 된다.

이러한 감정의 경험에는 감각과 인지가 개입되는데, 자극 대상이나 사건이 경험주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은 인지의 영역이고, 감정 경험에서 산출되는 신체적 변화는 주로 감각적인 영역이 된다. 또한 감각은 감정으로 인해 수반된 생리적 반응뿐만 아니라 감정의 원인 자극이 되기도 한다²⁵⁾. 다음의 <그림 3>을 살펴보면 감정의 발생에 인지와 감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 감정 발생에서의 인지와 감각



위의 도식에서 감정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극 사건은 ‘뱀에게 물린 것’이다. 이 경우, 감정 경험주가 뱀에게 물린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25) 그러나 감정이 발생할 때 항상 인지와 감각, 행동이 함께 산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중 하나나 두 성분만을 포함하는 감정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덥고 불편할 때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지만 왜 분노가 생겨나는지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있으며, 슬픔의 경우에는 행동경향성이 결여되어 있다(James and Michelle, 2005; 민경환 외 역, 2007: 5).

가지는지를 해석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때 자극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인지적 요소로서 감정 경험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또한 뱀에게 물린 자극 사건은 통증을 유발하는데 통증은 감각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감정 경험주가 느낀 공포는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를 유발시킨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체온이 떨어지며, 몸이 떨리기도 하고 극심한 공포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이러한 감정 경험의 과정을 어휘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자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인지의 영역은 ‘알다’, ‘판단하다’ 등의 어휘로, 통증을 느끼는 감각의 영역은 ‘아프다’로, 공포라는 감정 자체는 ‘무섭다’나 ‘두렵다’로, 신체적 변화로서 나타나는 감각 또는 행위의 영역은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춡다’, ‘떨다’, ‘울다’로 표현될 수 있다.

본고의 ‘감정표현 어휘’의 범위는 바로 ‘무섭다’, ‘두렵다’와 같은 감정 영역의 어휘이다. 위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감정 발생에는 인지와 감각이 개입되므로 관점에 따라 인지나 감각 어휘들이 감정 어휘에 포함되거나 같은 군의 어휘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감정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인지 어휘와 감각 어휘, 그리고 ‘웃다’, ‘울다’ 등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 등은 모두 감정표현 어휘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한국어의 어휘 중 감정표현 어휘를 변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감정표현 어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애매한 어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틀은 감정표현 어휘를 판단하는 의미적 기준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4> 감정표현 어휘 검증 틀

나도 모르게 ~한 마음이 {생기다, 들다} 마음{이, 에} ~(으)ㄴ 상태

<그림 4>의 검증 틀은 김은영(2004)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많은 연구들에서 감정표현 어휘의 변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²⁶⁾.

감정의 발생은 비의도적인 것이므로 감정표현 어휘는 ‘나도 모르게’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감정은 내면적인 상태를 의미하므로 ‘마음이’, 또는 ‘마음에’ 라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검증 틀의 기본 요지이다.

- (2) ㄱ. 비가 오자 {나도 모르게} 우울했다.
- ㄴ. 그 사람을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
- ㄷ. ?나는 내 처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생각했다.
- ㄹ.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알았다.

위와 같은 예문에서 (2)ㄱ과 (2)ㄴ은 ‘나도 모르게’의 의미를 포함하여 해석해도 의미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생각하다’, ‘알다’와 같은 어휘는 ‘나도 모르게’가 삽입되면 의미가 어색해진다. ‘생각하다’와 ‘알다’는 인간의 감정이 아닌 인지적 작용을 나타내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의 (3)ㄱ과 (3)ㄴ에서 ‘안타깝다’와 ‘기쁘다’는 인간의 내면,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마음이’, ‘마음에’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으나 (3)ㄷ과 (3)ㄹ의 ‘가렵다’, ‘소름 끼치다’와 같이 감각을 나타내는 어휘는 문장의 의미에 ‘마음’ 영역을 설정할 수 없다.

- (3) ㄱ.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을 보니 {마음에} 안타까웠다.
- ㄴ. 합격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기뻐다.
- ㄷ. *모기 물린 데가 {마음에} 가려웠다.
- ㄹ. *그 사람과 만날 생각만 해도 {마음에} 소름이 끼쳤다.

26) 김기홍(1982)에서는 ‘나의 감정은 ~상태다’와 ‘나는 ~느낀다’라는 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림 4>와 같은 틀은 특히 인지와 감각에 대한 어휘를 변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 틀이 한국어에서 감정표현 어휘에 해당하는 모든 어휘를 변별해 줄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감정표현 어휘의 판정에 앞서 어떤 것이 감정이고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 있고,²⁷⁾ 개인에 따라 검증 틀을 적용한 문장의 비문 여부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따라서 이와 같은 검증 틀은 감정표현 어휘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2. 감정표현 어휘의 분류

2.2.1. 기본 감정과 이차적 감정²⁹⁾

인간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은 실제로는 몇 가지 기본 감정(basic emotions)에 근거하고 있으며

27)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사랑'이 감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학계에 이견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느끼며 감정에 대해 열거하라고 하는 경우 보편적으로 나오는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다(Fehr and Russell, 1984). 그러나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감정의 영역에 사랑을 포함시키지 않는데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태도, 즉, 사람, 대상에 대한 신념, 감정 및 행동의 조합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ubin, 1970).

28) 김은영(2004)에서는 해당 틀 검증을 만족시키는 감정표현 어휘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는 '코웃음을 치다'나 '포기하다'와 같이 감정표현 어휘로 보기에 어려운 어휘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어휘를 김은영(2004)의 검증 틀에 넣어보면 다음과 같이 상당히 어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감정표현 어휘로 분류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코웃음을 치다'와 '포기하다'는 굳이 이런 틀로 검증하지 않더라도 감정표현 어휘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 나는 (나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다. / *나는 (마음에) 코웃음을 쳤다.

- 나는 (나도 모르게) 포기했다. / *나는 (마음에) 포기했다.

나머지 감정은 기본 감정과 같은 차원에서 그 강도가 달라진 것이거나 다른 감정과 혼합된 이차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Jorgensen, 1928; Kemper, 1987; Plutchik, 2003). 기본 감정은 일차적 감정이라고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서로 구분된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원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James and Michelle, 2005; 민경환 외 역, 2007: 38). 그렇다면 인간의 기본 감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본 감정에 대해서는 동양과 서양, 학자마다 그 분류에 차이가 있다. 우선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중심으로 기본 감정을 분류하여 4개에서 7개 정도의 기본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서양에서는 진화론, 신경, 정신분석, 자율신경계, 얼굴분석, 경험, 발달적 측면에서 기본 감정 분류를 시도해왔는데, 아래의 <표 3>에 동양과 서양의 기본 감정 유형이 정리되어 있다³⁰⁾.

<표 3> 기본 감정의 분류

문화권	논자, 출처	기본 감정									
		기쁨	즐거움	슬픔	두려움	놀라움	노여움	사랑	미움	욕망	기타
동양	中庸	喜	樂	哀			怒				
	孔子	喜		哀	懼		怒	愛	惡	慾	
	老子	喜		悲	憂		怒	好	憎	慾	
	荀子	喜	樂	哀			怒	好	惡		
서양	Plutchik(1980)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	수용	혐오		예기
	Epstein(1984)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	사랑			
	Izard(1972)		즐거움 흥미	슬픔	두려움 수치	놀라움	노여움		혐오 경멸		죄책감
	Tomkins(1962)		즐거움 흥미	고통	두려움 수치	놀라움	노여움		혐오 경멸		
	Arieti(1970)	만족			두려움 긴장		분노			식욕	
	Fromme and O'Brien(1982)	기쁨 의기양양 만족		비탄 체념	두려움	충격	노여움				
	Ekman(1973)	행복		슬픔	두려움	놀라움	노여움		혐오		
	Fehr and Russell(1984)	행복		슬픔	두려움		노여움	사랑			
	Trevarthen(1984)	행복		슬픔	두려움		노여움				

30) 동양의 기본 감정 분류는 김은영(2004)의 내용을 참고하였고, 서양의 기본 감정 분류는 Kemper(1987)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앞에서 소개한 기본 감정의 목록을 살펴보면, 기본 감정의 숫자는 적게는 4개, 많게는 11개로 나타난다. 물론 그 분류 간에 완전한 일치점을 찾을 수는 없지만 기본 감정의 숫자가 소수라는 것에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위의 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모든 분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개의 감정이 있다는 점이다.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은 모든 분류에서 제시되어 있고 ‘슬픔’과 ‘두려움’ 역시 대부분의 분류에서 나타나고 있다³¹⁾.

일반적으로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의 네 가지 감정은 모든 문화권에서 관찰되는 가장 일차적인 감정으로 간주된다(Kemper, 1987). Kemper(1987)는 적어도 이 네 가지 감정은 생리적 바탕을 가진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이들 감정이 인간 발달 초기에 나타난다는 점, 뚜렷한 생리적 변화 양상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 모든 문화권에 존재한다는 점, 대부분의 동물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다면 이들 감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감정은 기본 감정에 다른 감정이 혼합되어 있는 이차적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³²⁾. 아직까지 기본 감정과 이차적 감정의 관계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기본 감정의 혼합으로 이차적 감정이 유래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오래된 관념이다.

31) <표 3>에서는 출처에서 사용한 용어에 따라 ‘기쁨’과 ‘즐거움’을 따로 제시하였으나, ‘기쁨’과 ‘즐거움’은 대체로 ‘기쁨’과 같은 상위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감정으로 본다(Plutchik, 2003; 박권생 역, 2004: 121). 김향숙(2003), 강현화(2005)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즐거움’을 ‘기쁨’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은 명확히 구분되기 힘든 감정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기쁨’의 감정에 ‘즐거움’을 포함하여 논의할 것이다.

32)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이 인간의 기본 감정이라는 사실에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거의 없으나 ‘사랑’, ‘미움/혐오’, ‘놀라움’, ‘수치/수줍음’ 등의 감정이 일차적 감정이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이러한 분류는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어떠한 분류가 맞고 틀리고를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이나 ‘칠정(七情)’에 해당하는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의 감정 분류가 널리 알려진 편이다. 따라서 ‘사랑’과 ‘미움’과 같은 감정 역시 기본 감정으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 어휘를 한정하기 위해 인류 보편적인 기본 감정, 즉 일차 감정으로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의 감정을 주 논의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인 Descartes(1596-1650)는 일차적 감정은 6개(사랑, 증오, 욕망, 기쁨, 슬픔, 감탄)이고 다른 감정들은 모두 이들의 혼합물이거나 이들 감정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네덜란드의 철학자 Baruch Spinoza(1632-1677) 역시 모든 감정은 ‘기쁨’, ‘비애’, ‘욕망’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차적 감정의 구성 요소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다.

McDougall(1921)은 일차적 감정과 이차적 감정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차적 감정의 예로서 ‘증오’와 ‘질색’을 들면서 ‘증오’는 ‘분노’와 ‘혐오’가, ‘질색’은 ‘두려움’과 ‘혐오’가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Plutchik(2000) 역시 일차적 감정의 혼합이 다양한 감정을 구성한다는 입장에서 여러 감정의 구성 요소를 명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는 한 집단의 평가자들에게 사전에서 발췌한 감정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들이 각각 어떤 일차적 정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하게 하거나, 일차적 정서의 혼합 쌍을 제시한 후 그 혼합에 대해 적절한 감정의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하였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실험 중 전반적으로 일치율이 높았던 혼합 감정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표 4> Plutchik(2000)의 혼합감정 명명 표

일차적 감정 구성 요소		혼합 감정의 명칭
기쁨 + 수용	=	사랑, 친목
두려움 + 놀라움	=	경보, 경외
슬픔 + 혐오	=	가책
혐오 + 노여움	=	경멸, 증오, 적대감
기쁨 + 두려움	=	죄책감
노여움 + 기쁨	=	자부심
두려움 + 혐오	=	수치
예기 + 두려움	=	불안, 신중

<표 4>에서 왼쪽에 있는 기본 감정의 혼합이 오른쪽에 제시된 혼합 감정을 만들어 낸다는 것과 기본 감정의 혼합으로 생겨난 오른쪽 감정을 명명하는 데에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기본 감정을 혼합한 다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일치율을 보이는 혼합 감정의 목록이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본 감정과 이들의 혼합 감정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감정에는 기본 감정과 이차적 감정이 있고, 이차적 감정은 기본 감정의 강도나 감정 혼합의 면에서 나타난 변이형이라는 입장을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 분석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즉, 감정표현 어휘도 감정과 마찬가지로 기본 감정표현 어휘와 이차적 감정표현 어휘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차적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는 기본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에 바탕을 둔다는 것이 주요 전제가 된다.

2.2.2. 감정표현의 기본 어휘와 이차 어휘

감정에는 기본 감정과 이차적 감정이 존재한다. 감정표현 어휘는 어떤 감정이 가지는 개념을 언어에 담아내는 것이므로 감정 어휘의 분류 역시 기본 감정표현 어휘와 이차적 감정표현 어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본 감정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앞서 밝혔듯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을 들 수 있다. 이들 감정은 다른 감정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가장 원형적인 감정인데, 감정표현 어휘 중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어휘가 기본 어휘가 된다. 또한 기본 어휘의 의미에 다른 감정의 의미가 혼합되어 있거나 감정의 강도에 의해 분화될 수 있는 어휘는 이차적 어휘로 분류된다.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의 영역에서 기본 어휘는 각각 ‘기쁘다’,

‘슬프다’, ‘무섭다’, ‘화나다’로 설정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감정 유형의 어휘 중 이들 어휘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다른 이차 어휘의 의미를 대체로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한국인의 국어 교육에서 정규 교육 이전의 단계에서 익혀야 하는 기초 어휘에 해당하며 한국어 교육에서도 보통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배우게 되는 어휘이다³³⁾. 따라서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 분화는 이들 어휘의 의미를 기반으로 시작하게 되므로 이들을 기본 어휘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으로 각 감정 유형의 이차 어휘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어휘들을 살펴보았다. 감정표현 어휘를 감정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감정 경험의 특성 상 연구자의 주관에 배제되기 힘들다. 따라서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의 뜻풀이, 기본 어휘와의 유의 관계,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감정표현 어휘 분류의 내용을 참고하였다³⁴⁾. 즉, 사전의 뜻풀이에 기본 어휘가 직접

33) 김광해(2003)의 (한)국어교육용 어휘 목록에 따르면, ‘기쁘다’, ‘슬프다’, ‘무섭다’, ‘화나다’는 총 7등급의 어휘 등급 중 가장 낮은 1등급의 어휘에 속한다. 1등급은 어휘의 의미 평정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온 어휘이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중요도가 낮고 어려운 어휘에 해당한다. 참고로 김광해(2003)의 어휘목록에서 제시한 어휘 등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국어 교육용	기초어휘	정규교육 이전	정규교육개시 - 사춘기이전, 사고도구어 일부포함	사춘기이후 - 급격한지적성장 사고도구어 포함	전문화된 지적성장단계 - 다량의 전문어포함	저빈도어 - 대학이상, 전문어	누락어 - 분야별전문어 - 기존계량자료 누락어휘
한국어 교육용	초급	중급	상급	고급			

34) 사전의 뜻풀이는 국립국어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유의 관계는 김광해(2002)의 『비슷한말 반대말 사전』을 참고하였다. 감정표현 어휘에 대한 선행 연구 중 감정 유형별 어휘의 예가 제시된 연구로는 김은영(2004)과 강현화(2005)를 들 수 있다. 강현화(2005)는 사전의 뜻풀이와 어휘 사용빈도를 반영하여 ‘기쁨’과 ‘슬픔’의 어휘 군집에 속하는 일부 어휘를 제시하였고, 김은영(2004)에서는 명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으나 크게 ‘만족’과 ‘불만족’의 하위 유형에서 ‘기쁨’과 ‘좋아함’, ‘동정’, ‘수치심’, ‘노여움’, ‘슬픔’, ‘두려움’, ‘싫어함’, ‘바람’에 해당하는 어휘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전류에 해당하는 신현숙 외(2000: 69)에서도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화’, ‘슬픔’, ‘겁’, ‘창피함’, ‘아쉬움’, ‘불쾌함’, ‘불편함’, ‘지루함’)을 표현하는 어휘의 분류표가 나와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

적으로 사용되거나 유의어 사전에서 기본 어휘와 유의어 관계로 나타나는 어휘를 이차 어휘로 분류하였으며, 선행 연구의 감정 유형별 어휘 분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휘도 목록에 포함시켰다. 반대로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어휘라고 하더라도 ‘속상하다’와 같이 어휘의 의미가 하나의 기본 감정으로 분류되기 애매한 경우는 목록에서 제외하였다³⁵⁾. 이렇게 얻어진 기본 어휘와 이차 어휘의 목록은 <표 5>와 같다.

<표 5> 감정 유형별 기본 어휘와 이차 어휘³⁶⁾

감정 유형	기본 어휘	이차 어휘			
기쁨	기쁘다	즐겁다 흥겹다	재미있다 신나다	반갑다 흐뭇하다	행복하다 유쾌하다
슬픔	슬프다	서럽다 우울하다 침통하다	서글프다 울적하다 비통하다	애통하다 애석하다	구슬프다 애처롭다
두려움	무섭다	겁나다	두렵다	섬뜩하다	무시무시하다
노여움	화나다	성나다 빨나다	성질나다 짜증나다	노엽다 역정 나다	꼴나다

그런데 본고는 다량의 말뭉치 자료 분석을 필요로 하는 연구이므로 <표

사전의 뜻풀이와 유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어휘라도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어휘는 <표 5>의 목록에 포함시켰다.

35) 애초에 ‘속상하다’는 ‘화나다’의 유의어로서 ‘노여움’의 감정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속상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는 일 따위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다고 우울하다’로 ‘슬픔’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은영(2004)에서는 ‘속상하다’가 ‘노여움’의 어휘로 분류되어 있고, 강현화(2005)에서는 ‘슬픔’의 어휘로 분류되어 있어 ‘속상하다’의 의미가 하나의 감정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분하다’ 등의 어휘 역시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36) <표 5>에서 제시된 어휘 목록은 어휘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더 많은 어휘가 포함될 수도 있고 몇몇 어휘가 제외될 수도 있다.

5>의 모든 어휘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표 5>의 이차 어휘 중 한국어교육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 어휘를 다시 뽑아내는 작업을 거쳤다. 어휘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2003)의 ‘한국어학습용 어휘 목록’과 김광해(2003)의 ‘한국어교육용 어휘 목록’, 그리고 한국어교재 5종에 나타나는 감정표현 어휘 목록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이들 어휘 목록에서 나타나는 빈도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어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어휘의 범위를 좁혀나갔다.

국립국어원(2003)의 ‘한국어학습용 어휘 목록’은 조남호(2002)의 ‘현대국어 사용빈도 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어휘 목록으로서, 총 5,965개의 어휘에 대해 A~C까지의 등급 정보를 제공한다³⁷⁾. 이 중 A등급의 어휘는 사용빈도가 높아 한국어에서 우선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어휘에 해당하며, B등급과 C등급으로 갈수록 학습의 난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김광해(2003)에서도 역시 한국어교육을 위한 어휘 목록을 등급별로 제시하였다. 김광해(2003)는 국어빈도조사 결과와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국어교육, 한국어교육용 어휘 목록을 메타 분석하여 어휘의 중요도를 평정하였는데, 총 237,990개의 어휘를 선정하여 1~7까지의 어휘 등급을 부여하였다. 이 중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어휘는 1~4등급에 해당하는 어휘로서, 1등급 어휘의 경우 가장 쉽고 중요도가 높은 어휘임을 의미하며 4등급의 경우에는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정도의 어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감정표현 어휘를 살펴보았다³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교재가 기본적인 학

37) 국립국어원(2003)에서 제시된 한국어학습용 어휘 5,965개는 조남호(2002)의 어휘 목록 중에서 빈도 순위가 10,352(출현 빈도 15회 이상)등 안에 든 단어의 등급을 판정하여 선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립국어원(2003)의 어휘목록은 대체로 한국어에서 고빈도 어휘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38) 다음은 한국어 교재 5종에 나타난 감정표현 어휘를 교재와 급별로 정리한 것이다. 교재에 있는 감정표현 어휘 중 <표 5>에 있는 어휘만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습 자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재에서 자주 다루는 어휘일수록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 5종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각각의 감정표현 어휘가 출현한 빈도를 1~5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1권의 교재에만 등장하는 어휘는 빈도를 1로, 5권의 교재에 모두 등장할 경우 빈도를 5로 표시하였다.

<표 6>은 <표 5>의 어휘 목록에 국립국어원(2003)의 어휘 등급과 김광해(2003)의 어휘 등급, 한국어 교재의 출현 빈도를 표시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자료 중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나타나지 않는 어휘는 목록에서 일차적으로 제외되었는데, ‘애통하다’, ‘울적하다’, ‘애석하다’, ‘애처롭다’, ‘침통하다’, ‘비통하다’, ‘섬뜩하다’, ‘성질나다’, ‘골나다’, ‘뿔나다’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어휘는 한국어에서 사용빈도와 중요도가 낮은 어휘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어 학습자에게 일일이 의미 차이를 구별하여 교육하기보다는 학습자가 그 의미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 어휘로만 교육하는 것이

급 교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경희대	기쁘다 행복하다 재미있다 슬프다	즐겁다 우울하다 화나다	신나다 무섭다	겁이 나다 짜증	흐뭇하다 흥겹다 서글프다	뿌듯하다 두렵다
서강대	기쁘다 재미있다	즐겁다 슬프다 우울하다 무섭다	행복하다 화나다	짜증나다 서글프다	흥겹다 두렵다	
서울대	즐겁다 재미있다 슬프다	기쁘다 화나다 무섭다	행복하다	서럽다 흥겹다 신이 나다		
연세대	재미있다 우울하다 슬프다 무섭다	화나다 즐겁다 행복하다 무섭다 신나다	기쁘다 흐뭇하다 흥겹다 두렵다 짜증나다	짜증스럽다 겁나다	-	-
이화여대	기쁘다 재미있다 즐겁다 행복하다 무섭다	유쾌하다 슬프다 우울하다 화가 나다 두렵다	신이 나다 언짢다 짜증이 나다 겁	흐뭇하다 구슬프다 무시무시하다	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감정 유형별 어휘의 중요도 판정

감정 유형	감정표현 어휘		국립국어원 (2003) 어휘등급	김광해 (2003) 어휘등급	한국어교재 출현빈도	최종 판정
기쁨	기본 어휘	기쁘다	B	1	5	포함
	이차 어휘	즐겁다	A	1	5	포함
		재미있다	A	1	5	제외
		반갑다	A	1	5	제외
		행복하다	B	2	4	포함
		흥겹다	B	2	5	포함
		신나다	B	3	4	포함
		흐뭇하다	-	2	3	제외
		유쾌하다	-	3	1	제외
슬픔	기본 어휘	슬프다	A	1	5	포함
	이차 어휘	서럽다	-	2	1	포함
		서글프다	-	2	2	포함
		애통하다	-	4	-	제외
		구슬프다	-	3	1	제외
		우울하다	C	2	4	포함
		울적하다	-	3	-	제외
		애석하다	-	4	-	제외
		애처롭다	-	-	-	제외
		침통하다	-	-	-	제외
		비통하다	-	4	-	제외
두려움	기본 어휘	무섭다	B	1	5	포함
	이차 어휘	겁나다	C	2	3	포함
		두렵다	C	2	4	포함
		섬뜩하다	-	4	-	제외
		무시무시하다	-	4	1	제외
노여움	기본 어휘	화나다	B	1	4	포함
	이차 어휘	성나다	-	2	-	포함
		성질나다	-	2	-	제외
		노엽다	-	4	-	포함

		골나다	-	4	-	제외
		빨나다	-	4	-	제외
		짜증나다	B	2	4	포함

다음으로 ‘기쁨’의 감정표현 어휘는 모두 사용빈도와 중요도 면에서 유의미한 어휘로 판정되나 그 수가 많으므로 몇 가지 조건을 더 적용해 어휘를 추가적으로 제외하였다. 우선 ‘흐뭇하다’와 ‘유쾌하다’는 목록상의 다른 ‘기쁨’의 감정표현 어휘와 비교했을 때 사용빈도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하였다. 그리고 ‘반갑다’와 ‘재미있다’도 최종적으로 목록에서 제외되었는데, ‘반갑다’는 ‘기쁘다’와만 유의 관계가 성립할 뿐 다른 어휘와는 의미적 연결성이 떨어져 제외하였고 ‘재미있다’의 경우에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의미적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두려움’의 감정표현 어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빈도 및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된 ‘무시무시하다’가 추가적으로 제외되었다. ‘노여움’의 감정표현 어휘 중에는 ‘화나다’와 ‘짜증나다’ 만이 포함되고 대부분의 어휘가 사용빈도가 낮아 제외되었는데, 이 중 ‘성나다’는 김광해(2003)에서의 어휘 등급이 2등급으로 나타난 점과 ‘성나다’가 사전에서 ‘화나다’를 비롯한 ‘골나다’, ‘역정 나다’, ‘빨나다’ 등의 어휘 뜻풀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³⁹⁾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노엽다’는 한국어에서 사용빈도

39) 국립국어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화나다’, ‘골나다’, ‘역정 나다’, ‘빨나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공통적으로 ‘성’, ‘성나다’라는 말이 뜻풀이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사전적 의미
화나다	성이 나서 화기(火氣)가 생기다.
골나다	비위에 거슬리거나 마음이 언짢아서 성이 나다.
역정 나다	역정: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서 내는 성
빨나다	(속되게) 성이 나다.

사전이 어휘의 의미 파악에 주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에게 ‘성나다’는 ‘화나다’와 매우 유사한 어휘로서 인식되며 ‘노여움’의 감정표현 어휘의 의

가 매우 낮은 어휘인 것으로 보이나 ‘노여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명칭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어휘임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표 6>에서의 어휘 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어휘 목록을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본고의 4장에서 이루어질 감정표현 어휘의 사용맥락과 의미 분석은 <표 7>에 있는 어휘에 한정하여 이루어질 것이다⁴⁰⁾.

<표 7> 감정 유형별 분석 대상 어휘 목록

감정 유형	기본 어휘	이차 어휘			
기쁨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신나다	흥겹다
슬픔	슬프다	서럽다	서글프다	우울하다	
두려움	무섭다	두렵다	겁나다		
노여움	화나다	성나다	짜증나다	노엽다	

2.3. 감정표현 어휘의 사용 양상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의 감정표현 어휘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표 7>에 제시된 감정표현 어휘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의 기본

미를 이해하는 데 참조 어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40) <표 7>의 어휘 목록 중 ‘겁나다’는 실제로 4장의 분석에서 제시되지 않는다. ‘겁나다’의 말뭉치 분석 결과 ‘무섭다’나 ‘두렵다’와의 구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4.3.절에 다시 언급되어 있다.

어휘와 이차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학습자들에게 각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한국어 어휘로 써 보도록 하였다⁴¹⁾.

학습자에게 제시된 10가지 상황과 각 상황에서 기대되는 감정표현 어휘는 <표 8>과 같다.

<표 8> 감정 유형별 상황과 기대 응답

	상황	기대 응답
1	면접 합격 전화를 받음	기쁘다
2	어머니께서 돌아가심	슬프다
3	어둠 속에서 누가 따라옴	무섭다
4	타향에서 몸이 아파 혼자 집에 있음	서럽다, 서글프다
5	산에 갔다가 일행을 놓쳤는데 길을 잃을까 봐 걱정됨	두렵다
6	회사 사장님이 옷차림에 대해서 잔소리를 함	짜증나다
7	10년째 편찮으신 어머니와 가정형편에 대해 고민함	우울하다
8	영화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새치기를 함	화나다
9	가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봄	신나다, 흥겹다
10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을 보냄	즐겁다

설문조사는 감정표현의 기본 어휘를 이미 학습하고 어느 정도의 이차 어휘를 학습했다고 여겨지는 중·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인 84명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학습자⁴²⁾의 감정표현 어휘 사용과 한국인의 어휘 사용에 차

41) 10가지 상황은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의 기본 어휘인 ‘기쁘다’, ‘슬프다’, ‘무섭다’, ‘화나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각 감정의 이차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설정되었다. ‘기쁨’의 상황 3개와 ‘슬픔’과 ‘두려움’, ‘노여움’의 상황을 각각 2개씩 제시하였다.

42) 본 절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화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라는 의미로 ‘외국인 학습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⁴³⁾.

다음은 설문 조사지에 제시된 상황별로 외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화자의 응답을 정리한 결과이다. 설문의 응답은 한국인이 사용한 어휘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는데, 우선 한국인의 응답을 응답 빈도순으로 표에 제시하였고, 한국인과 동일한 응답을 한 외국인 학습자의 빈도를 해당 어휘 란에 표시하였다.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응답 어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므로, 한국인과 동일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 10가지만을 표에 제시하였다.

43) 설문에 응답한 외국인 응답자와 한국인 응답자의 기본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응답자 기본 정보>						
구분	내용					계
국적	중국(59명) 러시아(1명) 스위스(1명) 파키스탄(1명) 에티오피아(1명)	일본(4명) 세네갈(1명) 모로코(1명) 알제리(1명) 엘살바도르(1명)	몽골(4명) 기니(1명) 탄자니아(1명) 방글라데시(1명) 우즈베키스탄(1명)	미얀마(2명) 미국(1명) 캐나다(1명) 말레이시아(1명)		84명
성별	남(43명) 여(41명)					
나이	10대(4명) 20대(74명) 30대(4명) 40대(1명) 50대(1명)					
직업	대학생(43명) 한국어연수생(23명) 대학원생(11명) 교수 및 강사(3명) 주부(2명) 간호사(1명) 외교관(1명)					
한국어 학습기간	1년 미만(9명) 1년 이상-2년 미만(33명) 2년 이상-3년 미만(23명) 3년 이상-4년 미만(11명) 4년 이상-5년 미만(4명) 5년 이상(4명)					
한국어 학습목적	학업(44명) 진학(16명) 취직(7명) 한국이해(6명) 한국생활(6명) 취미(3명) 기타(2명)					

<한국인 응답자 기본 정보>						
구분	내용					계
성별	남(36명) 여(48명)					84명
직업	대학생(21명)	대학원생(20명)	교수, 교사 및 강사(16명)			
	회사원(6명)	교직원(5명)	주부(5명)	간호사(3명)		
	호텔리어(2명)	임상심리사(2명)	에디터(1명)			
	대학조교(1명)	임상병리사(1명)	국제회의기획사(1명)			
나이	20대(49명)	30대(21명)	40대(11명)	50대(2명)	60대(1명)	

[상황 1]

나는 지난주에 취직 면접을 봤다. 나는 그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회사에서 합격 전화가 왔다. 나는 전화를 받고 정말 _____.

<표 9> 상황 1의 응답 결과

	기쁘다	행복하다	설레다	흥분하다	즐겁다	기분이 좋다	격해지다	감격하다	산나다	긴장하다	기타	합계
한국인 화자	75	3	2	-	-	-	-	-	-	1	3	84
외국인 학습자	41	8	1	8	6	6	3	3	2	1	5	84

[상황 1]에 대한 응답으로서 한국인 화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감정표현 어휘는 ‘기쁘다’였다. 총 84명의 한국인 중 75명이 ‘기쁘다’로 응답한 것을 볼 때 [상황 1]은 ‘기쁘다’의 전형적인 사용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도 ‘기쁘다’라는 응답이 41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데, 외국인들에게도 ‘합격’의 상황은 대체로 ‘기쁘다’의 맥락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흥분하다’, ‘즐겁다’, ‘기분이 좋다’, ‘격해지다’ 등 더 다양한 응답이 나타났다. 물론 이들 어휘의 의미가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런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인에게는 ‘기쁘다’라는 어휘의 전형적인 사용맥락으로 받아들여지는 장면이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전형성의 의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상황 2]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장에 있다. 나는 지금 너무 _____.

<표 10> 상황 2의 응답 결과

	슬프다	비통하다	암담하다	상심하다	마음이 아프다	외롭다	-	-	-	-	기타	합계
한국인 화자	79	1	1	-	-	1	-	-	-	-	2	84
외국인 학습자	63	-	-	13	3	2	-	-	-	-	3	84

[상황 2]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으로 전형적인 ‘슬픔’의 맥락이라 여겨진다. 한국인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 모두에게서 ‘슬프다’의 사용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상심하다’가 많이 나타난 것 외에는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의 답변도 몇 가지 어휘 내에서 나타났는데 ‘죽음’의 맥락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전형적인 슬픔의 상황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 3]

밤에 혼자 집에 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린다. 나는 지금 너무 _____.

<표 11> 상황 3의 응답 결과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겁이 나다	떨다	떨리다	걱정하다	-	-	-	기타	합계
한국인 화자	73	5	3	1	-	-	-	-	-	-	2	84
외국인 학습자	65	11	-		3	2	1	-	-	-	2	84

[상황 3]의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서 대부분 ‘무섭다’라는 응답이 나와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학습자의 응답 중 ‘두렵다’가 한국인보다 조금 더 많이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는 별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외국인의 응답 범위도 몇몇 어휘 내에서 나타나 ‘무섭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 기본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상황 4]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아침부터 아무 것도 못 먹고 방에 혼자 누워 있으니 엄마 생각도 나고 눈물이 난다. 이렇게 가족도 없는 외국 땅에서 몸까지 아프니까 정말 _____.

<표 12> 상황 4의 응답 결과

	서글프다	서럽다	외롭다	슬프다	쓸쓸하다	괴롭다	화나다	불쌍하다	고독하다	힘들다	기타	합계
한국인 화자	27	26	18	7	2	1	1	1	-	-	1	84
외국인 학습자	1	4	20	6	2	4	-	7	5	6	29	84

[상황 4]의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의 응답 결과에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응답이 ‘서글프다’와 ‘서럽다’였음에 반해,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글프다’와 ‘서럽다’가 각각 1건과 4건에 불과했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대부분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에 초점을 맞추어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같은 상황에 대해 전형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표현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럽다’와 ‘서글프다’의 경우 한국어 화자에게는 [상황 4]와 같은 맥락과 긴밀히 연관된 어휘로 인식되나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그렇지 않아 학습자들이 ‘슬픔’의 이차 어휘를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 5]

회사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디로 가야할지 길을 모르겠다. 이러다 정말 길을 잃을까 봐 _____.

<표 13> 상황 5의 응답 결과

	두렵다	무섭다	걱정되다	겁나다	공포스럽다	당황하다	긴장하다	불안하다	낙담하다	염려하다	기타	합계
한국인 화자	61	12	7	3	1	-	-	-	-	-	-	84
외국인 학습자	4	14	28	-	-	6	4	5	2	2	19	84

[상황 5]에서 한국인 화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어휘는 ‘두렵다’였고 다음이 ‘무섭다’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렵다’가 가장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28명이 걱정과 관련된 어휘로 응답하였고 4명만이 ‘두렵다’라고 응답하였다. ‘두렵다’에 걱정과 불안의 의미가 있는 것은 맞으나 학습자들은 대체로 ‘두렵다’라는 어휘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해야 하는지와 같은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 6]

우리 회사 사장님은 간섭이 심하다.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옷 입는 것까지 일일이 다 간섭한다. 오늘도 내 옷차림을 보고 10분 동안 잔소리를 하셨다. 오늘도 사장님의 잔소리를 들으니 _____.

<표 14> 상황 6의 응답 결과

	짜증 나다	기분 나쁘다	우울 하다	안짱다	싫다	귀찮다	답답 하다	화나다	초조 하다	괴롭다	기타	합계
한국인 화자	70	7	3	1	-	-	-	-	-	-	3	84
외국인 학습자	18	5	-	-	9	7	6	8	3	2	26	84

[상황 6] 역시 한국인에게는 ‘짜증나다’가 전형성을 가지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짜증나다’가 가장 많은 응답이기는 했지만 그 빈도는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기타 응답이 26건으로 동일한 상황에 대해 응답의 분포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상황 7]

우리 집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그리고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10년째 집에 누워 계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오늘도 집 걱정에 하루 종일 _____.

<표 15> 상황 7의 응답 결과

	우울 하다	마음이 무겁다	슬프다	답답 하다	불안 하다	심란 하다	기분이 안 좋다	괴롭다	절망 하다	걱정 하다	기타	합계
한국인 화자	35	14	11	8	4	3	-	1	-	-	8	84
외국인 학습자	6	-	4	3	-	3	3	4	4	11	46	84

[상황 7]의 경우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응답이 나타났으나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우울하다’였다. 그 다음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슬프다’ 등이 나타났다.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응답이 거의 없고 다양한 어휘들을 사용하여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인에게는 어느 정

도 ‘우울하다’의 맥락으로 이해되는 상황이 외국인에게는 비슷하게 이해되지 않는 듯하다. 외국인 학습자의 기타 응답 중에는 감정표현 어휘가 아닌 ‘생각하다’, ‘마음에 걸리다’, ‘신경이 쓰이다’, ‘밥을 안 먹다’와 같은 표현이 있었고, ‘섭섭하다’와 같이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가 사용된 경우도 볼 수 있었다⁴⁴⁾.

[상황 8]

영화관에 사람이 많다. 표를 사려고 30분 넘게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앞으로 끼어들어 새치기를 한다. 나는 너무 _____.

<표 16> 상황 8의 응답 결과

	화나다	신경질 나다	불쾌 하다	황당 하다	분개 하다	분노 하다	짜증 나다	기분이 나쁘다	성나다	어이가 없다	기타	합계
한국인 화자	76	2	1	2	-	-	2	-	-	1	-	84
외국인 학습자	45	-	-	-	7	7	5	2	1	1	16	84

[상황 8]과 같이 새치기를 하는 상황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전형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이다. 총 76명의 한국인 화자가 ‘화가 나다’로 응답하였다. 외국인의 경우도 대부분 분노와 관련된 어휘로 대답하였으나 한국인에 비해 사용 어휘의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분개하다’, ‘분노하다’, ‘성나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거나 ‘기분이 나쁘다’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황 9]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있다. 가수들의 무대를 보니

44) [상황 7]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당시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떤 어휘를 써야할지 모르겠으며 질문을 가장 많이 한 항목이기도 하다.

_____어/아/여서 나도 같이 춤을 추었다.

<표 17> 상황 9의 응답 결과

	신나다	흥겹다	즐겁다	흥분되다	기분이 좋다	기쁘다	감동받다	행복하다	유쾌하다	감격하다	기타	합계
한국인 화자	40	32	6	4	1	-	-	-	-	-	1	84
외국인 학습자	8	3	2	15	15	9	4	1	1	1	25	84

[상황 9]의 경우, 한국인의 응답은 대부분 ‘신나다’와 ‘흥겹다’로 나왔고 ‘즐겁다’와 ‘흥분되다’라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흥분되다’와 ‘기분 좋다’가 15명으로 제일 많았고, ‘신나다’가 8명, ‘흥겹다’와 ‘즐겁다’는 각각 3명과 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쁘다’나 ‘감격하다’와 같이 매우 어색한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지적하였던 ‘기쁘다’의 전형적인 오용 사례로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기쁨’의 감정표현 어휘를 잘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 10]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해운대에 갔다. 해운대에서 수영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오늘 하루 정말 _____.

<표 18> 상황 10의 응답 결과

	즐겁다	재미있다	신나다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뿌듯하다	보람차다	기쁘다	상쾌하다	편안하다	기타	합계
한국인 화자	59	11	4	4	2	1	1	-	-	-	2	84
외국인 학습자	24	9	1	12	12	1	1	14	1	-	9	84

[상황 10]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 응답은 ‘즐겁다’였다. 그 다

음으로는 ‘재미있다’가 사용되었는데 ‘즐겁다’와는 빈도 차이가 매우 컸다. 외국인의 응답 역시 ‘즐겁다’가 가장 많았으나 그 빈도가 한국인의 응답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기분이 좋다’와 ‘행복하다’로 나타나 한국인과의 차이를 보였다. 이 경우 역시 [상황 9]와 마찬가지로 ‘기쁘다’를 사용하여 비문을 형성한 경우도 14건이나 나타나 학습자들이 ‘기쁘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살펴본 상황별 감정표현 어휘 사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감정표현의 기본 어휘의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슬프다’, ‘무섭다’, ‘화나다’의 전형적인 상황으로서 제시된 문항에서는 약간의 빈도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한국인들과 동일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기쁘다’에 대해서는 오류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다른 감정표현 어휘에 비해 ‘기쁨’의 감정표현 어휘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휘의 사용맥락과 전형성 면에 있어서는 한국인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표현 어휘 중 이차 어휘의 경우 학습자들이 그 의미와 전형적인 사용맥락에 대한 직관이 거의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경우에는 ‘서럽다’나 ‘서글프다’를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맥락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들 어휘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결국 본고의 주요 목적인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와 사용맥락 분석의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감정표현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 중심의 어휘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감정표현 어휘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

감정표현 어휘는 인간 내면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른 한국어 어휘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감정동사, 감정형용사, 심리동사, 심리형용사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 온 감정표현 어휘의 주요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다루고자 한다.

본 장의 논의는 주로 감정표현 어휘의 주어 설정 문제와 기본 문장 구조, 서법 제약 등과 같은 통사적 특징과 연결성, 정도성과 같은 의미적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감정의 특징이 감정표현 어휘의 특징에도 고스란히 전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1. 감정표현 어휘의 통사적 특징

3.1.1. 경험주로서의 주어

다음의 (4)ㄱ-ㄴ은 전형적인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예이다. 그런데 이들 예문은 소위 말하는 주격 중출 구문을 이룬다⁴⁵⁾. 감정표현 어휘 구문에 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주격 중출의 문제인데 문제의 핵심은 NP₁과 NP₂ 중 과연 어느 것이 문장의 주어가 되어야 하는가에 있다⁴⁶⁾.

45) 주격 중출은 조사 ‘-이/가’를 가진 명사구나 ‘-은/는’을 가진 명사구와 같이 주격이 될 수 있는 명사구가 한 문장 내에 같이 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46) NP는 명사구(Noun Phrase)로서 NP₁은 주격 중출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명사구, NP₂는 두 번째 명사구를 의미한다.

- (4) ㄱ.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ㄴ. 나는 여행이 즐겁다.
 ㄷ. 나는 어제 본 영화가 재미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학자 간의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데 크게는 NP₁을 주어로 보고 NP₂를 문장의 진짜 주어로 보는 입장(서정수, 1996)과 NP₁을 문장의 주어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NP₁을 문장의 주어로 보는 입장은 다시 NP₂를 서술절의 소주어로 보는 입장(최현배, 1937; 허웅, 1983)과 서술어의 목적어로 보는 입장(정인상, 1980), 서술어의 보어로 보는 입장(Chung, 1986; 김세중, 1989)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⁴⁷⁾.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고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감정의 경험주가 되는 NP₁을 문장의 주어로 보는 입장을 따른다. 서정수(1996) 등과 같이 NP₂를 문장의 주어로 보는 입장에서는 예문 (4)ㄱ이 ‘나에게 호랑이가 무섭다’라는 문장에서 ‘나에게는 호랑이가 무섭다’를 거쳐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로도 출현된 것이라고 본다. 즉, 아래 예문 (5)ㄱ-ㄷ과 같이 감정표현 어휘의 경험주는 ‘NP₁에게’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NP₁-는’은 ‘NP₁-에게’가 주제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5) ㄱ. 나에게는 호랑이가 무섭다.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ㄴ. 나에게는 여행이 즐겁다. (→나는 여행이 즐겁다.)
 ㄷ. 나에게는 어제 본 영화가 재미있었다. (→나는 어제 본 영화가 재미있었다.)

47) NP₁을 문장의 주어로 보는 입장에서는 나머지 명사구인 NP₂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최현배(1937)를 비롯한 학교 문법에서는 NP₁을 문장의 대주어로, ‘NP₂이/가 V/A’는 전체 문장에 안겨 있는 서술절로 보아 NP₂를 서술절의 소주어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서술절의 절 표지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NP₂를 서술절이 아닌 서술어의 목적어 또는 보어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NP₂에 붙어 있는 ‘-이/가’를 주격조사로 보지 않고 보격 조사로 보거나 ‘NP₂이/가 V/A’를 어휘화되어 있는 하나의 동사(구)로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주격중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는 서정수(1996)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5)ㄱ-ㄷ의 문장이 (4)ㄱ-ㄷ의 심층 구조라면 NP₂에 해당하는 ‘호랑이’, ‘여행’, ‘어제 본 영화’가 주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정은 다음의 몇 가지 주어 검증법에 의하여 타당성이 의심된다.

NP₁이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주어가 된다는 것은 우선 주체 존대 ‘-시-’와의 결속을 통해 그 가능성이 검증될 수 있다⁴⁸⁾.

- (6) ㄱ. 나는 선생님이 {무서웠다, *무서우셨다}.
 ㄴ. 아버지께서는 선생님이 무서우셨다.
 ㄷ. 민수는 엄마가 {미운가 보다, *미우신가 보다}.
 ㄹ. 할머니께서는 엄마가 미우신가 보다.

(6)ㄱ에서 NP₂인 ‘선생님’은 [+존대]의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호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6)ㄴ와 같이 NP₁의 자리에 [+존대] 자질이 있는 ‘아버지’를 설정하게 되면 ‘무섭다’가 ‘-시-’와 호응하여 ‘무서우시다’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6)ㄷ과 (6)ㄹ에서도 ‘미우시다’의 ‘-시-’와 호응하는 것은 NP₂인 ‘엄마’가 아니라 NP₁에 해당하는 ‘할머니’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는 첫 번째 명사구에 해당하는 NP₁이라고 볼 수 있다.

주어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명사구가 관계관형화의 표제 명사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⁴⁹⁾. (7)ㄱ-ㄷ에서 만약 NP₂인 ‘호랑이’, ‘여행’, ‘영화’가 주어가 되려면 관계관형화의 표제 명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7)ㄱ-ㄷ을 보면 이들이 표제 명사가 된 구문보다 NP₁이 표제 명사가 된 구문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NP₁에 해당하는 감정의 경험주를 주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48) 주어와 ‘-시-’ 결속에 대해서는 홍기선(1994)을 참고.

49) 관계관형화의 표제 명사되기에 관해서는 양정석(1989), 이흥식(1996)을 참고.

- (7) ㄱ.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ㄱ'. * 나는 무서운 호랑이 / 호랑이가 무서운 나
 ㄴ. 나는 여행이 즐겁다.
 ㄴ'. * 나는 즐거운 여행 / 여행이 즐거운 나
 ㄷ. 나는 어제 본 영화가 재미있었다.
 ㄷ'. * 나는 재미있었던 어제 본 영화 / 어제 본 영화가 재미있었던 나

주어성을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재귀사 ‘자기’나 ‘자신’과의 결속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⁵⁰⁾. 재귀사는 어순에 관계없이 지배 층위가 높은 논항이 결속자가 되므로 재귀사의 선행사가 되는 명사구가 주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8)ㄱ과 같은 감정표현 어휘 구문에 대해 공지칭 관계의 문장을 가정하면 (8)ㄱ'가 된다.

- (8) ㄱ. 영희는 그런 말을 한 철수가 무서웠다.
 ㄱ'. ?영희는 그런 말을 한 영희가 무서웠다.

그런 다음 (8)ㄱ'의 NP₁과 NP₂의 자리에 각각 재귀사를 실현해 보면 (9) ㄱ, ㄴ에서 볼 수 있듯이 NP₁이 재귀사의 선행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9)ㄱ', ㄴ'처럼 어순이 바뀌어도 재귀사 결속 양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다.

50) 재귀사 결속과 주어성 검증에 대해서는 유현경(1998:62)을 참고. 홍기선(1994)에서는 재귀사 결속이 주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불완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귀사 결속은 주어 검증법이 아닌 주어의 필수 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귀사 결속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논의한 주체 존대 ‘-시-’ 결속과 관계관형화의 표제 명사 되기 역시 한국어에서 주어를 검증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이들 조건을 공통적으로 충족시키는 명사구가 주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9) ㄱ. 영희는 그런 말을 한 자기 자신이 무서웠다.
 ㄱ'. 그런 말을 한 자기 자신이 영희는 무서웠다.
 ㄴ. *자기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영희가 무서웠다.
 ㄴ'. *그런 말을 한 영희가 자기 자신은 무서웠다.

따라서 (9)ㄱ, ㄴ의 예문 역시 NP₁이 문장의 주어가 된다는 사실에 타당성을 더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주어 설정은 주격중출의 문제와 함께 NP₁과 NP₂ 중에 어떤 것이 주어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와의 결속, 관계관형화 표제 명사되기, 재귀사 결속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감정의 경험주인 NP₁을 주어로 설정하기로 한다.

3.1.2. 주어 인칭 제약

감정표현 어휘는 감정의 경험주가 주어가 된다는 점에서 인칭 제약이 따른다. 이는 감정이란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경험주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의 감정은 직접 알 수 없다는 감정 자체의 특성에 의거한 제약이다. 평서문일 때는 경험주로서의 주어가 화자와 일치해야 하며 의문문일 때는 주어가 청자와 일치해야 한다.

- (10) ㄱ. {나, *너, *그}는 시험에 합격해서 기쁘다.
 ㄴ. {나, *너, *그}는 친구의 죽음이 슬프다.
 ㄷ. {나, *너, *그}는 그녀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화가 난다.

- (11) ㄱ. {*나, 너, *그}는 시험에 합격해서 기쁘니?
 ㄴ. {*나, 너, *그}는 친구의 죽음이 슬프니?
 ㄷ. {*나, 너, *그}는 그녀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화가 나니?

예문 (10) ㄱ-ㄷ에서 보듯이 화자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너’, ‘그’와 같이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 감정이란 경험주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표현 어휘의 주어는 감정을 직접 경험하는 화자 자신, 즉 1인칭으로 한정된다⁵¹⁾.

이러한 인칭 제약은 의문문에서도 나타난다. (11) ㄱ-ㄷ과 같은 의문문의 경우에는 2인칭 주어만이 가능하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질문하면 이때 대답하는 청자는 감정의 경험주가 되므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청자에게 3인칭인 ‘그’의 감정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없다. 청자가 타인인 ‘그’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표현 어휘 구문에서 평서문은 2, 3인칭 주어를 취할 수 없고, 의문문은 1, 3인칭 주어를 취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인칭 제약이 해소되기도 한다. 바로 감정 어휘 구문의 시제가 과거형일 때와 ‘-어하다’ 대응을 통해 경험주의 감정이 외부로 표출될 때,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추측할 때가 그것이다.

우선 문장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를 살펴보자.

- (12) ㄱ. 그는 그녀가 말없이 떠난 것이 섭섭했다.
 ㄴ. 그는 한동안 우울했다.
 ㄷ. 그는 사장님의 잔소리에 짜증이 났다.

51) 유현경(1998)은 이러한 인칭 제약으로 인해 감정표현 어휘 구문에서는 주어 생략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였다. 주어 자체가 1인칭으로 한정되므로 문장에서 주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1인칭 화자가 주어임을 쉽게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ㄱ-ㄷ과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발화시보다 감정 경험주의 감정 경험이 시간적으로 앞선다. 즉, 화자는 현재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경우 화자는 이미 발생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3인칭이 주어로 나타나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인칭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는 감정표현 어휘가 ‘-어하다’와 결합될 때이다.

- (13) ㄱ. {너, 그}는 유학 생활을 즐거워한다.
 ㄴ. {너, 그}는 아버지를 무서워한다.
 ㄷ. {너, 그}는 계속 내리는 비를 보면서 우울해한다.

(13) ㄱ-ㄷ에서 감정표현 어휘가 ‘-어하다’와 결합하여 주어 제약이 해소된 것을 볼 수 있다. 감정 어휘에 ‘-어하다’를 대응시키면 형용사였던 감정표현 어휘가 동사화되는데 이는 감정을 관찰 가능한 외적인 상태로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한다⁵²⁾. 즉, 내적으로만 경험될 수 있었던 감정이 외부로 보이게 되면서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1인칭 주어 제약에 의해 비문이 되었던 2, 3인칭 주어의 문장에 ‘-어하다’를 사용하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⁵³⁾⁵⁴⁾.

52) 감정표현 어휘가 동사화된다고 하여 그것이 동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세중(1994)은 ‘-어하다’가 감정경험주가 느끼는 감정이 타인에게 인지될 수 있는 [+SHOW]의 자질을 갖도록 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임은하(1994)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외적 양상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안 경우 ‘-어하다’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53) ‘화나다’, ‘짜증나다’, ‘화(가) 나다’, ‘짜증(이) 나다’와 같은 ‘나다’류 어휘의 경우에는 ‘-를 내다’와 결합하여 인칭 제약이 해소된다.

54) (13) ㄱ-ㄷ에서 2인칭 주어가 사용된 문장을 비문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유현경(1998)에서 지적했듯이 청자 앞에서 청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화자가 타인의 감정을 추측하는 경우에는 인칭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앞서 감정표현 어휘 구문에서 화자와 감정의 경험주가 일치해야 한다는 1인칭 주어 제약이 있었던 것은 경험주 외에는 경험주의 감정을 단정 지어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감정 경험주의 감정을 단언하지 않고 추측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2, 3인칭 주어도 가능하다.

- (14) 가. {너, 그}는 요즘 행복해 보인다.
 나. {너, 그}는 혼자 집에 가기 무섭겠다.
 다. {너, 그}는 즐거운 것 같다.

(14)가-다에서처럼 감정표현 어휘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어 보이다’, ‘-겠-’, ‘-ㄴ 것 같다’ 등의 양태적 표현과 어울려 쓰이면 인칭 제약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감정표현 어휘 구문에서 주어는 감정의 경험주만이 될 수 있으므로 평서문에서는 주어가 1인칭으로, 의문문인 경우는 2인칭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감정 발생이 화자의 발화시에 앞서 일어났거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상태가 되어 타인이 경험주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거 시제나 ‘-어하다’ 대응을 통해 인칭 제약이 해소된다. 또한 감정 경험주의 감정을 추측하여 말하는 경우에도 주어의 인칭 제약 없이 감정표현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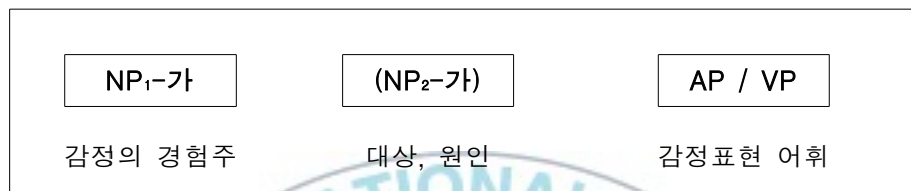
55) 그런데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칭제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지적 작가시점의 소설에서는 화자가 등장인물의 감정을 모두 알 수 있으므로 인칭 제약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문학작품이 아닌 경우에도 인칭제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비문에 해당하지만 화용적으로는 화자의 시점이 ‘재’로 옮겨간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남기십, 1989).

(1) 가. 재는 지금 내가 무서워. 내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잖아.

3.1.3.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구조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기본 구조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구조⁵⁶⁾



감정표현 어휘 구문은 일반적으로 감정 경험주로서의 주어와 감정표현 어휘, 그리고 감정의 대상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어휘로 구성된다. 따라서 NP₁ 자리에는 경험주로서의 주어가 오고 NP₂에는 감정의 대상이나 원인, AP/VP⁵⁷⁾ 자리에는 감정표현 어휘가 온다.

그런데 감정표현 어휘 구문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 구조 내에서도 NP₂ 성분이 대상인지 원인인지, 그리고 생략이 가능한지에 따라 다시 구분이 가능하다. NP₂의 내용과 수의성 여부는 감정표현 어휘 자체의 성질이나 맥락 속에서의 용법, 화자의 의도, 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데, 그 중에서도 감정표현 어휘가 대상 의존적 감정을 나타내는지 주체 중심적 감정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문장 구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⁵⁸⁾.

56) NP₁은 문장의 주어이므로 'NP₁-가'의 형태로 실현되어야 하나 실제 감정표현 어휘 구문은 'NP₁-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목정수, 2005). 따라서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예문을 제시할 때는 모두 'NP₁-는 NP₂-가 AP/VP'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57) NP=Noun Phrase(명사구), AP=Adjective Phrase(형용사구), VP=Verb Phrase(동사구)를 의미한다. 유현경(1998)에서는 심리형용사의 격들로 NP₁-가 (NP₂-가) Adj를 제시하였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감정표현 어휘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일부 동사와 동사구가 포함되므로 AP와 VP를 모두 표기하였다.

58) 대상 의존적 감정은 반드시 감정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감정을 의미하고, 주체 중심적 감정은 특정 대상 없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험주의 내적 경험이 중심이 되는 감정을 의미한다(신은주, 2008). 대상 의존적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와 주체 중심적 감정

먼저 대상 의존적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구조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15)ㄱ-ㄴ은 전형적인 대상 의존적 감정표현 어휘 인 ‘싫다’, ‘안타깝다’, ‘부럽다’, ‘아깝다’가 사용된 문장이다. 이들 어휘는 감 정의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NP₂ 자리에 그 대상이 필수적으로 나 타나며, (15)ㄱ-ㄴ에서와 같이 NP₂를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문장의 구조는 ‘NP₁-가 NP₂-가 AP/VP’로 설정된다. 또한, NP₂ 자리 에는 (15)ㄱ과 같이 일반 명사가 올 수도 있고 (15)ㄴ-ㄴ과 같이 명사절이 올 수도 있다.

- (15) ㄱ. 나는 공부가 싫다.
 ㄱ'. *나는 ϕ 싫다.
 ㄴ. 영화는 오갈 데 없는 철수의 처지가 안타까웠다.
 ㄴ'. *영화는 ϕ 안타까웠다.
 ㄷ. 나는 친구가 해외여행 가는 것이 부러웠다.
 ㄷ'. *나는 ϕ 부러웠다.
 ㄹ. 선미는 자기 옷을 남에게 주기가 아까웠다.
 ㄹ'. *선미는 ϕ 아까웠다.

다음의 (16)ㄱ, ㄴ 역시 대상 중심적 감정을 드러내는 예문이다. (16)ㄱ 과 (16)ㄴ에서 각각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 ‘방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움 과 무서움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싫다’, ‘안타깝다’, ‘부럽 다’, ‘아깝다’와 달리 ‘두렵다’와 ‘무섭다’는 전형적인 대상 중심적 감정표현 어휘가 아니다.

- (16) ㄱ. 나는 직장을 그만두기가 두려웠다.
 ㄴ. 선미는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다.

을 표현하는 어휘는 각각 유현경(1998)의 대상중심 심리형용사와 원인중심 심리형용사 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두렵다’와 ‘무섭다’는 감정의 대상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여 주체 중심적 감정 역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⁹⁾. 즉, ‘두렵다’와 ‘무섭다’는 어휘 자체가 대상 의존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16)ㄱ, ㄴ의 맥락에서 대상 의존적 감정을 드러내는 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문장의 구조는 ‘NP₁-가 NP₂-가 AP/VP’가 된다. ‘두렵다’와 ‘무섭다’ 자체는 감정 대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어휘라고 하더라도 이들 어휘가 대상 의존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NP₂를 생략할 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15)와 (16)의 예문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상 의존적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 구문의 구조에서 감정의 대상 NP₂는 ‘-가’ 명사구와 ‘-는 것이/-기가’ 명사절로 실현된다. 그런데 감정표현 어휘의 종류에 따라 대상이 여격 ‘-에게’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화나다’, ‘짜증나다’ 등과 같은 ‘-나다’류 감정표현 어휘와 ‘서운하다’, ‘섭섭하다’가 그러하다. 이들 어휘 역시 대상 의존적 감정표현 어휘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향해 해당 감정을 느끼는 경우 ‘-에게’를 사용함으로써 대상 의존적 감정을 표현한다.

(17)ㄱ-ㄴ에서 NP₂는 ‘친구’, ‘사장님’, ‘동료들’, ‘남편’ 등으로 나타나며 ‘화나다’, ‘짜증나다’, ‘서운하다’, ‘섭섭하다’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문장 구조는 ‘NP₁-가 NP₂-에게 AP/VP’가 된다.

59) ‘두렵다’와 ‘무섭다’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원인에 초점이 있는 주체 중심적 감정표현 어휘로 사용되었다.

- (1) ㄱ. 나 역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여 두렵다.
 ㄴ. 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에 무서웠다. (홍종선·정연주, 2009)

홍종선, 정연주(2009)에서는 ‘두렵다’와 ‘무섭다’가 본래 주체 중심적 감정표현 어휘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두렵다’와 ‘무섭다’ 외에도 주체 중심적 감정표현 어휘의 격틀에 쓰일 수 있는 어휘는 궁극적으로 주체 중심적 어휘에 속하는 것으로서, 맥락에 따라 대상 의존적 감정표현 어휘로 전용되어 쓰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주체 중심적 감정표현 어휘가 대상 중심적 어휘로 사용되는 현상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는데, 어떤 자극체로 인해 감정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자극체는 해당 감정이 향하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17) ㄱ. 나는 친구에게 화가 났다.
 ㄴ. 민수는 매일 잔소리를 하는 사장님에게 짜증이 났다.
 ㄴ. 나는 동료들에게 서운했다.
 ㄷ. 수정이는 자신의 편을 안 들어주는 남편에게 섭섭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의존적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 구문의 구조를 정리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대상 의존적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구조



다음은 주체 중심적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예를 살펴 보겠다. 주체 중심적 감정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감정의 경험을 중시하므로 감정의 대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NP₂가 없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18)ㄱ, ㄴ과 같이 감정의 경험주와 감정표현 어휘만으로 이루어진 'NP₁-가 AP/VP'의 문장 구조가 가능하다.

- (18) 가. 나는 오늘 슬프다.
 나. 성희는 웬지 우울했다.

아래의 (19)가-르 역시 전형적인 주체 중심적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구조를 보여준다. (18)의 예문처럼 주체 중심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문장에는 NP₂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NP₂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감정 발생의 원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19)가-르에서 NP₂는 각각 ‘기쁘다’, ‘슬프다’, ‘외롭다’, ‘섬섬하다’라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NP₂ 자리에는 명사구 외에도 ‘-는 것이/-기가’와 같은 명사절이 올 수 있으며, (19)가-르에서처럼 NP₂가 생략될 수 있다. 따라서 주체 중심적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 구문은 ‘NP₁-가 (NP₂-가) AP/VP’의 구조를 가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 (19) 가. 나는 새로운 만남이 기뻐다.
 가'. 나는 ϕ 기뻐다.
 나. 나는 그와의 이별이 슬펐다.
 나'. 나는 ϕ 슬펐다.
 다. 그는 혼자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이 외로웠다.
 다'. 그는 ϕ 외로웠다.
 르. 영화는 철수와 이대로 헤어지기가 섬섬했다.
 르'. 영화는 ϕ 섬섬했다.

그런데 NP₂는 감정 발생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원인의 의미를 가진 구나 절은 어떤 것이나 사용할 수 있다. 즉, (20)가-르에서 보듯이 ‘NP₂-가’ 대신 원인을 나타내는 ‘-에’나 ‘-로’ 명사구가 올 수도 있고, ‘-어서’, ‘-므로’, ‘-니까’ 등의 부사절이 올 수도 있다.

- (20) ㄱ. 그녀는 사람들의 칭찬에 기뻐다.
 ㄴ. 정수는 사업 실패로 몹시 괴로웠다.
 ㄷ. 철수는 갑자기 한국을 떠나게 돼서 섭섭했다.
 ㄹ. 나는 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니 슬며시 화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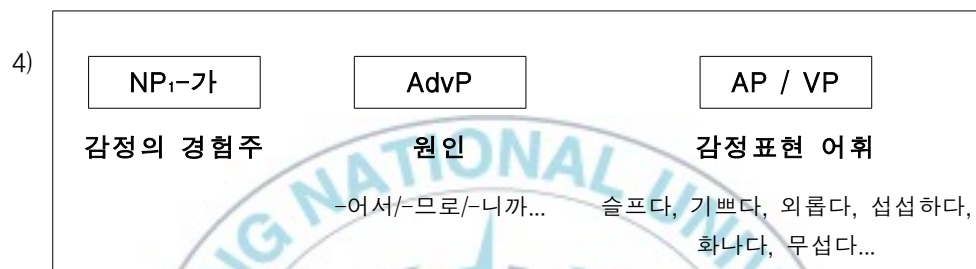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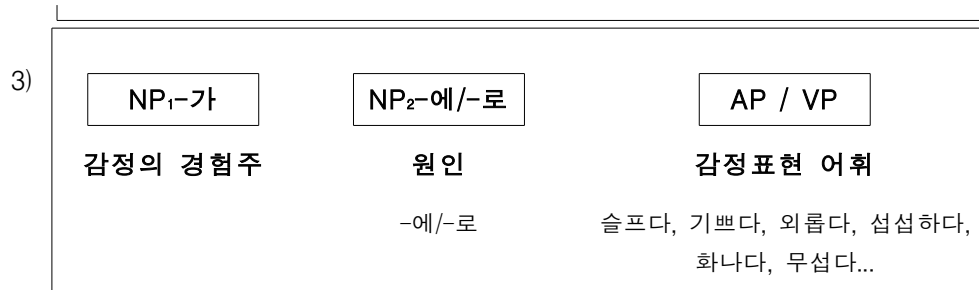
(20)ㄱ-ㄹ에 나타난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구조는 ‘NP₁-가 (NP₂-에/-로) AP/VP’와 ‘NP₁-가 (AdvP) AP/VP’로 표시할 수 있는데⁶⁰⁾⁶¹⁾, 이상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주체 중심적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구조를 정리하면 <그림 7>과 같다.



60) AdvP(=Adverb Phrase)는 부사절을 의미한다.

61) 유현경(1998)에서는 ‘-에/로’ 명사구가 사용된 경우와 부사절이 사용된 경우를 모두 ‘NP₁-가 (NP₂-가) Adj’라는 하나의 격틀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에, -로’ 명사구를 ‘-가’ 명사구로 바꾸어 쓸 수 있고, NP₂에 해당하는 부사절 역시 ‘그것이’와 같은 명사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1) ㄱ. 나는 그와의 이별{에, 이} 슬프다.
 ㄴ. 정수는 사업실패{로, 가} 괴로웠다.
 ㄷ. 영희는 갑자기 한국을 떠나게 돼서 (그것이) 섭섭했다.



<그림 6>과 <그림 7>에서 제시된 감정표현 어휘 구문의 구조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감정표현 어휘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예문의 기본 구조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NP, AP, VP, AdvP와 같은 용어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으므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어휘로 풀어서 설명하거나 다양한 예문을 통해 문장 전체의 패턴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개별 어휘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본 구조와 함께 활용형 제약 등의 특징을 알려주는 것도 실제 감정표현 어휘 사용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⁶²⁾.

62) 4장에서 제시한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의 감정표현 어휘의 사용맥락 분석표에는 개별 어휘가 사용된 맥락뿐만 아니라 말뭉치 용례에서 자주 나타난 활용형을 함께 제시하였다.

3.2.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적 특징

3.2.1. 정도성

감정표현 어휘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적 특징 중 하나는 정도성이다. 즉, 감정은 강하고 약한 정도가 있다는 것이다. 정도성의 개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도 부사어 사용을 통해 감정의 강약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래의 (21)ㄱ의 예문을 살펴보면 감정표현 어휘는 해당 감정을 느끼는 정도를 ‘매우’, ‘아주’, ‘훨씬’ 등의 부사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즉, 정도 부사어 수식으로 감정의 정도를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다. (21)ㄴ, ㄷ과 같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정도성을 지니지 못하는 서술어는 정도 부사어와 어울리지 못하는데, 정도성은 감정표현 어휘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형용사가 가지는 특징이기도 하다.

- (21) ㄱ. {매우/아주/훨씬/꽤/가장/상당히} {슬프다, 기쁘다...}
 ㄴ. *그는 매우 {먹었다, 잤다}
 ㄷ. *그것은 꽤 책이다.

감정표현 어휘가 가지는 의미의 정도성은 동일한 감정표현 어휘군에 속하는 다양한 어휘의 의미에도 관여한다. 예를 들어, ‘노여움’의 감정 영역에서 ‘짜증나다’는 ‘조금 화나다’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분통 터지다’는 ‘화나다’보다 강한 강도의 분노로 해석될 수 있다. ‘슬픔’의 영역에서도 ‘우울하다’는 ‘조금 슬프다’로 ‘비통하다’는 ‘매우 슬프다’로 설정될 수 있다.

감정은 보통 서너 가지의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본다. Plutchik(1962)

과 Osgood(1975)에서는 ‘분노’, ‘기쁨’, ‘놀람’, ‘공포’, ‘슬픔’, ‘혐오’의 강도를 숫자로 표시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감정표현 어휘 역시 대체로 감정의 강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역시 감정표현 어휘의 정도성을 주요 의미 특징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 중에는 특정 감정 유형에 속하는 어휘들의 감정 강도를 평가하여 감정표현 어휘가 가지는 정도성의 실례를 보인 연구도 있다.

먼저 김기홍(1979)은 Plutchik(1962)과 Osgood(1975)이 제시한 감정의 강도에 한국어 어휘를 대응시켜 제시한 바 있다. 아래 <표 19>는 김기홍(1979)이 제시한 감정 강도표인데 영어 부분은 Plutchik(1962)과 Osgood(1975)의 연구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고 한국어 부분은 각 감정에 대응되는 한국어 어휘를 제시한 것이다.

<표 19> 감정의 강도 표

강도	9.0-10.3	8.5-7.0	6.5-5	4.0-
감정	rage	anger	annoyance	
	ecstasy	joy	happiness	
	astonishment	amazement	surprise	
	terror	panic	fear	apprehension
	grief	sorrow	dejection	
	loath	disgust	dislike	boredom
	분통이 터지다	노엽다	귀찮다	
	황홀	통쾌	즐거움	
		놀람		
	끔찍스럽다	무섭다	두렵다	불안
	비에	슬픔	폴죽다	
	구역질나다	기분 나쁘다	비위에 거슬리다	싫증

위의 표에서 강도에 해당하는 숫자가 클수록 강한 감정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약한 감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표 19>에 제시된 한국어 어휘들은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 자체의 정도성을 평가하여 나열했다기보다는 이미

나열된 영어 어휘들을 의미가 근접한 한국어 어휘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시된 어휘들 간에 품사적 일관성이 떨어지고 의미적 긴밀성과 강도 면에서도 의문스러운 어휘가 있다⁶³⁾. 그러나 감정표현 어휘를 감정의 강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만하다.

다음으로 김은영(2004)은 아래의 목록을 제시하여 유사 감정 어휘들 간의 정도성 차이를 보였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정의 정도성이 강해지는 것인데 즉, ‘슬프다’는 ‘울적하다’의 강도가 강해진 것이고, ‘침통하다’는 ‘슬프다’의 강도가 강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ㄱ. 울적하다-슬프다-침통하다
- ㄴ. 짜증나다-화내다-격분하다
- ㄷ. 끌리다-좋아하다-사랑하다
- ㄹ. 심심하다-외롭다-고독하다
- ㅁ. 답답하다-억울하다-한스럽다
- ㅂ. 싫어하다-경멸하다
- ㅅ. 놀라다-경악하다

또한 강현화(2005)는 감정표현 어휘 교수의 한 방법으로 감정의 정도 차이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예로서 수직선상에 감정의 강도별로 어휘를 나열해 보이기도 하였다.

63)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감정의 강도를 제시하려면 ‘슬픔’-‘풀이 죽다’로 이어지는 단계 보다는 ‘슬프다’-‘서글프다’-‘우울하다’ 등의 단계로 긴밀하게 제시하는 것이 감정 표현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된다. ‘슬픔’과 ‘풀이 죽다’는 정도성에 대한 설명 없이도 명확히 구분되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에서 ‘무섭다’와 ‘두렵다’는 어느 감정이 더 강한 것인가를 따지기에 애매한 면이 있으며 그 정도성을 구분하는 것이 각 감정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의 강도를 살펴보는 것이 감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감정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무섭다’와 ‘두렵다’는 오히려 각 감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대상을 중심으로 의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약함)-----:-----:-----:-----:-----→ (강함)

슬프다 애석하다 애통하다 비통하다

(약함)-----:-----:-----:-----:-----:-----→ (강함)

만족하다, 흐뭇하다-즐겁다, 재미있다-행복하다-신나다, 흥겹다-เบิก차다, 감격하다

위에서 제시한 김은영(2004)과 강현화(2005)의 어휘는 각 목록이 유사한 감정을 드러내는 어휘군 안에서 정도성을 제시하고 있어 어휘 간에 의미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한국인 화자가 보았을 때 대부분 그 정도성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감정의 정도성 문제는 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거한 일치된 목록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어휘 자료로 구축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감정표현 어휘가 정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정도성이 감정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본 특성이 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감정표현 어휘의 정도성은 유사한 감정표현 어휘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라 생각된다.

3.2.2. 연결성

감정표현 어휘의 또 다른 의미적 특징으로는 연결성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유사 감정표현 어휘 간의 정도성 문제 역시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적 연결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감정의 정도에 따라 어휘가 분화될 수 있고 이렇게 분화된 어휘는 의미적으로 연결성을 지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는 반대로 연결성을 가진 감정 어휘는 의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도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어

졌든 대부분의 감정표현 어휘는 다른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의미 연접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다음 (22)ㄱ-ㄴ의 예문에는 모두 ‘아쉽다’가 사용되어 있다. (22)ㄱ에는 요즘 돈이 없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아쉽다’를 통해 표현되고 있고 (22)ㄴ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 조금은 슬프고 서운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22)ㄷ에서는 어머니께 받은 소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때의 아깝고, 서글프고, 서운한 마음이 ‘아쉽다’로 나타난다. 이처럼 ‘아쉽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 다른 감정표현 어휘들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아쉽다’는 모든 문맥에 걸쳐 항상 무언가가 없거나 부족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아쉽다’의 의미가 ‘서운하다’, ‘섬섬하다’, ‘아깝다’ 등의 어휘와 의미적으로 맞닿아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이들 어휘로 바뀌어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 (22) ㄱ. 나는 요즘 돈이 아쉽다.
 ㄴ. 나는 그 사람과 헤어지기가 아쉬웠다.
 ㄷ. 어머니께 받은 반지를 남에게 팔기가 아쉬웠다.

다음의 예 역시 감정표현 어휘가 가지는 의미의 연접성을 보여 준다.

- (23) ㄱ. 타향살이가 서럽다.
 ㄴ. 비가 오니 웬지 우울하다.
 ㄷ.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에 홀로 남은 나는 서글펐다.

(23)ㄱ-ㄷ의 ‘서럽다’, ‘우울하다’, ‘서글프다’는 각각 원통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데, 어감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슬프다’라는 어휘 하나로 의미를 아우를 수 있다. 즉, ‘서럽다’, ‘우울하다’, ‘서글프다’는

모두 ‘슬프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각각의 어휘는 ‘슬프다’와 의미 연결성을 가지며 ‘슬프다’의 의미를 포함한 다른 어휘와도 의미 연결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 연결성은 감정표현 어휘들 간에 의미 혼동을 일으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결성은 서로 다른 감정표현 어휘를 유사 어휘군으로 묶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하나의 어휘에 대한 의미를 기본으로 다른 어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3.2.3. 인과성과 피동성⁶⁴⁾

감정은 자극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정신적 상태라는 점에서 인과성을 지닌다. 이러한 인과성은 감정표현 어휘의 특징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감정표현 어휘는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24) ㄱ. 영화는 친구의 편지를 받고 기뻐다.
 ㄴ. 나는 친구가 없어서 늘 외롭다.
 ㄷ. 길이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혼자 집에 가기가 무섭다.
 ㄹ. 친구의 사고 소식으로 인해 나는 하루 종일 우울했다.

위의 예문에서는 이러한 인과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4)ㄱ-ㄹ에는 ‘기쁘다’, ‘외롭다’, ‘무섭다’, ‘우울하다’라는 감정이 발생된 원인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은 것’, ‘친구가 없는 것’, ‘길이 캄캄한 것’, ‘친구의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이 각 감정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동성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개념이다.

64) 감정표현 어휘의 인과성과 피동성은 김홍수(1989)와 김은영(2004)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다음의 (25)ㄱ-ㄴ은 (24)ㄱ-ㄴ의 예문을 사동문으로 환언한 것인데 사동문의 형태로도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동문에서는 감정의 경험주가 피사동주로 실현되기 때문에 감정표현 어휘는 피동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감정표현 어휘는 인과성과 함께 피동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 (25) ㄱ. 친구의 편지는 영희를 기쁘게 했다.
 ㄴ. 친구가 없는 것은 나를 늘 외롭게 한다.
 ㄷ. 길이 캄캄한 것이 집에 혼자 가는 것을 무섭게 만든다.
 ㄹ. 친구의 사고 소식은 나를 하루 종일 우울하게 만들었다.

감정표현 어휘가 가지는 피동성의 특징은 대부분의 감정표현 어휘가 ‘-어지다’나 ‘-게 되다’와 같은 피동 구문과의 결합이 자유롭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26)ㄱ-ㄴ은 감정표현 어휘가 피동구문으로 실현된 예이다.

- (26) ㄱ. 갑자기 가진 게 없는 내 처지가 서러워졌다.
 ㄴ.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웬지 슬퍼진다.
 ㄷ.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게 된다.

이와 같은 감정표현 어휘의 인과성과 피동성은 감정 발생의 원인이 문장 상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이다. 앞서 3.1.3.항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감정표현 어휘 구문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명사구나 명사절, 부사절은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므로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나는 기뻐다’, ‘나는 외롭다’ 등과 같이 원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발화 상황 속에 어떤 원인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2.4. 소극적 통제성⁶⁵⁾

감정은 인간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즉, 감정은 계획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으며 마음대로 통제하기 힘든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감정의 특징은 감정표현 어휘 역시 비의도성과 비통제성의 의미를 가지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문은 비문이 된다.

- (27) ㄱ. *나는 {계획적으로, 일부러} {슬퍼졌다, 행복해졌다...}
 ㄴ. 나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슬퍼졌다, 행복해졌다...}

(27)ㄱ에서 감정표현 어휘는 ‘계획적으로’, ‘일부러’와 같은 어휘와는 같이 사용되지 못한다. 감정 발생이라는 것이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27)ㄴ과 같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등의 비의도적 맥락을 더해주었을 때는 의미가 통하게 된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감정표현 어휘는 ‘열심히’와 같이 주체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부사어와는 결합할 수 없다.

- (28) *나는 열심히 {무서워했다, 서글퍼했다...}.

이러한 비의도성의 의미적 특징은 감정표현 어휘의 서법 제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정표현 어휘는 주체가 어떤 일을 발생시키려는 의지와 통제성의 의미를 전제로 하는 서법과는 어울려 쓰이지 못한다⁶⁶⁾. 가장 대표적

65) 소극적 통제성은 김홍수(1989), 임은하(1998)에서 다룬 바 있다.

66) 채영희(1993)에서 명령(시킴)은 청자에게 화자가 바라는 행위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언어표현이라고 했다. 따라서 화자가 바라는 행위 내용이란 결국 화자의 의도가 된다고 하였는데 명령문의 서술어는 화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청자가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동사로 [+동작]과 [+의지제어] 자질을 가져야 한

인 것으로 명령법과의 결합 제약을 들 수 있다.

- (29) ㄱ. *시험을 못 봤으니 아쉬워해라.
 ㄴ. *비가 오면 우울해해라.
 ㄷ. *그 사람이 너를 무시하니 서운해해라.

감정이라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감정 경험주 역시 자신이 느끼고 싶다고 하여 감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발생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정 경험주가 아쉬워하고 싶다고 해서 아쉬운 감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감정의 발생이 당위적인 상황에서는 명령법이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실현되기도 한다.

- (30) ㄱ. 네가 한 일을 부끄러워해라.
 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쳤으면 좀 미안해해라.
 ㄷ.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좀 기뻐해라.

위와 같이 청자가 어떤 감정을 마땅히 느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감정을 느끼지 않음을 나무라듯이 이야기할 때는 감정표현 어휘와 명령법이 자연스럽게 실현된다⁶⁷⁾⁶⁸⁾.

또한 이미 발생한 감정의 조절에 관한 의미를 전달할 때는 명령법의 실현이 자연스럽다. 감정을 생기게 하는 것은 감정 경험주가 통제하기 힘든

다고 하였다.

67) 김세중(1994)에서는 ‘좋아하다’, ‘기뻐하다’, ‘미안해하다’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여서 청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는 예외적 동사는 명령문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68) 또한, 실제로 청자가 해당 감정을 느끼는데도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 ‘기쁘면 기뻐해라.’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것이지만 감정이 이미 발생한 경우 그 감정의 정도나 표현 방법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문은 비문이 되지 않는다.

- (31) ㄱ. {마음껏, 적당히, 진심으로} 기뻐해라
 ㄴ. 그만 {섭섭해 해라, 슬퍼해라}.

그리고 (31)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감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감정표현 어휘는 명령법 중에서도 부정명령법과는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다음 (32)의 예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32) {기뻐하지, 슬퍼하지, 섭섭해하지} 마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정표현 어휘는 감정의 발생이 감정 경험주나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의도적, 비통제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주체의 의지와 관계되는 어휘나 서법과의 결합에서 제약을 가진다. 그러나 감정의 발생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적 상황이나 이미 발생한 감정을 자제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정이 통제 가능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적 특징의 하나로 제한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통제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적 특징은 감정표현 어휘가 가지는 의미나 서법 제약에 대한 설명적 근거가 된다. 특히, 감정표현 어휘가 가지는 정도성과 연접성이라는 의미 특징은 4장의 분석대상이 되는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의 감정표현 어휘들이 각 어휘군 내에서 가지는 의미적 관계와 변별적 특징을 기술하는 개념으로서 활용될 것이다.

IV.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와 사용맥락 분석

본 장에서는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의 네 가지 감정 유형에 속하는 감정표현 어휘를 대상으로 각 유형의 대표적 어휘들이 가지는 의미와 전형적인 사용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감정 유형에 해당하는 어휘는 기본 어휘와 이차 어휘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의미에 대한 논의는 기본 어휘의 의미 바탕 위에 이차 어휘의 의미가 형성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차 어휘의 의미는 기본 어휘의 의미에 다른 감정의 의미가 혼합되거나 감정의 강도가 달라지거나 감정의 대상 등이 달리 형성되었음을 중심으로 설명될 것이다.

또한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은 한국인 화자 말뭉치 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각 어휘에 대한 말뭉치 자료는 용례에 나타난 감정 발생의 원인과 감정의 대상을 기준으로 유형화될 것이다. 이는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원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자극 해석에 따라 그 유형이 결정된다고 하는 감정의 특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즉, 감정 발생의 원인과 대상을 유형별로 묶을 수 있다면 한국인들이 어떤 사건을 접하여 해당 감정을 느끼게 되고 해당 감정 어휘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상황적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감정 경험의 표현 양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국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준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4.1. ‘기쁨’의 감정표현 어휘군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에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신나다’, ‘흥겹다’ 등이 있다. 앞의 2.2.2.항에서 밝혔듯이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형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기본 어휘는 ‘기쁘다’이며, ‘즐겁다’, ‘행복하다’, ‘신나다’, ‘흥겹다’는 이차 어휘가 된다.

‘기쁘다’는 어휘의 빈도나 중요도 면에서 보았을 때 일찍 학습되고 쉽게 학습되어야 하는 어휘이다. 그러나 ‘기쁘다’는 중·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기쁘다’ 관련 오류는 대부분 ‘즐겁다’와 같은 이차 어휘를 사용해야 더 적절한 맥락에서 ‘기쁘다’를 사용하는 데 있다⁶⁹⁾. 예를 들어 (33)ㄱ, ㄴ과 같은 문장에서는 ‘기쁘다’를 사용하면 문장의 의미가 어색해지는데 ‘즐겁다’나 ‘신나다’, ‘흥겹다’ 등과 같은 어휘를 사용해야 원래 의도했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33) ㄱ. 지난 주말을 {*기쁘게, 즐겁게} 보냈어요.
 ㄴ. 음악을 듣고 정말 {*기뻐서, 신나서, 흥겨워서} 춤을 췄어요.

(33)ㄱ, ㄴ의 예와 같이 ‘기쁘다’는 다른 이차 어휘들의 의미적 근간이 되면서도 이들과 바꾸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감정의 기본 어휘 중 가장 오류가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기쁨’의 이차 어휘들은 ‘기쁘다’와 달리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아

69) 이와 같은 경향은 2.3.절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9번과 10번의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각각 ‘즐겁다’와 ‘신나다’ 또는 ‘흥겹다’ 대신 ‘기쁘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래 (34)ㄱ, ㄴ에서 ‘신나다’와 ‘즐겁다’, ‘즐겁다’와 ‘행복하다’는 문장 내에서 유사한 의미를 드러낸다. (34)ㄱ에서 ‘신나다’와 ‘즐겁다’는 모두 친구와 놀면서 느끼는 재미와 기쁨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34)ㄴ의 ‘즐겁다’와 ‘행복하다’는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스러움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물론 이들 어휘가 드러내는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⁷⁰⁾. 그러나 이들이 가지는 의미의 연접성은 유사한 사용맥락에서의 구분을 어렵게 하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기쁨’의 어휘의 의미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 (34) ㄱ. 어제 친구들과 {신나게, 즐겁게} 놀았어요.
 ㄴ. 저는 지금 한국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쁘다’와 ‘즐겁다’, ‘행복하다’, ‘신나다’, ‘흥겹다’를 대상으로 각 어휘가 가지는 의미와 사용맥락에 대해 논하고 이들의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논의에 앞서 이들 어휘가 사전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표 20> ‘기쁨’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사전적 의미

어휘		표준국어대사전 ⁷¹⁾	연세한국어사전 ⁷²⁾
기본 어휘	기쁘다	마음에 즐거운 느낌이 있다.	어떤 사실이나 일에 대해서 즐겁고 흡족하다. 마음에 느낌이 좋다
	즐겁다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호뭇하고 기쁘다.	1. (무엇이 마음에 들어) 기쁘다, 만족스럽다 2. (‘즐거운’의 꼴로 쓰여) 마음에 들거나 기쁘거나 흡족하다
	행복하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호뭇하다.	즐겁고 만족스럽고 호뭇하다

70) 이들 어휘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4.1.1-4.1.5.항의 논의를 참조.

	신나다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아지다	1. 기분이 아주 좋아지다 2. ('신나게'의 꼴로 쓰이어) 기분이 아주 좋아. 흥분해서 ('신나게'의 꼴로 쓰이어) 막히지 않고 시원하게, 거칠 것 없이, 마음대로
	흥겹다	매우 흥이 나서 즐겁다	기분이 좋아져서 마음이 들뜨고 재미가 있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휘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기쁘다'와 '즐겁다' 등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의의 순환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사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이지혜, 2008 등), 이는 어휘들 간의 유사성만을 더 부각시킬 뿐 의미의 변별과 어휘 사용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쁘다'를 비롯한 '즐겁다', '행복하다', '신나다', '흥겹다'의 분석을 통해 어휘가 드러내는 의미와 전형적인 사용맥락을 밝히도록 하겠다.

4.1.1. '기쁘다'

다음은 '기쁘다'가 사용된 예문이다. (35)ㄱ-ㄷ에서는 감정의 경험주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꿈을 이루게 되어서, 아기가 태어나서 기분이 좋음을 '기쁘다'로 표현하고 있다.

71)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72)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35) ㄱ.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ㄴ. 드디어 내 꿈을 이루게 돼 정말 기뻐다.
 ㄷ. 아기가 태어나자 산모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위와 같이 ‘기쁘다’는 어떤 것을 ‘얻음’으로써 느껴지는 매우 기분 좋은 감정을 의미한다⁷³⁾. 위의 예문들을 다시 ‘얻음’의 의미로 해석해보면, (35) ㄱ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다시 만났으므로 그 사람을 얻은 것으로, (35) ㄴ에서 ‘나’는 꿈을 성취하였으므로 원하던 바를 얻은 것으로, (35) ㄷ에서 산모는 아이를 얻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쁘다’의 의미는 한국어 화자의 말뭉치 용례 속에서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표 21>은 말뭉치 분석을 통해 ‘기쁘다’가 나타나는 용례 337개⁷⁴⁾를 감정 발생의 주요 원인이나 대상별로 분류한 것이다⁷⁵⁾.

73) 김성화(2004)에서는 ‘기쁘다’가 어떤 것을 받거나 얻음으로써 기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얻음’의 의미는 ‘기쁘다’의 모든 용례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74) 실제로 분석의 대상이 된 용례는 557개였으나 이중 ‘기쁘다’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용례와 앞 뒤 문장에서 중복되어 나타난 용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에 제시하는 감정표현 어휘의 용례 분석 역시 실제 검색된 용례 중 중복 문장과 맥락 파악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75) <표 21>의 항목 중 ‘원인, 대상’은 감정 발생의 원인과 대상을 분석한 것으로 해당 어휘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맥락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항목에는 ‘원인’과 ‘대상’을 함께 표기하였지만, 해당 어휘가 주체 중심적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 ‘원인’이 주요 분석 기준이 되고, 대상 중심적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 ‘대상’이 주요 기준이 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감정표현 어휘는 대부분 주체 중심적 감정표현 어휘에 해당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원인’이 사용맥락 분석의 기준이 되지만, 몇몇 어휘의 경우 대상 중심적 용법으로도 자주 사용되므로 ‘대상’을 항목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의 항목 중 ‘핵심어’는 어휘의 사용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어휘를 정리한 것인데, 용례에서 사용된 어휘 중 일종의 주제어를 뽑은 것이다. ‘구체적인 맥락’은 어휘가 사용된 용례를 요약한 것이며, ‘동반출현 어휘’는 분석 대상이 되는 어휘와 한 문장 내에 나타난 감정표현 어휘를 조사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쁘다’의 용례에서 ‘기쁘다’가 ‘기쁘고 반갑다’라고 제시된 경우, ‘반갑다’는 ‘기쁘다’의 동반출현 어휘가 된다. 동반출현 어휘는 어휘가 드러내는 감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표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주 사용형태’는 자주 나타나는 어휘의 활용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형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시하였다.

<표 21> ‘기쁘다’의 사용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성취	32% (108/337)	꿈 소망 성공 합격 결실 마침내	- 대학 합격 - 취직 함 - 소원이 이루어짐 - 시험에 통과함 - 직장에서의 승진 -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됨	-	-
		우승 승리	- (운동선수) 소속 팀의 승리 -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이김	-	-
만남	13% (45/337)	만남 찾아옴 맞이함	- 가족이 돌아옴 -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만남 - 명절에 손자손녀가 집에 옴 - 좋은 인연을 만남 - 유명인이 팬들과 만남	반갑다	만나게 돼 기쁘다
문제 해결	11% (36/337)	사면 석방 해방 종전 완쾌	- 아픈 사람이 건강해짐 - 식민지 국가에 해방이 옴 - 전쟁이 끝남 - 학비 문제가 해결됨 -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석방됨 - 오해받던 일이 풀림 - 잃어버린 물건을 찾음	-	-
인정	9% (31/337)	칭찬 인정 상 평가 격찬	- 칭찬을 받음 - 상을 받음 - 능력을 인정받음 - 한 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음	기분이 좋다 만족스럽다 영광스럽다	-
효도	5% (18/337)	엄마 아빠 부모	-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받음 -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심	-	(부모를) 기쁘게 하다
탄생	4% (12/337)	탄생 새 생명 출산	- 아기를 가짐 - 아기가 태어남	감격스럽다	-
선물	4% (12/337)	새 옷 생일선물	- 선물을 받음 - 갖고 싶던 물건을 갖게 됨	-	-

‘기쁘다’의 용례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성취’로 인한 감정이었다. 이

때 ‘성취’라는 것은 꿈이나 목표를 이루었을 때, 하는 일이 잘되었을 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성취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취에 대한 감정까지 ‘기쁘다’로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맥락으로는 대학 합격, 취직, 승진, 팀의 승리 등을 들 수 있다.

‘성취’와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나 빈도수가 높아 따로 정리한 용례도 있었는데 ‘인정’으로 인한 기쁨이 바로 그것이다. ‘인정’의 경우 감정 경험주가 자신의 능력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 칭찬을 듣거나 상을 받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성취’의 하위 부류로 구분될 수 있으나 ‘칭찬’, ‘상’, ‘인정’이라는 어휘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용례가 많이 이를 따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기쁘다’가 자주 사용된 것은 만남의 상황이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을 때, 친구나 가족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등의 상황에서 ‘기쁘다’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⁷⁶⁾.

‘문제 해결’ 역시 ‘기쁘다’의 주요 사용맥락으로 나타났다. 전쟁이나 식민지 시대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나 개인이 가지고 있던 돈 문제, 건강 문제 등이 해결되었을 때 ‘기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는 것, 아이가 생기거나 태어나는 것, 선물을 받는 것 등도 ‘기쁘다’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21>에 제시된 ‘기쁘다’의 맥락 외에도 다음의 예문을 통해 ‘기쁘다’의 의미적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76) 이때의 ‘기쁘다’는 ‘반갑다’의 의미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반갑다’ 역시 ‘기쁨’의 감정 표현어휘로서 ‘기쁘다’와 유의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반갑다’는 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나 기대했던 일이 생겼을 때 등 매우 한정적인 맥락에서의 기쁨을 의미하는 어휘이다. ‘기쁘다’와 ‘반갑다’는 모두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 좋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사로는 ‘만나서 기쁩니다’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더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보다 격식을 차린 만남의 맥락(환영사, 축하 등)에서는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36) ㄱ.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는 법이다.
ㄴ.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났다.

(36)ㄱ에서 보듯이 ‘기쁘다’는 ‘슬프다’와 반의 관계를 이루어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의미로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의 형태로 자주 쓰인다. 또한 (36) ㄴ처럼 기쁜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너무 즐거운 나머지 펄펄 울었다’와 같은 표현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쁘다’는 ‘즐겁다’와 달리 감동을 줄 수 있는 종류의 강한 감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쁘다’는 감정의 경험주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나타낸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과 ‘기쁨’의 감정은 매우 보편적인 것이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은 ‘기쁘다’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기쁘다’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감정을 나타내므로⁷⁷⁾, (37)ㄱ, ㄴ과 같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는 맥락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적 제약을 가진다.

- (37) ㄱ. *나는 한국에서 기쁘게 살고 있다.
ㄴ.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보냈어요.

한국어 학습자들은 ‘기쁘다’의 이러한 의미적 특징을 알지 못해 (37)ㄱ, ㄴ과 유사한 맥락에서 ‘기쁘다’를 사용하는 오류를 자주 범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쁘다’가 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시간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경험한 후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쁘다’의 의미적 특징이다.

77) 임지룡(2003)에서도 ‘기쁨’은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강렬한 감정이라고 하였다.

4.1.2. ‘즐겁다’

‘즐겁다’는 ‘기쁨’의 이차 어휘로서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 기쁘고 만족스럽다’는 의미를 지닌다⁷⁸⁾. ‘즐겁다’가 표현하는 기쁨의 의미는 구체적으로는 경험주가 어떤 일을 즐겁으로써 느끼게 되는 기분 좋은 감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즐겁다’의 어원이 ‘즐기다’에 있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데⁷⁹⁾ 이런 의미에서 ‘즐겁다’는 ‘기쁘다’의 의미에 ‘재미’의 의미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일을 즐긴다는 것은 그 일에 재미나 흥미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⁸⁰⁾.

또한 ‘즐겁다’가 어떤 일을 즐겁으로써 얻어지는 감정이라는 사실은 ‘기쁘다’와의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데, 이는 다음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8) 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기뻐다}.
 나.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즐겁게, *기쁘게} 놀았다.
 다. 주말 {즐겁게, *기쁘게} 보내세요.

(38)가-다에서 ‘즐겁다’는 주로 경험주가 어떤 활동을 직접 경험하거나 시간을 보냄으로써 느껴지는 기쁨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같은 문장에서 ‘즐겁다’ 대신 ‘기쁘다’를 사용하면 비문이 되어버린다.

말뭉치 조사에서도 역시 ‘즐겁다’는 어떤 활동이나 시간, 날을 즐기는 것과 관련된 용례에서 자주 나타났다. <표 22>는 ‘즐겁다’의 말뭉치 분석 결과이다⁸¹⁾.

78) <표 20>의 사전적 의미 참조.

79) ‘즐겁다’는 동사 ‘즐기다’에 접미사 ‘-업-’이 연결되어 파생된 형용사이다.

80) 실제로 ‘즐겁다’가 사용된 용례는 ‘재미있다’로 바뀌어도 어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즐겁다’의 의미에 ‘재미있다’의 의미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81) 341개의 용례를 분석하였다.

<표 22> ‘즐겁다’의 사용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활동	56% (191/341)	공부 독서 가사 여행 일 영화 이야기 만남 노래 춤	- 좋아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함 - 취미 활동을 함 - 여행을 함 - 책을 읽거나 글을 씀 - 집안일을 함 - 영화를 봄 -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눔 -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냄 - 노래하고 춤을 춤	-	(활동)이 즐겁다 즐거운 (활동) 즐겁게 (활동)하다
		놀다 놀이 뛰놀다	- 친구들과 놀 - 물놀이 - 널뛰기, 눈싸움, 게임	-	즐겁게 놀다 즐거운 놀이
생활 날	26% (89/341)	생활 삶 인생	- 기분 좋고 재미있게 삶 - 기대로 가득 찬 유학 생활 - 기숙사, 군, 학교생활	행복하다 재미있다	즐겁게 살다 즐겁게 (날을) 보내다, 즐거운 생활, 하루, 휴일, 주말, 날
		휴일 주말 설날 하루	- 휴가, 명절, 방학 등을 보냄 - 가족,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냄		
감각	5% (16/341)	눈 귀 입	- 음악을 들음 - 포도주를 마심	-	눈, 귀, 입이 즐겁다

‘즐겁다’가 가장 많이 나타난 용례는 감정 경험주가 ‘독서’, ‘공부’, ‘여행’, ‘산책’, ‘노래’, ‘글쓰기’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였다. 감정 경험주는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그 활동을 ‘즐겁게’ 한다고 표현하거나 그 활동이 ‘즐겁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에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때의 만남은 ‘기쁘다’의 주요 원인이었던 만남과는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 예를 들어, 어떤 만남을 ‘즐겁다’라고 표현한다면 이때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난 순간 자체의 기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야기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기분 좋고 재미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 만나서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만나서 즐거웠습니다’와 같은 인사말을 건넬 수 있다.

또한, ‘즐겁다’는 감정 경험주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맥락에서 ‘즐겁게 놀다’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역시 활동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즐겁다’가 많이 사용된 맥락은 삶이나 생활, 특정 절기와 날, 시간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나 그 시간 중에 했던 활동이 즐거웠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즐겁게 보내다’, ‘즐겁게 지내다’, ‘즐겁게 살다’, ‘즐거운 하루, 시간, 휴일’ 등의 형태로 자주 나타났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인사말 중에서 ‘○○ 즐겁게 보내세요, 즐거운 ○○ 보내세요’가 이미 굳어진 표현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즐겁다’는 대부분 감정의 경험주가 시간을 요하는 활동을 직접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 외에도 ‘즐겁다’만이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이 있었다. 바로 ‘눈’, ‘귀’, ‘입’을 통해 얻는 감각적인 쾌감과 관련된 감정 표현이었다⁸²⁾. (39)ㄱ, ㄴ은 말뭉치에 나타난 ‘즐겁다’의 용례인데, ‘귀를 즐겁게 하다’, ‘눈을 즐겁게 하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82) Ekman(1980)은 기분 좋은 감정에 대한 연구에서 감각상의 쾌락이 가져오는 감정을 언급한 바 있다. 눈, 귀, 코, 혀, 피부의 오관으로 느끼는 쾌감이 보편적인 기쁨의 감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져줄 때, 아름다운 저녁놀을 바라보는 이의 눈에 즐거움을 주는 광경, 파도소리, 시냇물이 바위 위를 흘러가는 소리,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갖가지 음악이 귀에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Tomkins(1962)는 감각상의 쾌락을 감정으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Ekman(1980)은 이러한 것들도 감정이라고 보았다.

- (39) ㄱ. 신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림이요, 연극이요, 신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음악이었다.
 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의 개성적인 치장이 눈을 즐겁게 해 줘요.

이와 같이 시각적, 청각적 자극으로 인해 기쁨을 느끼는 경우, 그 감정을 ‘눈, 귀가 즐겁다’, ‘눈, 귀를 즐겁게 하다’ 등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시각적 즐거움은 주로 ‘그림’이나 ‘경치’ 등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으로서 발생하고, 청각적 즐거움은 ‘음악’ 등 아름다운 소리를 들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말뭉치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맛볼 때는 ‘입이 즐겁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시각, 청각, 미각 등의 감각으로 인해 기쁨을 느낄 때는 ‘기쁨’의 감정표현 어휘 중 ‘즐겁다’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⁸³⁾.

4.1.3.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쁨의 의미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⁸⁴⁾. 따라서 ‘행복하다’의 의미는 특정 사건에 대한 감정 경험을 나타내는 ‘기쁘다’나 ‘즐겁다’와는 구분된다⁸⁵⁾.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족감이 경험되어야 하는데⁸⁶⁾, 이러한

83) 이때 역시 ‘눈, 귀, 입이 기쁘다’라는 표현은 비문이 되므로 ‘눈, 귀, 입이 즐겁다’는 ‘즐겁다’만이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굳어진 표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84) 이러한 감정을 정조(情操, sentiment)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조는 주로 고등정신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영속적인 감정적 태도를 의미하는데 일반 감정과는 달리 본능적인 욕구와 직접 관계가 없으며 신체의 변화도 뚜렷하지 않다(김응모, 2002: 26).

85) Arnold and Reynolds(2003)는 ‘행복’이 운동 팀이 이기거나 식사, 쇼핑을 하는 등의 특정 사건으로부터 얻어지는 감정과는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행복은 전형적인 감정에 비해서 더 지속적인 것으로서, 단기간의 기쁨을 유발하는 사건을 단순히 합친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이유로 ‘행복하다’는 주로 ‘삶’, ‘생활’, ‘인생’과 같은 명사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표 23>은 ‘행복하다’의 말뭉치 분석 결과이다. ‘행복하다’는 실제로 말뭉치 용례를 살펴보았을 때 그 원인에 해당하는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았다. 상당수의 용례에서 ‘행복하다’는 앞뒤의 맥락 없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와 같이 사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말뭉치 용례 중 행복함의 원인이나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로 제시하였다⁸⁷⁾.

<표 23> ‘행복하다’의 사용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삶의 만족	28% (82/295)	생활 인생 삶	- 정신, 물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 편안하고 안락한 삶 -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인생 - 성공한 인생 - 건강한 삶	만족하다 감사하다 편안하다	행복하게 살다, 지내다 행복한 생활, 삶, 생활
가정	12% (34/295)	가정 가족	- 가족과 함께 지냄 - 좋은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음 -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삶	즐겁다	행복한 가정
인간 관계	7% (22/295)	사랑 친구	- 사랑에 빠짐 -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 - 늘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음	-	-
결혼	5% (15/295)	결혼	-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함	-	행복한 결혼

‘행복하다’는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맥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86) <표 20>에서 ‘행복하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만족’과 ‘호뭇함’이 주요 의미로 나타나 ‘행복’이 ‘만족감’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7) 295건의 용례를 조사하였다.

이때 삶에 대한 만족이란 대체로 편안함과 안락함의 감정을 동반하는 것으로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상태, 건강한 상태, 그리고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감정 경험주의 가치관에 비추었을 때 만족스러운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때 ‘행복하다’는 ‘삶’, ‘인생’, ‘생활’, ‘살다’, ‘지내다’ 등과 항상 공기하여 나타났다.

‘행복하다’가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맥락은 가정생활의 맥락이었다. ‘행복하다’는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감정으로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또는 가족들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하고 있었다. 주로 좋은 배우자와 함께 아들, 딸을 낳고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하다’는 ‘애인’이나 ‘친구’와의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에 빠졌을 때의 감정, 내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할 때의 감정이 ‘행복하다’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비슷하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맥락에서도 ‘행복하다’가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때 결혼 생활은 삶의 만족과 사랑, 가족의 맥락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혼’으로 따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 ‘행복한 세상’ 등의 표현도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역시 ‘행복하다’는 가치 감정으로서는 어떤 사회나 나라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된 것이었다.

즉, ‘행복하다’는 삶이나 인간관계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얻어지는 안정적인 기쁨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4.1.4. ‘신나다’

‘신나다’는 앞에서 살펴본 ‘즐겁다’와 매우 유사한 쓰임을 가지는 어휘이다. 예문 (40)ㄱ, ㄴ에서 ‘신나다’와 ‘즐겁다’는 바꾸어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는 ‘신나다’와 ‘즐겁다’ 모두 재미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0) ㄱ. 오늘 친구들과 {신나게, 즐겁게} 놀았다.
 ㄴ. 노래에 맞춰 아이들은 {신나게, 즐겁게} 춤을 췄다.

그런데 다음의 예문에서는 ‘신나다’를 ‘즐겁다’로 바꾸어 쓰면 그 어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1) ㄱ. 가: “내일부터 방학이다.”
 나: “와! {신난다, *즐겁다}.”
 ㄴ.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즐겁게, *신나게} 책을 읽었다.

(41)ㄱ에서 감정 경험주는 내일부터 방학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감으로 들뜬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즐겁다’를 쓰면 비문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즐겁다’가 어색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즐겁다’는 어떤 활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 얻어진 기쁨을 의미하므로 아직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즐겁다’라고 반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⁸⁸⁾. 또한 (41)ㄱ은 방학이 오는 것에 대한 흥분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즐겁다’의 경우에는 강한 ‘흥분’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⁸⁹⁾.

88) 하지만 ‘방학은 즐겁다’, ‘내일부터 즐거운 방학이다’와 같이 방학의 일반적인 속성을 묘사하는 맥락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방학이라고 하더라도 ‘즐겁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89) ‘신나다’가 흥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표 20>에 제시된 사전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1)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책상 앞에 앉전히 앉아 ‘즐겁게’ 책을 읽는 것은 가능하나 ‘신나게’ 책을 읽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⁹⁰⁾. 이때 ‘신나다’가 어색한 이유는 ‘책상 앞에 앉전히 앉아’라는 말 때문인데 ‘신나다’의 경우에는 정적인 활동보다는 동적인 활동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신나다’에 대한 말뭉치 분석 결과이다⁹¹⁾.

<표 24> ‘신나다’의 사용 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노래 춤	17% (21/127)	노래 춤 연주	- 음악을 들음 - 노래를 부름 - 춤을 춤 - 악기를 연주함	흥이 나다	신나는 노래, 춤 신나게 춤추다, 노래하다 신이 나서 춤추다
활동	17% (21/127)	놀이	- 친구들과 놀 - 게임과 놀이 - 야유회에 감	-	신나게 놀다 신나는 놀이
		운동 응원 여행 놀이기구	- 운동 경기 - 놀이기구를 탐 - 여행	-	-
기대	12% (15/127)	-	- 기다리던 때가 옴 (방학 등) - 재미있는 일을 계획함	-	신나는 일 “신난다.”
일이 잘됨	8% (10/127)	-	- 시험 점수가 계속 오름 - 돈이 계속 모임 - 가게에 주문이 많이 들어옴	-	-
이야기	13% (17/127)	이야기 떠들 자랑	- 흥분해서 이야기함	-	신나게 떠들다 신이 나서 말하다
달림	10% (13/127)	자전거 속력 땀	- 자전거를 탐 - 빨리 뛰어감	-	신나게 달리다

90) 물론 이 경우에도 감정경험주가 책을 읽다보니 아주 재미가 있어서 열성적으로 책에 빠져들게 된 경우에는 ‘신나다’를 쓸 수 있으나, 그러한 정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맥락에서 ‘신나다’는 매우 어색하게 느껴진다.

91) 총 127건의 용례를 조사하였다. 용례에는 ‘신(이) 나다’가 포함되어 있다.

싸움	7% (9/127)	싸움 때림	- 싸우거나 맞거나 두들겨 팼	-	신나게 싸우다, 맞다
----	---------------	----------	------------------	---	-------------

<표 24>의 말뭉치 용례에서 ‘신나다’는 노래, 춤의 맥락과⁹²⁾ 노는 것과 관련된 맥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했던 ‘즐겁다’의 활동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즐겁다’는 더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던 것에 반해 ‘신나다’는 신체적인 활동과 더 연관되어 나타난다. ‘신나다’의 활동에는 주로 운동을 하거나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같은 활동이 많았고 독서나 공부와 같은 활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노래와 춤, 노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서는 ‘신나다’ 대신 ‘즐겁다’가 사용되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앞서 (40)의 예문에서도 이미 확인하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나다’와 ‘즐겁다’는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에게 의미 구별이 쉽지 않은 어휘로 인식되기도 한다.

‘신나다’와 ‘즐겁다’의 가장 주요한 차이는 바로 ‘흥분’의 의미에 있다. ‘신나다’는 ‘즐겁다’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즐겁으로써 얻는 감정이지만 ‘흥분’의 의미가 매우 강하게 복합되어 있는 어휘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일한 맥락에서 ‘신나다’를 사용하는 경우 ‘흥분’의 감정이 훨씬 강하게 드러나며, 감정의 결과로서 신체적 움직임이 수반되는 경우도 많다.

‘신나다’와 ‘즐겁다’의 사용맥락은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활동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활동은 즐거울 수 있지만 신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 기쁨을 주지만 흥분을 느끼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적인 활동으로 인한 즐거움을 ‘신나다’라고 표현하면 어색하다. 액션 영화를 홍보하는 문구에서도 ‘즐거운 액션’이 아니라 ‘신나는 액션’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2) ‘즐겁다’의 용례에서도 노래와 춤이 나타났지만 그 개수가 많지 않아 활동의 일부로 분류했었다. 그런데 ‘신나다’의 경우에는 ‘노래’와 ‘춤’의 빈도가 두드러져 이를 ‘활동’과 따로 분류하였다.

‘신나다’의 이러한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한 기대로서 흔히 ‘와! 신나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 역시 설명해 준다. 말뭉치 용례에서도 ‘신나다’가 어떤 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의미로 많이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 (42) ㄱ. 동생이 생긴다는 말에 아이들은 더 신이 났다.
 ㄴ. 봉애는 사나이에겐 실컷 극장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고 용돈도 달라고 하겠다면서 곱게 차리고 신나게 나갔다.

또한, ‘신나게 말하다’, ‘신나게 떠들다’ 등의 표현도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즐겼다는 의미보다는 아주 흥분하여 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신나다’의 용례 중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타났다. 이 경우는 ‘신나다’의 일차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기쁘다’를 비롯한 다른 ‘기쁨’ 감정표현 어휘들과 구분되는 용법이므로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 (43) ㄱ. 신나게 달리다
 ㄴ. 신나게 싸우다, 맞다, 두들겨 패다, 한바탕하다

‘신나게 달리다’는 자전거를 타거나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뛰는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또한, ‘신나게 싸우다, 맞다, 두들겨 패다’ 등 싸우거나 때리거나 맞는 장면에서도 ‘신나게’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 두 경우 모두 ‘신나다’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부 사전에서는 이를 ‘거침없이’, ‘막힘없이’, ‘마음대로’의 의미로 따로 기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이들 표현에서의 ‘신나다’ 역시 달리거나 때리는 행동에서 얻어지는 일종의 흥분된 쾌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나다’의 의미적 요소인 ‘흥분’이나 ‘신체적 활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신나다’는 ‘즐겁다’의 의미에 ‘흥분’의 감정이 혼합되어 있는 감정표현 어휘로서 강한 신체적 활동을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한 기대로 발생하는 감정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4.1.5. ‘흥겹다’

‘흥겹다’는 ‘기쁨’의 이차적 감정표현 어휘 중 가장 한정적이고 상황특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휘이다. ‘흥겹다’는 대부분의 경우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즐겁다’나 ‘신나다’로 대체되어 사용할 수 있는데 말뭉치 분석을 통해 ‘흥겹다’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특정적인 의미를 파악해보기로 하겠다⁹³⁾.

<표 25> ‘흥겹다’의 사용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노래 춤	51% (74/144)	우리가락 춤사위 판소리 풍물패 사물놀이 리듬 율동 음악	- 풍물패의 공연 - 사물놀이 연주 - 노래를 부름 - 음악에 맞춰 춤을 춤	-	노래, 춤이 흥겹다 흥겨운 노래, 음악... 노래를 흥겹게 부르다 노래가 흥겹게 들리다
잔치	16% (23/144)	축제 파티 명절	- 축제나 잔치가 벌어짐 - 명절의 분위기	들뜨다	흥겨운 축제, 분위기 잔치가 흥겹다 잔치가 흥겹게 벌어지다
놀이	10% (14/144)	민속놀이 놀이판 웃놀이	- 놀이를 함	-	흥겹게 놀다 흥겨운 놀이 놀이가 흥겹다

93) 총 144개의 용례를 조사하였다.

‘흥겹다’가 가장 많이 사용된 용례는 바로 노래와 춤과 관련된 감정 발생이었다. ‘흥겹다’는 총 51%의 용례에서 노래, 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즐겁다’나 ‘신나다’와는 달리 노래와 춤의 성격이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흥겹다’는 사물놀이나 민요, 판소리 등과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과 춤으로 인해 일어나는 유쾌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어휘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흥겹다’는 전반적인 음악과 춤에 대한 감정으로서, 팝송이나 캐럴과 같은 서양의 음악이나 힙합, 디스코와 같은 현대적인 춤과도 잘 어울린다. 그러나 팝송이나 현대적인 노래, 춤 등은 ‘즐겁다’나 ‘신나다’와도 잘 어울리는데 반해, 우리의 전통 음악과 춤의 정서는 ‘흥겹다’로서 표현했을 때가 ‘즐겁다’와 ‘신나다’에 비해 더 정확하게 느껴진다.

또한 ‘흥겹다’는 떠들썩한 축제나 잔치 분위기를 묘사할 때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보통 축제나 잔치에는 가무(歌舞)가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도 춤과 노래가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맞닿아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흥겹다’의 사용맥락으로 ‘놀이’가 나타났다는데, 이때도 역시 ‘지신밟기’, ‘웃놀이’ 등의 민속놀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흥겹다’가 우리의 전통적인 춤과 노래, 놀이에 대한 감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신나다’, ‘흥겹다’에 대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기쁨’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의미와 사용맥락, 변별적 특징을 정리해 보면 <표 26>과 같다.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어휘군을 모아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김광해, 1999), 그런 의미에서 <표 26>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 정보는 기존의 사전에서 부족했던 변별적 설명을 대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6> ‘기쁨’의 감정 표현 어휘군의 변별적 정보

어휘 특징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신나다	흥겹다
의미적 특징	중심 의미	기쁨	기쁨	기쁨	기쁨 즐거움	기쁨 즐거움
	부가 의미	-	재미	안정감	흥분	-
	감정 강도	-	-	-	강함	-
	정의	어떤 것을 얻음으로써 느껴지는 기분 좋은 감정, 순간적이고 강렬한 감정	시간을 요하는 활동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 감각 상으로 얻어지는 기쁨	삶이나 관계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얻어지는 안정적인 기쁨의 상태	주로 동적인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강한 즐거움과 흥분, 기대감으로 인해 흥분된 감정	주로 음악이나 춤으로 인해 얻어지는 어깨가 들쭉일 정도의 즐거움
	사용 맥락	성취, 성공 인정받음 문제가 해결된 자식이 효도함 아기가 태어남 선물을 받음	좋아하는 활동을 함 친구들과 놀 재미있게 생활함 휴일을 보냄 음악을 듣거나 음식을 먹음	삶의 만족 가족, 친구, 연인 관계에서 안정적인 기쁨을 누림	노래, 춤 신체적인 활동을 함 다가올 일을 기대함	노래, 춤, 놀이 축제, 잔치가 벌어짐
	제약	‘살다, 보내다, 놀다’ 등과 사용하지 못함	-	주로 ‘삶, 생활, 인생, 살다’ 등과 사용함	주로 동적인 활동과 어울림	주로 춤, 노래, 잔치 등에 대해서만 사용됨
통사적 특징	기본 구조	NP가 기쁘다 NP에/로 기쁘다 AdvP 기쁘다	NP가 즐겁다 NP에/로 즐겁다 AdvP 즐겁다	NP가 행복하다 NP에/로 행복하다 AdvP 행복하다	NP가 신나다 NP에/로 신나다 AdvP 신나다	NP가 흥겹다 NP에/로 흥겹다 AdvP 흥겹다
	활용형 특징	-	-	-	‘신나는’, ‘신나게’의 형태로 주로 활용됨	‘흥겨운’, ‘흥겹게’의 형태로 주로 활용됨
	굳어진 표현	기쁜 일과 슬픈 일	즐거운 OO 보내세요 OO 즐겁게 보내세요	-	신나게 달리다 신나게 떠들다	-
화용적 특징	문어 구어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사용 범위	-	-	-	윗사람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음	-

4.2. ‘슬픔’의 감정표현 어휘군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로는 ‘슬프다’, ‘서럽다’, ‘서글프다’, ‘우울하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슬픔’의 가장 원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기본 어휘는 ‘슬프다’이며 다른 어휘들은 특별한 종류의 슬픔을 드러내는 이차 어휘로 분류된다.

‘슬프다’는 한국어 학습의 매우 초기 단계에 학습되는 감정표현 어휘인데, 학습자들은 ‘슬프다’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습자의 모국어에는 한국어의 ‘슬프다’에 대응하는 어휘가 존재하며, 기본 어휘인 ‘슬프다’가 표현하는 ‘슬픔’의 감정은 인류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 단계가 올라가면서 ‘서럽다’, ‘서글프다’ 등과 같이 특정한 슬픔을 표현하는 이차 어휘들과 맞닥뜨리게 되면 학습자들은 그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슬픔’의 감정표현 어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자신들이 느끼는 ‘슬픔’을 세분화하여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슬프다’ 하나로 슬픔의 원형적인 감정 경험부터 더 미묘한 의미를 가지는 복합적인 슬픔의 경험까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슬프다’를 제외한 이차 어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차 어휘가 표현할 수 있는 특정한 슬픔의 맥락과 그때 어휘가 지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슬픔을 표현하는 어휘들에 대한 의미적 정보를 얻기 위해 사전을 참고하였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어휘는 기본 어휘인 ‘슬프다’와 이차 어휘인 ‘서럽다’, ‘서글프다’, ‘우울하다’이다. 이들 어휘는 ‘기쁨’이나 ‘두려움’,

‘노여움’ 등 다른 감정 유형의 어휘들과는 달리 사전상의 의미만 살펴봐도 어느 정도 의미와 사용맥락 구분이 가능한 편이다. <표 27>에 따르면 ‘서럽다’는 원통함의 의미가 혼합된 슬픔을, ‘서글프다’는 외로움으로 인한 슬픔을, ‘우울하다’는 걱정으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 27> ‘슬픔’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사전적 의미

어휘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기본 어휘	슬프다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1. (무엇의 속성이나 내용이) 괴롭거나 울고 싶다는 느낌을 주다 2. (누가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 괴롭거나 울고 싶은 감정을 느끼다
	서럽다	원통하고 슬프다	무엇이 슬프고 한스럽다.
이차 어휘	서글프다	1. 쓸쓸하고 외로워 슬프다. 2. 섭섭하고 언짢다.	1. 슬프고 외롭다 2. 섭섭하고 언짢다.
	우울하다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다.	(근심이나 걱정으로 마음이나 기분이) 답답하고 침울하다

그러나 이들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상황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휘가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어 말뭉치 검색을 통해 개별 어휘의 사용맥락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는 기본 어휘인 ‘슬프다’에서 시작하여 이차 어휘인 ‘서럽다’, ‘서글프다’, ‘우울하다’의 순으로 진행된다.

4.2.1. ‘슬프다’

‘슬프다’는 ‘슬픔’의 감정표현 어휘군 중 가장 원형적인 의미를 지니는 어휘로서 다른 이차적 어휘의 의미적 바탕을 이룬다. ‘슬프다’는 보통 어떤 대상을 상실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는 의미를 가진다⁹⁴⁾. 아래의 예에서 ‘슬프다’는 가족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데 대한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슬프다’의 가장 전형적인 쓰임이라고 할 수 있다.

- (44) ㄱ.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다.
 ㄴ. 나는 그녀와 헤어진 것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슬프다’가 지니는 상실의 의미는 ‘슬프다’의 반의어인 ‘기쁘다’의 의미와 정반대를 이룬다. 앞에서 ‘기쁘다’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어떤 것을 받거나 얻게 되었을 때의 감정임을 밝혔다. 따라서 ‘슬프다’는 이와 반대로 누군가가 떠나거나 원하는 일이 좌절되었을 때, 어떤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한 감정을 의미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 말뭉치 검색을 통해 ‘슬프다’가 사용된 맥락을 감정 발생의 원인과 대상별로 정리해보면 앞선 추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발견하게 된다⁹⁵⁾.

94) Plutchik(2000)은 ‘슬픔’의 정서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자극 사상으로 ‘소중한 대상의 상실’을 제시하였고, Shaver, Schwartz, Kirson, and O’conner(1987)에서도 ‘소중한 관계의 상실’이 슬픔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95) 294건의 용례를 조사하였다.

<표 28> ‘슬프다’의 사용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죽음	31% (91/294)	죽음 장례 자살	-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심 - 전쟁에서 가족을 잃음 - 영화 주인공이 죽음 - 아는 사람의 죽음	-	-
이별	13% (38/294)	헤어짐 이별	- 친한 친구와 헤어짐 - 가족과 떨어지게 됨	-	-
좌절	13% (38/294)	실패 실망 짝사랑	-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함 - 목표를 못 이룸 - 기다렸던 일이 일어나지 않음 -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음	-	-
실직	3% (9/294)	퇴직 해고	- 직장을 잃음	-	-
나라를 잃음	2% (6/294)	나라 식민지	- 나라를 잃음	-	-

말뭉치 검색 결과 ‘슬프다’의 사용맥락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바로 죽음이었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비극으로 여겨지는 사건인데, 부모님이나 자식 같은 가족의 죽음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슬프다’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용례는 바로 이별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친구가 떠나는 것,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등 이별의 상황에서 ‘슬프다’가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좌절의 맥락, 즉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 역시 ‘슬프다’의 맥락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을 잃거나 나라를 잃는 등 상실의 맥락에 ‘슬프다’가 자주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제시된 맥락 외에도 실제로 ‘슬프다’가 사용된 상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슬프다’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서럽다’, ‘서글

프다'와 같은 이차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을 모두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차 어휘의 전형적인 맥락이라고 여겨지는 몇몇 상황은 '슬프다'의 말뭉치 분석표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슬프다'의 의미가 이차 어휘의 의미적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슬프다' 자체의 전형적 맥락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프다'의 특징적인 맥락은 '죽음', '이별', '좌절' 등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이차 어휘의 의미 특징과 전형적인 사용맥락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4.2.2. '서럽다'

'서럽다'는 '슬프다'의 기본 의미 바탕에 '외로움'과 '억울함'의 의미가 혼합되어 있는 이차 어휘이다⁹⁶⁾.

'서럽다'는 주로 소외되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의 슬픔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홀아비 등이 자신의 외롭고 불쌍한 처지에 대해 느끼는 슬픈 감정이 전형적으로 '서럽다'로 표현된다. 실제 말뭉치 자료에서 '서럽다'의 감정 경험주를 조사해보면 총 250건 중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이 26건, 고아와 같이 부모 없는 사람이 10건, 과부인 경우가 6건으로 나타난다⁹⁷⁾. 이 경우 '서럽다'의

96) '서럽다'에 외로움과 억울함의 의미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잠시 후 말뭉치 분석에서 제시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슬픔'은 '외로움'과 매우 근접한 감정으로 평가된다. Plutchik(1980)에서 제시한 정서간의 유사성 평정치에 따르면 '외로운', '냉담한', '유순한', '가책을 느끼는', '슬픈', '수심에 잠긴', '궁허한', '후회하는', '절망적인'과 같은 용어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슬픔'의 감정과 '외로움'의 감정이 그 근접성으로 인해 쉽게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억울함'은 '분노'에 가까운 감정으로 '분노'는 '슬픔'과 근접한 감정은 아니지만 두 감정 모두 그 원인이 대체로 외부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데 감정은 그 역동성으로 인해 한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슬픔'과 '분노'는 원인을 내부로 돌리나 외부로 돌리나에 따라 감정이 교차될 수 있다(최현석, 2011).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슬픔과 외로움, 슬픔과 분노는 혼합된 감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특정 혼합 감정을 가리키는 어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97) 이 외에도 남편에게 구박받는 아내,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 등을 가부장적 사회의 약자

의미는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는 것’에 대한 비관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즉, 감정의 경험주는 무엇인가가 결여된,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때 ‘서럽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서럽다’라는 감정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타인에 의한 적극적인 자극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아래의 (45)ㄱ과 (45)ㄴ에서는 감정 경험주가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서럽게 느끼고 있다.

- (45) ㄱ. 남이 입다버린 옷을 얻어오면서 가난이 서럽다고 느꼈다.
ㄴ.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내 모양이 너무 서러웠다.

그러나 (46)ㄱ, (46)ㄴ과 같은 경우에는 경험주를 서럽게 만드는 외부의 자극이 분명히 존재한다.

- (46) ㄱ. 늙어서 받는 푸대접이 서러웠다.
ㄴ. 단지 우리보다 못 산다는 이유로 조선족들은 서럽게 차별 당한다.

(46)ㄱ에서는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서러운 것이요, (46)ㄴ에서는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서러운 것이다. 그런데 자의식에 의한 것이든 타인의 대우에 의한 것이든 ‘서럽다’는 기본적으로 감정 경험주의 처지나 형편이 열악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외부에서 오는 차별이나 푸대접 역시 감정 경험주의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대우로 인해 감정 경험주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서럽다’의 말뭉치 분석 결과로서 ‘서럽다’가 나타나는 250건의

로, 하인이나 종을 신분제 사회의 약자로 보고, 나이 든 사람과 정부에 꺾박 받는 서민까지 사회적 약자로 포함하면 그 빈도는 더 높아진다.

용례를 분석한 것이다.

<표 29> ‘서럽다’의 사용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대우 대접	16% (40/250)	차별 구박 괄시 핍박 모욕 야단맞음	- 외국인이라서 괄시 당함 - 못 산다는 이유로 차별 당함 - 늙어서 푸대접을 받음 - 아내가 남편에게 구박 당함 - 모국어가 외국어에 밀려 홀대 당함 - 상사에게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들음 -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당하는 여성 - 정부 권력의 강압과 인권침해 - 일제 치하의 핍박	외롭다 분하다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
가난	9% (23/250)	형편 궁핍 셋방살이	- 집안 형편 때문에 배우지 못함 - 늙고 가난함 - 형편이 어려워 음식과 약을 살 돈도 없음 - 춥고 배고픔	비참하다 초라하다	-
가족의 부재	8% (20/250)	고아 과부 혼자 살아감	- 소년소녀 가장 -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나 자람 - 과부가 남편 없이 고생함	원통하다 외롭다	-
죽음	7% (18/250)	억울한 죽음	- 가족이 죽어서 세상에 혼자 남게 됨 - 이룬 것 없이 허망하게 죽음 - 외롭게 죽음	애달프다	-
타향 살이	6% (15/250)	타향 객지 방황 떠돌	- 하숙 생활 - 객지에서 고생하며 지냄 - 고향이 그리움 - 돌아갈 집이 없이 떠돌아다님 - 가고 싶어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함	고달프다 외롭다 낯설다 힘들다	-
노쇠	2% (5/250)	쇠약 늙음	- 나이가 드는 것을 인식함 - 늙고 몸까지 아픔	-	-

‘서럽다’의 용례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타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감정이었다. 부당한 대우에는 타인의 차별 대우, 괄시, 인격적인 모욕, 가족의 무관심, 정부나 강자의 억압과 핍박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럽다’의 원인으로 나타난 경우가 전체 용례 중 16%에 달했다. 감정주가 차별이나 괘시 등을 당하는 맥락에서는 ‘분하다’라는 어휘가 자주 동반되어 나타났는데, 이렇게 분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억눌러야 할 때 ‘서럽다’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럽다’의 의미에는 억울함의 의미가 강하게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가난’이 서러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9%의 용례에서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못 배우고, 못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가난한 처지를 인식하여 자기 자신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낄 때 ‘서럽다’가 사용되고 있었다. ‘서럽다’의 주요 사용맥락인 ‘가난한 형편’과 ‘부당한 대우’는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감정주가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괘시당하거나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럽다’는 고아와 과부 등과 같이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의 처지를 언급할 때 역시 자주 등장한다. 이때 고아가 된 것과 과부가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억울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홀로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때의 서러움은 외로움과 억울함이 복합된 슬픔의 의미를 지닌다.

‘서럽다’는 죽음에 대해 말하는 맥락에서도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죽음으로 인해 느끼는 슬픔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⁸⁾. 다음의 (47)ㄱ은 꼭 비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서럽다’가 사용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47)ㄴ의 경우는 ‘서럽다’를 사용해도 매우 자연스럽다.

98) 임흥빈(1993: 431)에서는 다음의 예문을 들며 ‘서럽다’는 타인에 대한 일에는 잘 쓰이지 않으므로 비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1) 나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슬프다, *서럽다}.

- (47) ㄱ.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서럽다, 슬프다}.
 ㄴ.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된다고 생각하니
 (내 처지가) 서러웠다.

즉, ‘서럽다’는 누군가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슬픈 감정이기기는 하지만 그것이 죽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죽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 경험주의 처지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47)ㄴ에서 내가 서러운 것은 일차적으로는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지만, 결국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된 자신의 외로운 처지가 슬펐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래의 (48)ㄱ과 같은 문장도 단지 죽는 것이 슬퍼서 서럽다는 것이 아니라 이룬 것도 없이 죽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억울하기에 서럽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48)ㄴ 역시 일찍 죽거나 결혼도 못하고 죽은 데 대한 억울함을 서러운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죽음으로 인해 느껴지는 ‘서럽다’의 의미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외로움’이나 ‘일찍 죽거나 외롭게 죽는 것으로 인한 억울함’ 등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 (48) ㄱ. 아무 것도 이룬 것 없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서러웠다.
 ㄴ. 총각, 어린 아이의 죽음은 서러운 죽음이다.

말뭉치 분석 결과 ‘서럽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표현이 눈에 띄었다. 이들 표현은 ‘서럽다’의 굳어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49) ㄱ. 서럽게 울다
 ㄴ. 둘째가라면 서럽다
 ㄷ.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서럽다’가 ‘서럽게’의 형태로 ‘울다’와 공기하여 나타난 경우는 총 25건으로 여기에 ‘서럽게 흐느끼다(7)’, ‘서럽게 통곡하다(1)’, ‘서럽게 울부짖다(1)’,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1)’ 등 유사한 형태를 모두 합치면 35건에 달한다. 이때 ‘서럽게 울다’는 서러운 일로 인해 우는 것을 나타내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서럽게 울다’는 앞의 말뭉치 분석 결과에서 보았듯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가난한 형편에 놓여 있는 상황, 타향살이로 인해 힘들거나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서 울 때도 쓰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아주 슬피 울다’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것 같다. (50)ㄱ과 같은 상황에서는 서럽게 우는 경험자가 왜 우는지에 대한 맥락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 울음의 강도가 마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부모님을 잃고 천생 고아가 된 사람이 우는 것처럼 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50)ㄴ과 같이 아이가 다리를 다쳐 그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우는 경우에도 ‘서럽게 울다’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울음의 강도가 매우 셸 경우, 울음의 원인과 관계없이 ‘서럽게 울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서럽게 울다’는 ‘슬프게 울다’에 비해 강도가 셸 울음을 지칭하는 굳어진 표현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50) ㄱ. 어디에선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려 왔다.
 ㄴ. 아이가 다친 다리를 부여잡고 서럽게 울고 있다.

‘둘째가라면 서럽다’라는 표현도 ‘서럽다’의 굳어진 표현이다. ‘-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한다’의 의미는 그 정도로 ‘어떤 분야에서 매우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서럽다’의 원 의미가 살아있다.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뛰어난 사람에

게 첫째가 아니라 둘째의 자리를 부여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것이 억울하여 서러움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서럽다’의 의미와 전형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면 관용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표현은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이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대접으로 인해 서러운 감정을 느낀 경우 그에 대해 분풀이하듯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역시도 ‘살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서럽다’의 의미를 지닌 굳어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2.3. ‘서글프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서글프다’는 ‘외로움’의 의미가 복합된 슬픔의 어휘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도 ‘서글프다’가 지니고 있는 외로움의 복합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51) ㄱ. 크리스마스에 거리, 혼자 돌아다닌다는 것이 멧쩍고 서글웠다.
 ㄴ. 화사한 계절을 음미할 연인이 없어 서글픈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말뭉치 자료를 조사해보면 ‘서글프다’는 ‘안타까움’으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안타까움이란 외부의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감정 경험주가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안타까움의 감정, 자신의 처지나 형편에 대한 초라함의 인식이 포함된다.

다음은 말뭉치에서 검색된 ‘서글프다’의 용례 245개를 원인과 구체적인

맥락별로 분석한 것이다.

<표 30> ‘서글프다’의 사용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사회적 현실	22% (54/245)	모순 사회상 추태 작태 행태	- 모순된 현실 - 정치인들의 추태 -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 안타까운 정치 풍토 - 이율배반적인 현실	부끄럽다 한심하다 안타깝다 착잡하다	현실이 서글프다 서글픈 현실
처지 신세	7% (17/245)	판잣집 단칸방 처지 운명 신세 푸대접	- 단칸방 세 들어 사는 세일즈맨의 애환 - 주인집 노파의 몰인정함 - 엄마의 태도가 달라짐 - 백수가 당하는 차별 - 계급 미분화 사회의 억눌림 - 불쌍한 처지	속상하다 처량하다	처지가 서글프다 서글픈 신세
노쇠	6% (15/245)	나이 시간 어느새 늙음 주름살	- 나이를 먹는 일 - 시간이 가는 것 - 주름살이 깊어짐 - 너무 늙고 쓸모가 없음 - 나이 들어서 외워지지 않음	썩썩하다 가슴이 헛하다	-
외로움	5% (12/245)	혼자 홀로	- 연인이 없음 - 사이가 멀어짐 - 크리스마스에 혼자 돌아다님 - 집안 제사에 가족이 오지 않음	적막하다 썩썩하다 떨렁하다 멋쩍다 외롭다 가슴이 텅비다 쓸쓸하다	-
타향 살이	3% (7/245)	타국생활 객지 집 떠남 이국 땅	- 보헤미안의 생활 - 타국 생활의 고독함 - 고향을 떠남 - 외지에서 집 생각을 함	-	-

위의 표에 따르면 ‘서글프다’의 사용맥락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안타까운 사회적 현실로서 22%에 달한다. 우리는 흔히 어떠한 현실이 서글프다거나 서글픈 현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여기에서 ‘서글프다’가

가지는 의미는 감정의 경험주가 현실에 대해 느끼는 일종의 슬픔으로서 안타까운 감정이 복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현실이나 분위기가 모순으로 가득 찼을 때, 정치 풍토가 부정과 부패로 물들어 있을 때, 사람들의 행태가 부끄럽고 한심할 때,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서글픔을 느낀다. 감정 경험주가 현실에 대해 느끼는 안타까움은 때로는 분노나 한심함과 같은 감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감정의 정도가 적극적인 공격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경험주는 분노가 아닌 슬픔, 구체적으로는 서글픔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아래의 예문 (52) ㄱ, ㄴ에서는 김치를 담그지 않고 사먹는 젊은 주부들의 행태와 고급 옷 로비 사건을 바라보는 감정 경험주의 슬픔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슬픔은 안타까움과 씁쓸함, 한심함 등의 감정과 복합되어 ‘서글프다’로 표현되고 있다.

- (52) ㄱ.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사먹는 김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ㄴ.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은 그 자체가 우리 사회상의 서글픈 축도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서글프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인식하는 데서 생겨나는 감정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서글픈 현실’,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등을 굳어진 표현의 일종으로 제시한다면 ‘서글프다’의 의미 학습과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글프다’가 자주 사용되는 두 번째 맥락은 감정의 경험주가 자신이 처해 있는 불우한 처지나 형편, 신세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경우로서 총 7%의 용례가 검색되었다⁹⁹⁾. 이 외에도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6%), 외

99) 감정주의 불행한 처지나 신세는 구체적으로는 가난한 형편, 부당한 대우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서글프다’의 의미는 같은 의미 영역을 가지는 ‘서럽다’와 비교했을 때 가난한 형편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억울함보다는 초라함에 대한 자기 인식의 측면이 강하므로 ‘서럽다’에서 분리된 범주로 사용했던 이들 원인들을 따로 구분하지

로움(5%), 타향살이(3%)등이 서글픔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용례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사용된 ‘서글프다’의 의미가 ‘서럽다’의 의미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서글프다’가 표현하는 의미는 ‘서럽다’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4.2.2.항에서 제시된 ‘서럽다’의 말뭉치 검색 결과를 다시 언급하면, ‘부당한 대우’와 ‘가난’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글프다’의 원인으로 지적된 불행한 ‘처지’, ‘신세’와 매우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서럽다’의 원인이 되는 ‘타향살이’, ‘노쇠’ 역시 ‘서글프다’의 원인 영역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다음의 (53)ㄱ-ㄴ과 같은 예문에서 ‘서글프다’와 ‘서럽다’는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3) ㄱ.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내 모양이 {서글궤다, 서러웠다}.
 ㄴ. 주인집 부부의 주인 행세에 팬스레 {서글픈,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ㄷ. 늙어 가는 느낌, 견딜 수 없는 {서글픔, 서러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서글프다’와 ‘서럽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서글프다’는 자신에 대한 감정과 타인에 대한 감정을 모두 표현할 수 있지만 ‘서럽다’는 주로 자신에 대한 슬픔만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54)ㄱ과 (54)ㄴ은 모두 타인의 처지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서글프다’는 사용할 수 있지만 ‘서럽다’를 사용하면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않고 하나의 범주로 묶었다.

- (54) ㄱ. 가로수 옆이 조금 누래져도 슬프고 남편 잃은 친구가 불쌍해서 {서글프다, *서럽다}.
- ㄴ. 아직 소식도 없는 아이 이름을 짓고 있는 언니가 예뻐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없이 {서글프기도, *서럽기도} 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슬픔의 강도이다. ‘서글프다’는 ‘서럽다’에 비해 강도가 약한 슬픔을 드러낸다. 즉 ‘서글프다’와 ‘서럽다’가 모두 타인이 아닌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 그 감정의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서글프다’의 경우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에 대해 느끼는 ‘초라함’의 인식이 강한 반면, ‘서럽다’는 타인의 차별이나 구박 등 외부의 적극적인 자극으로 인해 일어나는 ‘억울함’의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서럽다’의 용례와 ‘서글프다’의 용례에서 주요 사용 맥락으로 나타난 ‘부당한 대우’의 빈도수 비교를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¹⁰⁰). 또한 총 245건의 용례 중 ‘서글픈’ 감정의 결과로 눈물이 나거나 울음이 동반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의 추론을 가능하게 해 준다. 슬픔의 전형적인 신체적 반응은 눈물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서글픔이 눈물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형적인 슬픔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는 ‘서럽다’가 ‘울다’와 매우 높은 빈도로 결합한다는 사실과 매우 대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서글프다’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소’나 ‘웃음’과 같은 어휘와 높은 빈도(17건)로 공기하여 나타났다는 점이다. ‘서글픈 미소’와 ‘서글프게 웃다’와 같은 표현이 자연스러운데 비해, ‘서러운 미소’와 ‘서럽게 웃다’라는 표현은 매우 어색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따라서 ‘서글프다’의 의미와 사용 맥락은 ‘서글프다’의 감정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맥락의 내용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감정의 강도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100) ‘서럽다’의 경우 40건, ‘서글프다’의 경우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글프다’의 용례 분석 중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서글프다’가 ‘세일즈맨’, ‘현대인’, ‘중년’ 등 특정 어휘와 더불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다. 빈도수 면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다 음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될 때에 ‘서글프다’가 다른 ‘슬픔’ 표현 어휘에 비 해 고달픈 삶의 애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 (55) ㄱ. 셀러리맨의 {서글픈, 슬픈, 서러운} 생활을 다룬 영화
 ㄴ. 일상의 가치관에 매몰된 현대인의 삶의 {서글픈, 슬픈, 서러운} 일상
 ㄷ. 우리 시대 중년들의 {서글픈, 슬픈, 서러운} 삶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셀러리맨, 현대인, 중년의 삶은 ‘서글프다’의 감정과 매우 맞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서글프다’의 의미는 ‘안타까움’과 ‘초라 함’¹⁰¹⁾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슬픔을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적 정의에서도 나타났듯이 ‘외로움’으로 인한 슬픔 역시 ‘서글프다’가 드러내는 의미 중 일부를 구성한다.

4.2.4. ‘우울하다’

‘우울하다’는 ‘슬프다’와 의미적으로 중첩되어 있으면서도 ‘서럽다’, ‘서글 프다’ 등과 비교했을 때 그 의미적 차이가 뚜렷한 어휘이다. 우선 ‘슬프다’ 가 인간의 삶에서 전형적인 비극으로 여겨지는 죽음 등 상실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라면 ‘우울하다’는 심각한 상실의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이다. 즉, ‘우울하다’는 슬픔의 일종이면서도 감정의

101) 이때 ‘안타까움’이라는 말과 ‘초라함’이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는데 ‘안 타깝다’가 외부의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라면 ‘초라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 까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도 면에서 ‘슬프다’에 비해 약한 감정을 드러낸다. ‘슬프다’가 울음이 터질 정도의 슬픔이라면 ‘우울하다’는 가슴이 답답할 정도의 슬픔이라고 볼 수 있다.

‘우울하다’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적 차원은 바로 감정의 지속성에 있다. ‘슬프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이라면 ‘우울하다’는 순간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분에 해당한다.

- (56) ㄱ. 나는 오늘 기분이 {우울하다, *슬프다, *서럽다, *서글프다}
 ㄴ. 김 씨는 요 며칠 {우울한, *슬픈, *서러운, *서글픈} 기분으로 술을
 마셨다.

‘우울하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적 특징은 ‘우울하다’가 ‘슬프다’를 비롯한 다른 슬픔의 감정표현 어휘와 달리 ‘기분’이라는 말과 공기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위의 예문에서 ‘우울하다’는 ‘기분’이라는 말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슬프다’, ‘서럽다’, ‘서글프다’는 ‘기분’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분’과의 공기 가능성은 ‘우울하다’의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우울하다’는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우울하다’라고 하는 기분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¹⁰²⁾. 따라서 ‘우울하다’는 ‘기분’뿐만 아니라 ‘성격’과의 공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102) 심리진화적 이론에서는 감정을 성격의 전조라고 가정한다. 성격 특성은 보다 근본적인 정서 상태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특정 감정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그 사람의 다소 영속적인 특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Plutchik, 2003).

- (57) ㄱ. 나는 원래 성격이 {우울한, *슬픈, *서러운, *서글픈} 편이다.
 ㄴ. 저 사람은 {우울한, *슬픈, *서러운, *서글픈} 사람이에요.

‘우울하다’가 감정이라기보다는 ‘기분’에 가깝다는 사실은 ‘우울하다’라는 기분에 대한 원인 자극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기분(mood)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에 제한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상태로 구체적인 대상이나 유의미한 자극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¹⁰³⁾. 따라서 ‘우울한’ 기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실제 말뭉치 자료에서 ‘우울하다’를 검색해 보면 특정 자극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음을 ‘우울하다’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이는 ‘우울하다’가 가지고 있는 ‘기분’이라는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울함을 발생시키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맥락 역시 발견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¹⁰⁴⁾.

<표 31> ‘우울하다’의 사용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문제	21% (54/255)	근심 걱정 의문 까마득함 무력감 의욕상실	- 답이 없는 의문에 대해 생각함 - 걱정, 근심, 고민함 - 해결 방법을 알 수 없어 무기력함	답답하다 막막하다 마음이 무겁다 불안하다	-

103) D. Watson(2000)은 기분을 ‘일시적인 감정 또는 정의적 변화로 정서의 주관적인 경험과 아주 흡사하다’고 정의하였고 Oatley and Jenkins(1996)는 ‘수시간, 수일 혹은 수주 동안, 때로는 이면에서 낮은 강도로 지속되는 정서적 상태를 일컫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endollar(2000)에서 기분은 명백한 자극이나 대상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고 이유도 모르는 채 경험될 수도 있지만 정서는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였다.

104) 255개의 용례를 조사하였다.

		회의감			
절망	11% (29/255)	뜻이 꺾임 무너진 기대 실망, 실패 좌절감	-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 - 실패함	답답하다 섭섭하다	-
날씨	6% (15/255)	비 흐린 날씨 장마철 우기	- 비오는 날 - 흐린 날 어두운 분위기	어둡다	-
외로움	5% (13/255)	고독 쓸쓸함 고독감 혼자	- 혼자 있을 때 기분이 가라앉음 -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음 - 혼자 술을 마심 - 어머니가 집을 떠나서 외로움	쓸쓸하다 외롭다 적적하다 고독하다	-
똑같은 삶	4% (10/255)	반복 지루함 되풀이	- 똑같은 일상 - 바쁜 생활이 계속됨 - 반복적인 일을 하루 종일 함 - 무의미한 과정이 되풀이됨	권태롭다 짜증나다 지겹다	-

‘우울하다’는 가장 많은 경우 근심이나 걱정을 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기분으로 보인다. 특히 감정 경험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의문에 답이 없는 경우, 근심이나 걱정, 해결책이 없어 이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구체적인 맥락에 해당한다. 이때 ‘우울하다’는 ‘답답함’, ‘막막함’ 등의 감정이 복합된 아주 약한 종류의 슬픔이라 볼 수 있다.

‘우울하다’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절망’이다.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외부적 압력에 의해 어떤 일을 포기하거나 또는 기대했던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는 우울한 기분을 발생시킨다. 사실 ‘절망’의 경우 ‘슬프다’의 전형적인 원인이기도 하나 앞서 논의했듯 ‘절망’에 대해 순간적으로 경험되는 감정은 ‘슬프다’로, 절망으로 인해 슬픈 감정이 지속되는 것을 ‘우울하다’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감정의 경험주가 외로움으로 인해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와 반복적이고 지루한 생활로 인해 우울함을 경험하는 경우도 말뚝치 용례에서 나타났다. 이 중 우울함을 발생시키는 외로움의 성격에 대해 잠깐 언급

하자면, 이때의 외로움은 감정주가 단순히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것으로서, ‘서럽다’, ‘서글프다’ 등의 원인이 되는 외로움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맥락 외에는 ‘우울하다’의 사용맥락이 일반적인 슬픔의 맥락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울하다’라는 감정의 경험 중 가장 특이한 것은 바로 ‘날씨’에 의해 우울함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주는 어두운 분위기는 감정 경험주에게 ‘우울하다’는 기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는 반대로 감정 경험주의 기분이 우울할 때 특정 날씨를 우울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뭉치 검색에서도 ‘우울하다’는 날씨로 인한 기분을 묘사하는 맥락에서 자주 나타났다. 또한, 비오는 날씨와 우울함이라는 감정의 연합은 우울함과 특정 색채의 연합 역시 강하게 하는 것 같다. 한국어에서 ‘회색’과 ‘잿빛’과 같은 색채는 사람들에게 우울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하다’는 ‘우울한 잿빛 도시’와 같이 색채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¹⁰⁵⁾.

이상의 내용으로 ‘우울하다’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우울하다’는 ‘답답함’과 ‘절망감’의 의미가 복합되어 있는 약한 강도의 슬픔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울하다’의 의미에는 반드시 시간의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런 이유에서 ‘우울하다’는 감정이라기보다는 기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말뭉치 분석을 통해 ‘슬픔’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의미와 사용 맥락을 분석하였다. ‘슬픔’의 감정표현 어휘는 모두 ‘슬프다’의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슬픔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복합적인 의미는 어휘가 사용된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도출해낼 수 있었다. ‘슬픔’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의미는 사용맥락 분석뿐만 아니라 어휘의 의미적 제약이나 활용상의 특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 <표 32>는 앞서 분

105) 서양의 경우에는 ‘blue’가 우울함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휘의 변별적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32> ‘슬픔’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변별 정보

어휘 특징		슬프다	서럽다	서글프다	우울하다
의미적 특징	중심 의미	슬픔	슬픔	슬픔	슬픔
	부가 의미	-	외로움 억울함	안타까움 외로움	답답함 지루함
	감정 강도	-	강함	약함	약함
	정의	어떤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한 가슴 아픈 감정	자신의 외롭고 불쌍한 처지에 대해 느끼는 슬픔, 부당한 대우로 인해 느껴지는 슬픔	자신의 외롭고 불쌍한 처지에 대해 느끼는 슬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한 슬픔	근심, 걱정, 좌절감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되는 약한 슬픔의 상태, 가라앉은 기분
	사용 상황	죽음 헤어짐 실패, 좌절함 직장, 나라를 잃음	차별, 무시를 당함 가난한 형편 고아, 과부 신세 타향살이를 함 늙고 병들	사회적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함 나이 들 타향살이를 함 외로움	해결책이 없는 문제로 걱정, 근심함 실패, 좌절 후에 지속되는 기분 비 오거나 흐린 날씨 외로움 반복되는 일상
	제약	-	타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는 사용하지 못함	-	‘기분’, ‘성격’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음
통사적 특징	기본 구조	NP가 슬프다 NP에/로 슬프다 AdvP 슬프다	NP가 서럽다 NP에/로 서럽다 AdvP 서럽다	NP가 서글프다 NP에/로 서글프다 AdvP 서글프다	NP가 우울하다 NP에/로 우울하다 AdvP 우울하다
	활용형 특징	-	-	-	-
	굳어진 표현	-	둘째가라면 서럽다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서럽게 올라	서글픈 현실 현실이 서글프다	-
화용적 특징	문어 구어	모두	모두	모두	모두
	사용 범위	-	-	-	-

4.3. ‘두려움’의 감정표현 어휘군

‘두려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로는 ‘무섭다’, ‘두렵다’, ‘겁나다’ 등을 들 수 있다. ‘두려움’의 감정표현 어휘 중 기본 어휘는 ‘무섭다’이고 ‘두렵다’와 ‘겁나다’는 이차 어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의 명칭 자체가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은¹⁰⁶⁾ ‘무섭다’를 기본 어휘로 설정하고 의미를 기술하는 데 약간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명칭과 연관되어 ‘두렵다’라는 어휘가 일종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섭다’가 ‘두렵다’에 비해 기본 어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섭다’가 ‘두렵다’보다 더 쉽고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어휘라는 점에 있다. ‘무섭다’는 ‘두렵다’보다 난이도가 낮아 먼저 학습되는 어휘에 해당하는데¹⁰⁷⁾, 이는 나중에 학습되는 ‘두렵다’의 의미를 이해할 때 ‘무섭다’의 의미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무섭다’는 감정의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두렵다’는 추상적인 의미가 강하므로, ‘무섭다’가 기본 어휘가 되고 ‘두렵다’가 이차 어휘가 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무섭다’와 ‘두렵다’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조차 의미나 사용상의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어휘에 속한다. 이들 어휘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미 파악의 일차적 자료가 되는 사전적 정의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표 33>를 보면 앞서서도 지적되었던 정의의 순환이 일어나고

106) 감정의 명칭으로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무섭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차적 의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서움’이라고 하면 사나운 기세나 정도를 나타내는 ‘무섭다’의 이차적 의미도 함께 떠오를 수 있다. 반면 ‘두려움’의 경우에는 감정만을 나타내고 대상의 속성을 묘사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감정 자체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더 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다.

107) ‘무섭다’와 ‘두렵다’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2.2.2.항의 <표 6>을 참조.

있다. ‘무섭다’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두렵다’를, ‘두렵다’를 기술하는 데 ‘무섭다’를 사용하고 있어, 말뭉치 자료 분석을 통해 각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표 33> ‘두려움’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사전적 의미

어휘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기본 어휘	무섭다	1. 어떤 대상에 대하여 꺼려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나는 데가 있다. 2. 두려움이나 놀라움을 느낄 만큼 성질이나 기세 따위가 몹시 사납다.	1. [주로 ‘무서운’의 꼴로 쓰여] (남에게 불안이나 공포의 감정을 느끼게 할 만큼) 두렵거나 끔찍하다 2. (누가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다 3. 어떤 행동을 실행에 옮기기 가) 걱정스럽거나 두렵다
이차 어휘	두렵다	1.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다. 2. 마음에 꺼리거나 염려스럽다.	1. (어떤 대상이) 겁이 나거나 마음에 꺼릴 만큼 무섭다 2. 몹시 걱정스럽거나 불안하다

‘두려움’의 감정표현 어휘 중 의미와 사용맥락 분석이 되는 어휘는 ‘무섭다’와 ‘두렵다’로만 한정된다. 원래 본 절에서 다루려고 했던 ‘두려움’의 어휘로는 ‘무섭다’와 ‘두렵다’, ‘겁나다’가 설정되어 있었으나¹⁰⁸⁾ ‘겁나다’의 경우 말뭉치 분석 과정에서 ‘무섭다’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¹⁰⁹⁾.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무섭다’와 ‘두렵다’의 비교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108) 2.2.2.항의 <표 7>을 참조.

109) ‘겁나다’와 ‘무섭다’의 의미적 유사성은 박영희(1984)에도 제시되어 있다. 박영희에서는 ‘겁나다’와 ‘무섭다’의 의미평정을 통해 두 어휘가 다른 의미 자질 면에서 동일하나 내포 범위의 광범위성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박영희(1984)는 ‘무섭다’, ‘겁나다’, ‘두렵다’의 의미적 광범위성을 ‘무섭다>겁나다>두렵다’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4.3.1. ‘무섭다’

‘무섭다’는 일반적으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 느끼는 감정이다(James and Michelle, 2005; 민경환 외 역, 2007: 127). 감정 경험주가 위협한 상황에 직면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거나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곧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무섭다’로 묘사될 수 있다. (58)ㄱ-ㄴ에는 ‘무섭다’의 이런 의미가 잘 드러나 있다.

- (58) ㄱ.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
 ㄴ. 얇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다.
 ㄷ. 그 사람은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한다.

‘무섭다’라는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자극은 실제로는 폭력이나 사고, 죽음, 병 등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벌레, 새, 피와 같이 사람에게 거의 해를 끼칠 수 없는 대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¹¹⁰⁾. 이러한 원인 자극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해를 주건 관계없이 감정의 경험주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무섭다’가 사용된 말뭉치 검색 결과이다¹¹¹⁾.

<표 34> ‘무섭다’의 사용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 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위험	40%	체벌	- 야단을 맞음	두렵다	-가 무섭다
위협	(126/315)	폭력	- 사고가 남	겁이 나다	-기가 무섭다

110) 벌레나 새, 피와 같은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공포는 대부분 학습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위협을 당한 경험이 없더라도 뱀이나 거미에 대한 공포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Öhman, Eriksson, & Olofsson, 1975).

111) 총 315건의 용례를 검색하였다. <표 34>에 제시되지 않은 용례는 대부분 ‘무섭다’가 강도나 기세를 나타내는 이차적 의미로 사용되거나 ‘-기가 무섭게’와 같이 관용표현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야단 죽음 병 동물 어둠 귀신	- 협박을 당함 - 목숨을 위협하는 병 - 어떤 장소에 갇힘 - 난폭 운전 - 어두운데 혼자 집에 감		
사람	13% (41/315)	아버지 선생님 시아머니 시아버지 할머니	- 사람이 무뚝뚝함 - 성격이 엄함 - 대하기 어려운 사람	엄하다 어렵다	무서운 (사람) (사람)이 무섭다

‘무섭다’의 말뭉치 검색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상황은 감정의 경험주가 어떤 대상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구체적인 원인으로 는 죽음, 병, 폭력, 체벌과 같은 신체적 위협이나 어둠, 동물, 천둥번개와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¹¹²⁾ 등이 많았고 악마, 귀신 등의 존재 등에 대한 두려움도 ‘무섭다’로 표현되고 있었다.

‘무섭다’는 어떤 사람에 대해 묘사할 때도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무섭다’는 그 사람에게서 위협을 느끼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자체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아버지와 선생님에 대해 말하는 맥락에서 ‘무서운 아버지’와 ‘무서운 선생님’ 등과 같은 표현이 자주 나타났는데 이때 ‘무섭다’는 강한 위협을 느끼게 한다기보다는 대체로 엄격하고 무뚝뚝하거나 화를 잘 내는 성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이 지니는 성격을 ‘무섭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섭다’와 ‘두렵다’가 가지는 차이점 중 하나이다. (59)ㄱ-ㄴ에서 ‘무섭다’는 각각 ‘사람’, ‘병’, ‘영화’가 감정 경험주에게 두려움을 경험하게 할 만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두렵다’로 바꾸어 쓰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두렵다’는 ‘무섭다’와 달리 사람이나 대상의 성격에 대해 묘사하는 말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12) 공포(phobia)는 주로 특정 자극에 대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두려움이다.

- (59) ㄱ. 민아 아버지는 {무섭다, *두렵다}.
ㄴ. 에이즈는 {무서운, *두려운} 병이다.
ㄷ. 어제 본 영화는 정말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또한, 말뭉치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무섭다’와 함께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자주 나타났다.

- (60) ㄱ. 무섭게 (바람이) 불다, (불이) 타오르다
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다, 성장하다, 전파되다
ㄷ. -기가 무섭게

(60)ㄱ, ㄴ에서 ‘무섭다’는 ‘어떤 것의 기세가 매우 세거나 정도가 강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60)ㄱ에서 ‘무섭게’는 비, 바람, 불 등의 강도가 매우 세다는 것을, (60)ㄴ에서 ‘무서운 속도’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60)ㄷ의 ‘-기가 무섭게’는 ‘-자마자 곧바로’의 의미를 지니는 관용 표현이다. 위의 예는 모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서운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떤 것이 강하고 빠르다는 의미로, 감정을 나타내는 ‘무섭다’의 기본 의미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다.

이런 경우 역시 ‘두렵다’와는 바꿔 쓸 수 없는데 다음의 (61)ㄱ-ㄷ에서 ‘두렵다’를 사용하면 비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61) ㄱ. 새벽에 바람이 {무섭게, *두렵게} 불었다.
ㄴ. 스마트폰이 {무서운, *두려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ㄷ.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렵게} 집으로 돌아왔다.

4.3.2. ‘두렵다’

‘무섭다’가 감정의 경험주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나 구체적인 대상에 의해 일어나는 두려움을 주로 표현하는 데 반해서 ‘두렵다’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확실하지 않은 사건이나 불확실한 대상에 대한 감정을 주로 표현한다. 즉, ‘두렵다’는 ‘무섭다’의 기본 의미에서 ‘불확실성’이 강조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¹³⁾.

이러한 ‘두렵다’의 의미는 말뭉치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두렵다’의 사용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염려 불안	69% (179/260)	변화 도전 모험 실패	- 낯선 곳으로 떠남 - 새로운 일을 시작함 - 실패할까 봐 걱정함 - 변화가 생김 - 비난을 받을까 봐 걱정함 - 사랑을 잃을까 봐 불안해 함	불안하다 설레다	-을까 봐 두렵다
위험 위협	27% (70/260)	죽음 동물 귀신 사고 병 처벌	- 죽음을 맞이하는 것 - 목숨을 위협하는 병에 걸리는 것 - 벌을 받는 것 - 보복 당하는 것	무섭다	-가 두렵다

‘두렵다’가 사용된 260건의 말뭉치 용례 중 과반수(69%)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염려함으로 인해 ‘두렵다’의 감정이 발생됨을 보여주고 있었다. 염려의 구체적인 맥락으로는 낯선 곳으로 떠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과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는 상황이 많았다.

그런데 ‘두렵다’가 사용된 상당수의 상황은 ‘무섭다’와 대체해서 사용해

113) ‘두렵다’ 역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감정을 포함하므로 ‘무섭다’의 기본 의미인 ‘위협’으로 인한 공포감이 내재되어 있다.

도 의미적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앞서 ‘무섭다’의 상황과 동일한 ‘죽음’, ‘체벌’ ‘폭력’, ‘특정한 대상’에 대한 맥락도 자주 나타나 이를 따로 <표 35>에 따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런 경우 ‘두렵다’와 ‘무섭다’의 교체 가능성은 다음 예문 (62)ㄱ-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2) ㄱ.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웠다, 무서웠다}.

ㄴ. 선생님의 회초리가 {두려웠던, 무서웠던} 나는 다음 시간에 시를 써 갔다.

ㄷ. 배가 침몰할까 봐 {두려웠다, 무서웠다}.

위와 같이 ‘두렵다’와 ‘무섭다’가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이들 어휘의 의미 구별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러나 위의 예문들도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62)ㄱ에서 ‘두렵다’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드러내는 의미가 크다면, ‘무섭다’는 죽음이 감정 경험주에게 가져올 신체적 고통과 같은 위협적인 요소에 대한 감정을 더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62)ㄴ, ㄷ에서도 ‘두렵다’는 선생님에게 회초리를 맞거나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혹시라도 일어날까 봐 불안하다는 데 의미 초점이 있고 ‘무섭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자신에게 닥칠 신체적인 위협에 대한 반응에 의미 초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매우 분석적인 것으로서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분을 하여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 차이가 뚜렷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또한 ‘두렵다’와 ‘무섭다’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구어에서는 의미 차이 없이 ‘무섭다’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섭다’와 ‘두렵다’의 차이는 위와 같이 두 어휘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맥락에서보다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해

가 쉽다.

(63) ㄱ. 새로운 시작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무섭기도} 하다.

ㄴ. 어느 날 엄마가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두려운/*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63)ㄱ과 같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일종의 위협이 될 수는 있으나 위협의 의미가 잠재되어 있지는 않다. 새로운 일은 해 보지 않은 낯선 일이라는 점에서 불확실함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63)ㄴ에서도 역시 엄마가 감정 경험주의 곁을 떠나는 것은 분명 피하고 싶은 불쾌한 자극이 되지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종류의 자극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63)ㄱ, ㄴ과 같은 경우는 ‘무섭다’를 쓰면 그 의미가 어색해진다.

또한 ‘두렵다’는 때로는 긍정적인 감정을 동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무섭다’와는 다르다. (63)ㄱ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꼭 불쾌함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이와 함께 기대나 설렘과 같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무섭다’는 그렇지 않다. ‘무섭다’는 항상 부정적이고 불쾌한 감정으로서 이해된다. 아래 (64)ㄱ, ㄴ과 같은 예문에서도 ‘두렵다’의 의미가 ‘무섭다’에 비해 긍정적인 감정이 혼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4) ㄱ. (아이의 병이 나아서) 우리는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ㄴ. 신은 두려운 존재이다.

(64)ㄱ에서는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결과로서 아이의 병이 낫자 이에 대해 놀랍고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두렵다’에는 신의 능력에 대

한 ‘존경’의 의미가 혼합되어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경외심’ 즉,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64)ㄴ의 ‘두렵다’ 역시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은 인간의 이해 영역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없는 신비한 존재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 신에 대해서는 ‘두렵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려움’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논의 내용은 아래 <표 36>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6>에는 ‘무섭다’와 ‘두렵다’의 변별적인 정보가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인 특징에 따라 요약되어 있다.

<표 36> ‘두려움’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변별적 정보

어휘 특징		무섭다	두렵다
의미적 특징	중심 의미	무서움	무서움
	부가 의미	-	불안, 경외심
	감정 강도	-	-
	정의	위험이나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 얻어지는 감정	불확실한 상황, 대상에 대해 무서워하는 감정,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느껴지는 불안감과 걱정, 신이나 신비한 대상에 대한 경외심
	사용 상황	체벌을 받거나 폭력을 경험함 죽음의 위협 동물, 어둠, 귀신 등의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 무뚝뚝하거나 엄한 사람	변화나 모험, 도전을 앞두고 있음 실패에 대해 염려, 걱정함 죽음의 위협 물, 어둠, 귀신 등의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
통사적 특징	제약	-	사람이나 대상의 성격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하지 못함
	기본 구조	NP가 무섭다 NP에/로 무섭다 AdvP 무섭다	N가 두렵다 N에/로 두렵다 AdvP 두렵다
	활용형 특징	-	-

	굳어진 표현	무섭게 (바람이) 불다, 무섭게 (불이) 타오르다 무서운 속도 -기가 무섭게	-
회용적 특징	문어 구어	모두	모두 (같은 상황에 대해 구어에서는 ‘무섭다’가 더 자주 사용됨)
	사용 범위	-	-



4.4. ‘노여움’의 감정표현 어휘군

‘노여움’은 대개 다른 사람에 의해 고의적으로 유발된 불쾌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험되는 감정이다¹¹⁴⁾. Lazarus(1991)는 ‘노여움’의 가장 전형적인 유발자를 ‘나와 내 것에 대한 비하적인 공격’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노여움’은 상황에 대한 통제성의 정도에 따라 ‘슬픔’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대상’과 감정 경험주의 힘의 우열관계에 따라 ‘두려움’과 맞닿아 있는 감정이기도 한다. 따라서 노여움이 발생하는 원인 자극은 ‘슬픔’이나 ‘두려움’의 원인 자극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노여움’을 표현하는 어휘에는 ‘화나다’, ‘성나다’, ‘짜증나다’, ‘노엽다’ 등이 있는데, 이 중 ‘화나다’가 기본 어휘가 되고 나머지 어휘들은 이차 어휘가 된다.

먼저 ‘노여움’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표 37> ‘노여움’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사전적 의미

어휘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기본 어휘	화나다	성이 나서 화기(火氣)가 생긴다.	성이 나거나 노여워하는 감정이 생긴다.
이차 어휘	짜증나다	마음에 꼭 맞지 아니하여 발각 성미를 내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귀찮아서 싫은 마음이 생긴다
	성나다	몹시 노엽거나 언짢은 기분이 일다.	기분 나쁜 감정이 갑자기 세게 치밀다
	노엽다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다.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다.

114) Scherer and Wallbott(1994)는 5개 대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여움’을 경험한 때와 상황의 특징 등을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노여움’의 감정을 경험했다고 기술하였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화나다’의 의미는 ‘성나다’, ‘노엽다’로 ‘성나다’의 의미는 ‘노엽다’로 ‘노엽다’의 의미는 다시 ‘화나다’로 설명되어 의미적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성나다’의 경우 ‘몹시’, ‘세계’ 등의 어휘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강도가 강한 분노를 표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말뭉치 자료에는 이들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 있을지 각 어휘가 사용된 상황맥락과 원인과 대상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4.4.1. ‘화나다’

‘화나다’는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당했을 때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을 표현한다. 아래 (65)ㄱ에서 감정 경험주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의 결핍으로 인해 ‘화난’ 상태가 될 지경에 이르렀으며 (65)ㄴ의 경우 어떤 일이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음을, (65)ㄷ의 경우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화나다’라는 어휘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65) ㄱ. 배가 고파서 화가 날 지경이었다.

ㄴ. 기차가 연착돼서 승객들이 화났다.

ㄷ. 그녀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화가 났다.

말뭉치에서 ‘화나다’의 용례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불쾌감과 불만족의 상황이 조사된다. ‘화나다’의 말뭉치 분석 결과는 <표 38>과 같다¹¹⁵⁾.

115) 총 321건의 용례를 조사하였다.

<표 38> ‘화나다’의 사용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적대적 언행	21% (67/321)	학대 공격 폭력	- 다른 사람에게 뺨을 맞음 - 신체적으로 학대당함 - 언어맞음	-	-
		모욕 비판 비하 놀림	- 욕을 함 -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 - 비꼬는 듯한 말투 - 약 올림	약 오르다	-
부당한 대우	11% (35/321)	무시 구박 차별	- 무시당함 - 차별 당함 - 억울하게 오해 받음	-	-
불순종	10% (32/321)	반항 반발	-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음 -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들음 -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불복종함	-	-
좌절	10% (32/321)	실망 실패	- 일이 마음대로 잘 안 됨 - 기대가 무너짐	-	-
배신	4% (13/321)	배신 거짓말	- 애인이 다른 사람을 만남 - 믿었던 사람에게 속음	-	-

‘화나다’의 용례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적대적인 언행’으로 인한 노여움이었다. 신체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언어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화가 나게 되는데, 구체적인 예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것, 학대당하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적대적인 언행’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부당한 대우’로서 무시당하거나 차별 받거나 오해 받는 등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불순종’ 역시 ‘화나다’의 전형적인 맥락으로 보인다.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말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는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느끼는 감정으로 ‘화나다’가 자주 나타났다.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실망하

거나 좌절할 때도 화가 나며,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역시 ‘화나다’의 사용맥락 중 하나였다.

위에서 살펴본 맥락 중 공격을 당했을 때는 ‘무섭다’의 맥락과 유사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서럽다’ 등의 맥락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섭다’와 ‘서럽다’ 등이 어떤 자극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인데 반해 ‘화나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4.4.2. ‘성나다’

‘성나다’는 ‘화나다’의 이차 어휘로서 ‘화나다’와 유의어 관계를 이룬다. ‘성나다’는 대부분의 경우 ‘화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66)ㄱ과 (66)ㄴ의 문장에서 ‘화나다’와 ‘성나다’를 바꿔 써도 의미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66) ㄱ. 선생님께서는 우리들 때문에 몹시 {성난, 화난} 것 같았다.
ㄴ. 아버지께서는 {성난, 화난} 얼굴로 집에 들어오셨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성나다’와 ‘화나다’ 중 어느 한쪽이 어색하거나 어느 한쪽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 된다.

- (67) ㄱ. 배가 너무 고파 {성날, 화날} 지경이다.
ㄴ. {성난, *화난} 민심을 달래기에 그의 노력은 역부족이다.

(67)ㄱ에서 배가 고픈 것과 같은 사소한 생리적 욕구의 결핍으로 인해 성이 난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과한 감이 느껴진다. 또한 (67)ㄴ에서 ‘민심’이라는 말은 ‘화나다’보다는 ‘성나다’와 더 어울린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는 ‘성나다’의 첫 번째 의미 특징은 ‘화나다’에 비해 분노의 강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배가 고플 때 느끼는 불쾌감을 ‘화나다’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성나다’로는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문맥적으로 또는 연어적 관계로 볼 때 ‘화나다’보다 ‘성나다’를 써야 더 자연스러운 맥락이 있는 것 같다. 그 구체적인 맥락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말뭉치를 분석하여 ‘성나다’가 드러내는 특징적인 분노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¹¹⁶⁾.

<표 39> ‘성나다’의 사용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사회 불만	15% (22/143)	시위 개혁 집회 백성 군중 민심	- 군중이 집회, 시위를 함 - 군중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임	-	성난 민심, 군중
짐승의 분노	28% (40/143)	짐승 황소 호랑이	- 동물이 화가 남 - 사람이 매우 화가 났음을 비유함	-	성난 짐승처럼~

‘성나다’의 말뭉치 분석 결과 감정 발생의 원인 면에서는 ‘화나다’와 비교하여 눈에 띄는 점이 없었다. 앞서 말했듯 ‘성나다’의 경우 ‘화나다’로 대체되어도 의미 전달에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전체 말뭉치 결과 중 ‘화나다’와 의미 차이 없이 대체될 수 있는 경우가 총 50%로 나타났다¹¹⁷⁾. 나머지의 경우 역시 큰 의미 차이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자주 공기하는 어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성나다’가 ‘성난 군중’, ‘성난 백성’ 등의

116) 총 143건의 용례를 조사하였다.

117) 이 경우는 ‘화나다’와 사용맥락이 동일하므로 따로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형태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집회나 시위 등의 단결된 행위를 통하여 사회나 단체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화나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성나다’가 굳어진 표현으로서 더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¹¹⁸⁾. 또한, 집회나 시위 등은 대부분 공격적인 행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화나다’에 비해 더 강도가 높은 분노인 ‘성나다’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문에서는 ‘성난 군중’의 행동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의 폭력과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나다’는 ‘화나다’에 비해 매우 강한 신체적 행위를 동반하는 강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68) ㄱ. 수천 명의 성난 학생들이 저녁마다 경찰과 전투를 벌였다.
ㄴ. 그녀는 성난 군중들에 둘러싸여 닥쳐올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
ㄷ. 김 대감은 성난 백성들 손에 돌아가셨다.

또한 ‘성나다’는 동물의 분노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어휘인 것으로 보인다. ‘성나다’가 ‘성난 짐승’, ‘성난 사자’, ‘성난 황소’ 등 동물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28%나 되었다. 동물의 감정이 인간의 감정보다 강도가 더 세다거나 약하다고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의 감정은 이성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역시도 ‘성나다’의 의미 특징이 강한 분노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나다’는 다음 (69)ㄱ과 같이 동물의 감정 상태를 묘사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69)ㄴ, ㄷ과 같이 어떤 사람이 매우 화가 나서 공격적인 신체 반응을 보이는 경우, ‘성난 짐승처럼 ~하다’, ‘성난 호랑이처럼 ~하다’, ‘성난 황소처럼 ~하다’ 등의 형태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118) 말뭉치 구어 자료에는 ‘성난 군중’과 ‘화난 군중’의 용례가 없어 인터넷검색포털인 구글 코리아에서 ‘성난 군중’과 ‘화난 군중’을 검색해보았다. 그 결과 ‘성난 군중’은 279,000개가, ‘화난 군중’은 67,100개가 검색되었다.

- (69) ㄱ. 성난 고릴라와 호랑이에게 황새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ㄴ. 병경이는 거친 욕을 퍼부으면서 성난 짐승처럼 영석이 앞으로 돌진해 갔다.
 ㄷ. 영감의 아들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를 악다물고 눈을 치뜬 채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렸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나다’는 ‘화나다’와 원인 자극은 같으나 ‘성나다’가 ‘화나다’에 비해 더 통제하기 힘든 강도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나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파도’, ‘불’ 등의 기세가 매우 거세고 강할 때도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때도 ‘성난 파도’, ‘성난 불길’의 형태로 나타났다. ‘성나다’가 대부분 ‘성난’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과 함께 자주 어울려 쓰이는 연어, 굳어진 표현 등을 함께 가르친다면 ‘화나다’와 ‘성나다’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4.3. ‘짜증나다’

‘짜증나다’는 ‘화나다’나 ‘성나다’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한 분노를 표현하는 어휘로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어떤 일이 성미에 맞지 않아 느끼는 불만족스러움이나 귀찮음으로 인해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한다.

다음 <표 40>은 ‘짜증나다’의 말뭉치 분석 결과인데 ‘짜증나다’가 사용된 주요 맥락과 감정 발생의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다¹¹⁹⁾.

119) 243개의 용례를 조사하였는데, ‘짜증나다’와 ‘짜증이나다’를 모두 포함하는 결과이다.

<표 40> ‘짜증나다’의 사용맥락

원인 대상	백분율 (빈도)	핵심어	구체적인 맥락	동반출현 어휘	주 사용형태
귀찮음 성가심	18% (44/243)	다시 물음 자꾸 똑같은 질문 노이로제 번거로움 신경 거슬림	- 계속 따라옴 -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말하게 만듦 -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함 - 옆에 붙어 앉아 있음 - 자꾸 전화가 걸려 옴 - 다른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함 - 백화점 팸플릿 등 전단지	괴롭다 귀찮다	-
반복	13% (31/243)	같은 일과 반복 또	- 고질적인 행태가 계속됨 - 단조로운 생활이 계속됨 - 비가 계속 내림 - 회사에 또 문제가 생김 -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 - 끝없이 내리는 눈	답답하다 신물이 나다 지루하다 우울하다 지겹다 따분하다 무료하다	-
육체적 정신적 피로	12% (29/243)	지침 바쁨 아픔 피곤	- 오랫동안 일해서 피곤함 - 건강이 좋지 않음 - 고된 하역 - 병수발을 들 - 육아와 일 두 가지를 함께 함 - 아침 출근	피곤하다 힘들다	-
기다림	12% (28/243)	교통체증 꾸물거림 느림 기다림	- 기다리는데 빨리 안 옴 - 인터넷이 느림 - 차가 막힘 -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림	무료하다	-
간섭	10% (24/243)	잔소리 핀잔	- 잔소리를 들음 - 사생활 간섭	-	-
더위	9% (22/243)	땀별 폭염 햇볕	- 살인적 더위를 맞봄 - 연일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림	-	-
잠깨	5% (12/243)	새벽 전화 깨움	- 달게 자는데 누가 깨움 - 잠이 덜 깼 - 새벽 세 시에 전화가 와서 잠이 깼 - 졸린 아기를 깨움	-	-

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짜증나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귀찮고

성가신 일이나 사람으로서 전체 용례의 18%가 이에 해당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 상황이나 같은 말을 몇 번씩 해야 하는 상황, 다른 사람이 계속 옆에 붙어있거나 따라와서 성가신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즉 ‘귀찮음’, ‘성가심’ 등의 감정이 ‘짜증나다’의 의미를 상당부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원인은 계속 반복되는 일(13%)이었다. 오랜 시간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 짜증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지루하다’, ‘무료하다’, ‘따분하다’, ‘우울하다’ 등의 어휘와 같이 어울려 나타났다.

짜증은 많은 경우 신체적인 감각과 긴밀히 결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고된 일로 인해 느껴지는 피로감, 병으로 인한 통증, 더위나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쾌한 신체적 감각 등이 ‘짜증나다’가 사용된 맥락에서 주요하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 어떤 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불합리한 현실, 정치적 행태 등을 볼 때 역시 짜증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화나다’와 공통되는 원인으로서 ‘짜증나다’만의 특징적인 의미를 설명해 준다고보다는 약한 정도로 화가 났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말뭉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짜증나다’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짜증나다’는 기본적으로 강도가 매우 약한 분노의 감정이며, ‘귀찮음’, ‘지루함’의 감정이 복합되어 있는 감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정 경험주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더위나 통증 등 신체적 감각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4.4. ‘노엽다’

‘노엽다’는 ‘노여움’이라는 감정 명칭에 사용된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되는 빈도가 매우 낮은 어휘인 것으로 보인다¹²⁰⁾.

‘노엽다’가 가지는 특징적인 의미와 전형적인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말뭉치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눈에 띄는 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노엽다’는 ‘성나다’와 마찬가지로 ‘화나다’의 용례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나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강도와 공기하는 어휘 측면에서 ‘화나다’와의 차이점을 보였으나 ‘노엽다’는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말뭉치 분석에서는 별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노엽다’의 감정 경험주는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따라서 (70)ㄱ과 같은 문장에서는 ‘노엽다’가 잘 어울리나 (70)ㄴ의 경우에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 (70) ㄱ. 노인은 젊은 놈이 반말을 해 댄다고 노여워했다.
 ㄴ. ?민주는 선생님께 억울하게 맞은 것이 노여웠다.

즉 ‘노엽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하여,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여움’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변별적 특징을 정리해 보면 <표 41>과 같다.

120) 말뭉치 용례도 총 31건밖에 검색되지 않았다.

<표 41> ‘노여움’의 감정표현 어휘군의 변별적 정보

어휘 특징		화나다	성나다	짜증나다	노엽다
의미적 특징	중심 의미	화남	화남	화남	화남
	부가 의미	-	-	성가심	-
	감정 강도		강함	약함	-
	정의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공격적인 감정	통제하기 힘든 정도로 화가 난 감정	성가시거나 귀찮은 일로 인해 약하게 화난 감정, 더위, 통증 등으로 인한 신체적 불쾌감	아랫사람에 대해 화난 감정
	사용 상황	적대적인 언행 경험 부당한 대우를 당함 불순종 좌절함 배신당함	군중들이 시위나 집회를 함 동물의 분노	성가시고 귀찮음 똑같이 반복되는 삶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낌 오랫동안 기다림 간섭 당함 더위, 잠깸	일반적인 ‘화나다’의 상황
	제약	-	주로 ‘군중’, ‘짐승’과 함께 사용함	-	경험주는 주로 나이가 많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
통사적 특징	기본 구조	NP가 화나다 NP에/로 화나다 NP에게 화나다 AdvP 화나다	NP가 성나다 NP에/로 성나다 NP에게 성나다 AdvP 성나다	NP가 짜증나다 NP에/로 짜증나다 NP에게 짜증나다 AdvP 짜증나다	NP가 노엽다 NP에/로 노엽다 AdvP 노엽다
	활용형 특징	-	‘성난’의 형태로 주로 활용함	-	-
	굳어진 표현	-	성난 군중 성난 파도, 성난 불길 성난 짐승처럼~	-	-
화용적 특징	문어 구어	모두	주로 문어	모두	문어
	사용 범위	-	-	-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화났을 때 사용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 교육을 위한 맥락 중심적 어휘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에 알맞은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정표현 어휘가 드러내는 감정 경험의 내용과 어휘가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인 화자의 말뭉치 자료 분석을 통해 감정표현 어휘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맥락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된 어휘는 인간의 기본 감정인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의 영역에서 기본 어휘에 해당하는 ‘기쁘다’, ‘슬프다’, ‘무섭다’, ‘화나다’와 이들의 이차 어휘인 ‘즐겁다, 행복하다, 신나다, 흥겹다’, ‘서럽다, 서글프다, 우울하다’, ‘두렵다’, 그리고 ‘성나다, 짜증나다, 노엽다’였다. 이들 어휘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과 한국어 교재 출현 빈도, 어휘 간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가 기본 어휘와 이차 어휘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는 인간의 감정에는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몇 개의 기본 감정이 있으며, 기본 감정에서 강도가 달라지거나 다른 감정과 혼합된 형태인 이차적 감정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즉, 감정표현 어휘에도 가장 원형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본 어휘가 있으며, 이차 어휘의 의미는 기본 어휘의 의미에서 강도의 차이나 다른 감정의 혼합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 중에는 ‘슬프다’가 기본 어휘가 되고 ‘서럽다’, ‘서글프다’, ‘우울하다’는 이차 어휘에 해당되는데, 이차 어휘의 의미는 모두 ‘슬프다’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강

도 면에서 차이가 있거나 ‘외로움’, ‘억울함’ 등의 다른 감정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슬픔’의 어휘를 비롯한 ‘기쁨’, ‘두려움’, ‘노여움’의 이차 어휘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가 기술되었다.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 분석에 적용된 두 번째 관점은 실제 한국인이 느끼는 감정 경험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어휘의 의미가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가 사용되는 상황을 조사하여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본고의 주요한 연구 방법인 말뭉치 조사의 근거가 된다. 감정표현 어휘가 사용된 용례에서 감정발생의 원인이나 감정의 대상을 살펴보면 이들이 몇 가지의 특징적인 맥락으로 유형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용맥락 정보는 어휘가 드러내는 의미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따라서 한국인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원인 자극으로 인해 특정 감정을 느끼는지와 어떤 대상에 대해 감정을 느끼는지를 중심으로 감정표현 어휘의 사용맥락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와 사용맥락 분석과 함께 감정표현 어휘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감정표현 어휘의 개념과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감정표현 어휘의 주어 설정과 주어 인칭 제약, 구문 구조 등의 통사적 특징과 정도성, 연결성, 인과성과 피동성, 소극적 통제성 등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감정표현 어휘의 통사와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은 어휘의 사용에 있어서 통사적 결합 관계나 서법 제약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본고는 본질적으로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에 초점을 둔 연구이므로, 감정표현 어휘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 중에서도 정도성과 연결성과 같은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한국인 화자의 언어생활을 반영하는 말뭉치 자료를 토대로 감정표현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감정표현 어휘의 의미에 대한 연구들은 소설이나 신문 기사 등의 자료에서 추출된 몇몇 예문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한정된 예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어휘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연구 대상으로 삼은 어휘도 일부 유의어 쌍에 한정된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감정표현 어휘 분석 정보는 그 어휘의 범위 면에서 그리고 실제 한국인 화자의 어휘 사용맥락을 귀납적으로 검토하여 얻은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휘의 전형적인 사용맥락을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개별 어휘와 어휘 간의 의미적 특징을 제시한 것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상황에 적절한 감정표현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참고 자료로서의 효용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표현 어휘 연구로서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의 적용을 위한 기초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어휘의 의미와 사용맥락에 대한 자료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감정표현 어휘를 가르치고 학습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교육 방법의 실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화(2005), ‘중, 고급 학습자를 위한 감정 기초형용사의 유의관계 변별
기제 연구- 기쁨, 슬픔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통합관계를 중
심으로-’, 『한국어의미학』 17, 한국어의미학회.
- 김광해(1999), ‘형용사 유의어 뜻풀이 정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아름답다,
추하다 군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27,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과.
-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 김경희(1995), 『정서란 무엇인가』, 민음사.
- 김기홍(1982), ‘감정 언어와 문화적 차이 연구-한미 간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어대학교 논문집,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기홍(1993), ‘감정 개념의 정의’, 『언어와 언어학』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 김명훈, 정영운(1991), 『심리학 개론』, 박영사.
- 김선희(1990), ‘감정동사에 관한 고찰’, 『한글』 208, 한글학회.
- 김성화(2004), 『우리말 형용사의 유의어 의미연구』, 한신문화사.
- 김세중(1989), ‘국어 심리형용사문의 몇 가지 문제’, 『어학연구』 25(1), 서
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세중(1994), ‘국어 심리술어의 어휘의미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 김은영(2004), ‘국어 감정동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응모(2002), 『한국어 정서 자동사 낱말밭』, 세종출판사.
- 김정남(2005), 『국어형용사의 연구』, 도서출판역락.
- 김정현(2007), ‘한국어 감정형용사의 유의어 교육 연구: 고빈도 감정 어휘
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택(1971), ‘동의어의 의미평정-의미평정 방법의 모색을 위하여’, 『대구 교대논문집』 6, 대구교육대학교.
- 김준기(1999), ‘유의어의 의미 변별법에 대한 고찰’, 『인천어문학』 16, 인천대학교.
- 김향숙(2003), 『한국어 감정 표현 관용어 연구』, 한국문화사.
- 김홍수(1989),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심(1989), ‘화자의 시점 옮기기와 문법’, 『이용주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한샘.
- 남지순(1993), ‘한국어 형용사 구문의 통사적 분류를 위하여 I- 심리형용사 구문’, 『어학연구』 29(1), 서울대 언어교육원.
- 남지순(2007), 『한국어 형용사 어휘문법』, 한국문화사.
- 목정수(2005),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 한국언어학회.
- 박영희(1984), ‘유의어의 의미 평정 - 감정어를 중심으로’, 『수련어문논집』 11, 수련어문학회.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서희정(2010), ‘한국어교육에서 감정형용사의 제시 방안’,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문학회.
- 신은주(2008), ‘국어 감정용언의 양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석(1989), 『국어 동사의 의미분석과 연결이론』, 박이정.
- 우형식, 배도용(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어휘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유현경(1998), 『국어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만영, 이홍철(1990), ‘형용사 서술 의미의 구조에 관한 연구-정서관련어

- 회를 중심으로', 『실험 및 인지』 2, 한국심리학회.
- 이준호(2008),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사', 『문법 교육』 9,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지영(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 표현 연구', 『한국어의미학』 29, 한국어의미학회.
- 이지혜(2006), '심리형용사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사전 기술연구-언어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구(1997), '한국인의 긍정적 정서', 『심리학회』 6(2), 서울대 심리과학연구소.
- 이흥식(1996), '국어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은하(1998), '감정동사 연구', 『국어교육』 9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임지룡(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 인지』 6(2).
- 임지룡(2006), 『말하는 몸-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장효진(2001),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보관리학회.
- 정인상(1980), '현대국어의 주어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4, 국어연구회.
-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조미영(2010), '장면-상황 중심의 감정형용사 유의어교육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용(2007),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 채영희(1993), '시킴월의 유형에 대하여', 『우리말연구』 3, 우리말학회.
- 최석재(2008), '감정동사의 유형과 그 의미특성',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최현석(2011),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 한송화(2002),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 허 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홍기선(1994), 'Subjecthood Tests in Korean', 『어학연구』 30(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홍종선, 정연주(2009), '감정동사의 범주 규정과 유형 분류',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 Arieti, S.(1970), Cognition and feeling, In M. B. Arnold(ed.), *Feeling and emotions*, The Loyola Symposium, New York: Academic Press.
- Aitchison, Jean(1994), *Words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nold, M. J. & Reynolds, K. E.(2003), Hedonic shopping motivations, *Journal of Retailing* 79.
- Brenner, C.(1975), Affects and psychic conflict, *Psychoanalytic Quarterly* 44.
- Brenner, C.(1980), A psychoanalytic theory of affects, In Plutchik, R. and Kellerman, H.(eds.),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1*, New York: Academic.
- Carl Jorgensen(1928), A theory of the elements in the emotions, In Reymert, M. L.(ed.), *Feelings and emotions*, MA: Clark University Press.
- Chung, H. S.(1986), Korean Language Information Process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kyo.
- Cruse, D. A.(2001),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kman, P.(1980), *The face of man: Expressions of universal emotions*

- in a New Guinea village*, New York: Garland STMP Press.
- Ekman, P.(1989), *The argument and evidence about universals in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New York: Wiley.
- Epstein, S.(1984), Controversial issues in emotion theory, In Philip Shav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Beverly Hills, Calif: Sage.
- Fehr, B., & James. A. Russell(1984), Concept of emotion viewed from a prototype perspectiv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20.
- Fromme, Donald K., & Clayton S. O'Brien(1982), A dimensional approach to the circular ordering of emotions, *Motivation and Emotion* 6.
- Hubert Rohrer(1976), *Einführung in die Psychologie*, 윤홍섭 역 (1990), 『심리학 개론』, 도서출판 성원.
- Hiebert, Elfreda H.(2005),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Izard, C. E.(1972), *Patterns of emotions, a new analysis of anxiety and depression*, Academic Press.
- James W. Kalat, & Michelle N. Shiota(2005), *Emotion*, 민경환 외 역 (2007), 『정서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Jack C. Richards(2000), *Vocabular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mper, T. D.(1987), How many emotions are there? Wedding the social and the autonomic compon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 Kleinginna, P. R., & Kleinginna, A. M.(1981), A categorized list of emotion definitions with suggestion for consensual definition, *Motivation and Emotion* 5(4).
- Lazarus, R. S.(1991), *Emotions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Doux, J.(1996), *The emotional brain*, New York: Simon & Schuster.
- McDougall, W.(1921),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Boston: Luce.
- Mesquita, B., & Frijda, N. H.(1992), Cultural variations in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3.
- Mesquita, B., Frijda, N. H., & Scherer, K. R.(1997), Culture and Emotions, In J. W. Berry, P. R. Dasen, & T. S. Sarawathi(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Basic processes and human development 2*,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Murphy, M. Lynne(2003), *Semantic relations and the lexicon: antonym, synonym, and other paradigm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tion, I. S. P.(1997),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Boston: Heinle and Heinle Publishers.
- Nation, I. S. P.(2002),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tony, A., Clore, G. L., & Collins, A.(1998), *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utchik, R.(1980), *Emotions: A psychoevolutionary synthesis*, Harper & Row.

- Plutchik, R.(1991), *The emotion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Plutchik, R.(2000), *Emotions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Clinical implications of affect theori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lutchik, R.(2003), *Emotions and life: Perspectives from psychology, biology, and evolution*. - 박권생 역(2004), 『정서심리학』, 학지사.
- Radden, G.(1998), The conceptualisation of emotional causality by means of prepositional phrases, In Athanasiadou, A. & E. Tabakowska(eds.), *Speaking of emotions: Conceptualisation and expression*. Walter de Gruyter.
- Rubin, Z.(1970), Measurement of romantic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2).
- Schmidt, N.(2000), *Vocabulary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 Trevarthen, C.(1984), Emotions in infancy: Regulators of contact and relationship with persons, In Kalsu R. Scherer and Paul Ekman(eds.), *Approaches to Emotion*, Hillsdale, N.J.: Erlbaum.
- Ungerer, F., & Schmid, H.-J.(199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Longman.

<한국어 교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0), 『한국어 초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1), 『한국어 초급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2), 『한국어 중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2), 『한국어 중급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3), 『한국어 고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3), 『한국어 고급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 한국어 1A, 1B』, 서강대학교 출판부.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 한국어 2A, 2B』, 서강대학교 출판부.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 한국어 3A, 3B』, 서강대학교 출판부.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 한국어 4A, 4B』, 서강대학교 출판부.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 한국어 5A, 5B』, 서강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0), 『한국어 1』,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0), 『한국어 2』,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0), 『한국어 3』,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0), 『한국어 4』, 문진미디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한국어 1』,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한국어 2』,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8), 『연세한국어 3』,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8), 『연세한국어 4』,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연세한국어 5』,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연세한국어 6』,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9), 『말이 트이는 한국어 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말이 트이는 한국어 3』,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 4』,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7), 『말이 트이는 한국어 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말뭉치>

국립국어연구원(1998-2007),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구어, 문어 자료.

꼬꼬마 세종말뭉치 활용 시스템 <http://124.137.201.234:8080/search>

<사전>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광해(2002), 『비슷한말 반대말 사전』, 도서출판 날말.

신현숙 외(2000), 『의미로 분류한 한국어·영어 학습사전』, 한국문화사.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임홍빈(1993), 『한국어 사전』, 랭기지플러스.

<부록> 상황별 감정표현 어휘 사용 설문지-한국어학습자용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 사용 조사

본 설문지는 ‘한국어 감정 표현 어휘’에 대한 것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 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경대학교 대학원)

[응답자 기본 정보]

국적	()	성별	☐ 남 ☐ 여
나이	()세	직업	()
한국어 학습 단계	☐ 초급 ☐ 중급 ☐ 고급		
한국어 학습 기간	()년 ()개월		
한국 체류 기간	()년 ()개월		
한국어 학습 목적	()		
한국어 학습 교재	지금까지 배웠던 한국어 교재 이름과 급을 모두 써주세요. 예) 연세한국어 3 ()		

[상황별 감정 어휘 사용 조사]

※ 다음에 제시된 상황을 읽은 후 각 상황에서 어떤 감정 또는 정서를 느끼는지 한국어 어휘로 대답하여 주십시오. (같은 어휘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됩니다.)

상황 1

나는 지난주에 취직 면접을 봤다. 나는 그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회사에서 합격 전화가 왔다. 나는 전화를 받고 정말 _____.

상황 2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장에 있다.

나는 지금 너무 _____.

상황 3

밤에 혼자 집에 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린다. 나는 지금 너무 _____.

상황 4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아침부터 아무 것도 못 먹고 방에 혼자 누워 있으니 엄마 생각도 나고 눈물이 난다. 이렇게 가족도 없는 외국 땅에서 몸까지 아프니까 정말 _____.

상황 5

회사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디로 가야할지 길을 모르겠다. 이러다 정말 길을 잃을까 봐 _____.

상황 6

우리 회사 사장님은 간섭이 심하다.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옷 입는 것까지 일일이 다 간섭한다. 오늘도 내 옷차림을 보고 10분 동안 잔소리를 하셨다. 오늘도 사장님의 잔소리를 들으니 _____.

상황 7

우리 집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그리고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10년째 집에 누워 계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오늘도 집 걱정 때문에 하루 종일 _____.

상황 8

영화관에 사람이 많다. 표를 사려고 30분 넘게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앞으로 끼어들어 새치기를 한다.
나는 너무 _____.

상황 9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있다. 가수들의 무대를 보니 _____어/아/여서 나도 같이 춤을 추었다.

상황 10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해운대에 갔다. 해운대에서 수영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오늘 하루 정말 _____.

<부록> 상황별 감정표현 어휘 사용 설문지-한국인용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 사용 조사

본 설문지는 ‘한국어 감정 표현 어휘’에 대한 것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 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경대학교 대학원)

[응답자 기본 정보]

국적	한국	성별	☐ 남	☐ 여
나이	()세	직업	()	()

[상황별 감정 어휘 사용 조사]

※ 다음에 제시된 상황을 읽은 후 각 상황에서 어떤 감정 또는 정서를 느끼는지 한국어 어휘로 대답하여 주십시오. (같은 어휘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됩니다.)

상황 1

나는 지난주에 취직 면접을 봤다. 나는 그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회사에서 합격 전화가 왔다. 나는 전화를 받고 정말 _____.

상황 2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장에 있다.

나는 지금 너무 _____.

상황 3

밤에 혼자 집에 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린다. 나는 지금 너무 _____.

상황 4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아침부터 아무 것도 못 먹고 방에 혼자 누워 있으니 엄마 생각도 나고 눈물이 난다. 이렇게 가족도 없는 외국 땅에서 몸까지 아프니까 정말 _____.

상황 5

회사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디로 가야할지 길을 모르겠다. 이러다 정말 길을 잃을까 봐 _____.

상황 6

우리 회사 사장님은 간섭이 심하다.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옷 입는 것까지 일일이 다 간섭한다. 오늘도 내 옷차림을 보고 10분 동안 잔소리를 하셨다. 오늘도 사장님의 잔소리를 들으니 _____.

상황 7

우리 집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그리고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10년째 집에 누워 계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오늘도 집 걱정애 하루 종일 _____.

상황 8

영화관에 사람이 많다. 표를 사려고 30분 넘게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앞으로 끼어들어 새치기를 한다.
나는 너무 _____.

상황 9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있다. 가수들의 무대를 보니 _____어/아/여서 나도 같이 춤을 추었다.

상황 10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해운대에 갔다. 해운대에서 수영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오늘 하루 정말 _____.